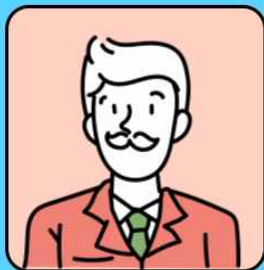


독서동아리 서평집

책을 읽고 삶을 쓰다



on·off
견생북클럽
소리벗의낭만낭독
독하리
동네책방
동화읽는어른모임
멘도롱또뜻
민들레책향기
부제
부평독서클럽
불독클럽
붓과펜
사공이
산책
상상독서회
상상책다락
소북소북
에포케
일상그리고독서
책읽는도깨비
책GPT
책나들이
책소풍
책아리연구소
책잇수다
키즈북마미
페다고지
픽쳐북토크
학부모글바시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자율독서동아리
함께 읽는 시간, 책으로 만난 우리

책을 읽고 삶을 쓰다

발행일 | 2025년 10월 22일

글·사진 | on:off 견생북클럽 낭만낭독 독하리
동네책방 동화읽는어른모임 멘도롱도트
민들레책향기 부제 부평독서클럽 불독클럽
붓과펜 사공이 산책 상상독서회
상상책다락 소북소북 에포케
일상그리고독서 책읽는도깨비 책GPT
책나들이 책소풍 책아리연구소 책잇수다
키즈북마미 페다고지 픽처북토크 학부모글바시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독서문화과)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21

전 화 : 032-363-5013

누리집 : <https://lib.ice.go.kr/shintree>

제 작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I S B N | 979-11-94496-37-3

* 이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자율독서동아리 동아리원들의 참여로 제작된 서평 모음 책입니다.

* 이 책의 글과 그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책을 읽고 삶을 쓰다

on·off 견생북클럽 낭만낭독 독하리
동네책방 동화읽는어른모임 멘도롱또뜻
민들레책향기 부제 부평독서클럽 불독클럽
붓과펜 사공이 산책 상상독서회
상상책다락 소북소북 예포케
일상그리고독서 책읽는도깨비 책GPT
책나들이 책소풍 책아리연구소 책잇수다
키즈북마미 페다고지 픽처북토크 학부모글바시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ON-OFF 6

질서를 넘어 혼돈을 끌어안는 용기 / 강지윤

소란스럽지 않게, 오래남는 이야기 / 김정은

초역 부처의 말 / 유지후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 유한나

사랑에도 색이 있어요. / 이현진

더 셜리 클럽 / 전수형

견생복클럽 20

누가의 관점으로 본 사람. / 김수형(열정나비)

울컥함과 침묵 사이에서 읽은 한 권 / 김효선(보나오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미술 만나기! / 류윤정(행복하자)

「스토너」 존 윌리엄스 / 서인숙(자두)

진정한 말센스는 무엇이며 나는 말센스가 있는 편일까 / 송선영(보배)

스스로 행복하라 / 이경애(찬누리)

이국 땅에서 영어로 쓴 우리네 삶과 사랑이야기 / 이길례(진달래)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 이상주(타샤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속삭이듯 천천히 살고 싶습니다. / 이성애(줄리아)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 / 장정희(케이트)

스토너 / 정선옥(씨니)

소리벗의 낭만낭독 48

낭독으로 어린왕자를 다시 만나다 / 강봉란

수치심에서 진짜 나로 / 권혜조

「내 마음을 누가 알까요?」 줄리크라우리스 / 김수영

수치심에서 진짜 나로 / 박경숙

엄마와 딸 / 신선경

옷장에서 꺼낸 치유, 그리고 남은 의문 / 이미영

삶의 성장을 이끄는 '낭독' / 이현정

지구를 살리는 삶을 살자!!! / 조은경

讀(독)하리 76

편의점, 낯선 만남이 남긴 따뜻한 흔적 / 김효식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 나혜정
어설픈 유괴범과 천재소녀의 유쾌한 일상의 미스터리 / 박경순
회상 / 송봉라
마주해야 할 삶의 시간 / 주미정

동네책방 90

나의 봄날은 언제 올까? / 한혜경
불안의 언어를 철학의 언어로 다독이다 / 허정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운 기념비 / 이시연

동화읽는어른모임 98

「눈과 보이지 않는」 데이브 에거스 글 손 해리스 그림 / 권향란
내 마음에도 리디아의 정원이 있는가? / 배현미
놓치고 있던 진심 / 염은정
비공감이 괴물을 만든다 / 이선아
인간의 상상력, 문제 해결의 열쇠 / 이수진
독서는 늙음이라는 독에 대항하는 해독제다 / 조영화
나도 책을 먹는다면 / 조은희
「길러지지 않는다」 탁동철 / 최명심

멘도롱또뚝 120

말하는 것의 중요성 / 김민균
읽어도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 / 김수환
삶은 짧다 / 유소영
때로는 흐르는 대로 살아가자 / 이수민
세상은 참 놀라워 / 이지영

민들레 책향기 132

말을 잃은 그녀와 눈을 잃어가는 그 / 김미나
소통이 상실의 마음을 치유한다. / 서민숙
이제야 진심을 전하는 막둥이의 고백 / 이금숙
침묵과 빛 / 이은성
인간의 고통, 상실, 치유를 거쳐 희망을 꿈꾼다. / 채경희
사라진 것들과,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하여 / 한순영

부제 148

후성유전학과 교육의 힘 / 박성준
지리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 / 박정연
하나는 모든 것으로 이뤄져 있고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나온다 / (이름없음)

부평 독서 클럽 158

슬픔을 건디는 여행 / 곽은수
범주의 커튼을 젖히다 / 노강윤
내 안의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 유보환
깨지고 상한 모든 것에 바치는 찬사 / 이진주
그냥 모든 게 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의 변명 / 이화배
작가와와 만남 / 최수정

불편한 책읽기 클럽(불독클럽) 174

미완의 꿈은 누구나 품고 있지만, 누군가는 삶을 통해 천천히 이뤄간다 / 조성숙
하루하나 클래식 / 이순전
「나폴리 4부작」 엘레나 페란테 / 문순영
죽음이 삶을 비추는 순간 -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 최혜미
과학과 철학이 공존하는 SF의 진수,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 이해원

붓과 펜 188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 김경선
어머니의 선물 / 박수복
너에게만 알려주는 비밀 / 조운주
호기심 많은 파랑이 / 조정례
증오를 넘어 삶을 불드는 힘 / 홍희경

사공이 202

행복한 바보 / 구달령
폭력과 아름다움 / 손연숙
꽃이 핀 쪽으로 / 정미정
제주 / 정유지
인정욕구를 부정하자 / 황인하

산책 210

품위와 후회 사이에서 / 고선화
청춘의 나침반, 고전을 읽다. / 고종백
낭만과 품위의 시대정신 / 구혜지
절망의 언저리에서 피어난 '희망'의 조각들 / 송은비
불안이라는 시대의 거울 / 정은채

상상독서회 224

모녀 삼대의 바다 밥상 / 강선미
우리의 신념은 절대적이지 않다. / 김은숙
《베아》를 읽고 / 이영미
삶은 모순을 안고 걸어가는 길 / 이지현

상상책다락 238

다시 만난 아이 모모 / 김지혜

너에게로 로그인을 읽고 / 민서운

날개 없는 이들이 지켜낸 날개: 생각할 것인가, 이야기로 책을 덮을 것인가 / 박혜진

소문 때문에 망한 동물 나라, "그 소문 들었어?"을 읽고 / 이수빈

그 소문,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그 소문 들었어?」 / 이해원

만나보고 싶은 모모 / 홍슬아

소북소북 256

영혼을 잇는 마인드 업로딩 / 김은서

소설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료이다. / 장철

아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온 소년 / 정현옥

긴긴밤 나의 길동무 / 최보름

서늘한 SF 이야기 속 따듯한 위로 / 한윤희

에포케 272

나를 숨 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 김민영

자존감 수업을 통한 삶의 변화 / 김연우

사소한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회복탄력성 / 김지운

기억의 공간 / 박리안

우리는 모순과 함께 살아간다 / 안서연

결국엔 모순적인 우리의 삶 / 안승미

눈 같은 사랑 / 이기석

일상 그리고 독서 292

1984를 읽고 / 민윤정

작별하지 않는다 / 신현경

나의 체리 새우 : 사춘기 시절 나와 마주하다. / 이서연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 이해명

책 읽는 도깨비 304

막야구부의 시작 / 강수지

짜이 난 감자는 나쁜 감자가 아니야. / 강연우

「5번 레인」을 읽고... / 박서준

얼렁뚱땅 고구마 머리 2권을 읽고 / 이다현

금복이이야기6 읽고... / 이승은

책GPT 310

현재와 소통, 내 삶의 변화를 위한 단어들 / 김생일

가족 공부, 사랑과 존중을 위한 첫걸음 / 김아영

낡은 집이 건네준 따뜻한 위로... 「순례주택」을 읽고. / 김은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 박동섭

「가족공부」를 읽고... / 엄창호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재해석 / 윤귀형

진정한 어른이란? / 황희정

책나들이 328

애도의 방법 / 강진솔

아직 작별하지 않는 이유 / 김영민

흐르는 강물처럼, 방법은 그 뿐이라고 / 박성민

시간을 되찾는 여행 / 박은영

사랑이란 두 가지 이름 / 배애솔

인생은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 윤미선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간다면 / 최주영

책소풍 350

행복은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다 / 양효선

일상이 멈추니,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 유희정

너무 늦게 알게 되는 마음, 엄마가 남긴 건 종이 동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

최수란

책아리연구소 360

패배 속의 승리, 침묵 속의 외침 / 그린
미래의 내 삶에는 어떤 질문이 던져질까? / 보라
세대의 바다를 건너는 법 / 블루
노인과 바다를 읽고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기 / 연두
나는 나의 삶에서 패배하지 않았다. / 오렌지
비록 싸움은 끝나도 의미는 계속 남는다. / 초록

책잇수다 374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해 / 송은미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농담 / 조인숙
독서의 새로운 발견 / 최남순
예술의 자율성과 윤리 / 황계화

키즈북마미 384

나의 아빠 / 김보겸
How Do You Feel? / 김보겸
기분 어때? / 김보민
같이 놀자! / 김보민
캐치볼하고 놀자 / 민경미
코끼리와 돼지의 아이스크림 / 민경미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 / 박은혜
나눔의 의미 / 전나리
오늘 나의 마음은? / 천성미
그는 말했다. / 천성미
귀여운 강아지 비스킷 / 최주혁
나도 정원이 갖고 싶다. / (이름없음)

페다고지 404

노동의 미래와 공공성 / 조동석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 / 이지선
미술을 보는 관점 / 황민령
시험은 공정한가 / 나명은
따뜻한 단호함 / 송선화
거짓말, 악의가 아닌 선택 / 안수경

픽처북talk 426

아생초가 주는 담담한 응원 / 강나영
어쨌든 실수, 『The day of mistakes』 / 김미성
나만의 용을 찾아서 / 김선아
우주는 우리의 운명을 어디로 이끄나 / 이옥화
마음안경점 / 정여진
지금도 반복되는 우리 이야기 / 정현희
말 없이 건네는 가장 다정한 위로 / 조아해
꿈은 꿈이다. / 조해미
이야기의 숨겨진 힘, 그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림 그리고 사랑 / 최미
잊혀진 이주의 역사 / 최연경
모험의 끝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시각 / 최은정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단어들 / 황영명

학부모글바시 460

울타리의 존재 / 김동미
기름때 묻은 엄마의 앞치마를 마주하다 / 김미성
슬픔도 힘이 된다 / 김선훈
책에서 찾은 내 마음의 상처 치료제 / 류진영
신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선물로 준다. / 조인애
미래의 나를 위해 스스로 세우는 원대한 목표 / 한지혜

ON-OFF

강지윤, 김정은, 유지후, 유한나, 이현진, 전수형

T와 F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오늘날,
독서 후 생각을 공유하며 T와 F를 ON, OFF해보아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롤루 밀러

질서를 넘어 혼돈을 끌어안은 용기

강지윤

롤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 논픽션이면서도 철학적이고, 동시에 저자의 내밀한 자기 고백이 담긴 책이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는데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류’라는 범주는 계통학적 근거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질서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상징한다.

책의 큰 줄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19세기 어류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초대 총장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좇는 이야기다. 그는 대지진으로 수만 점의 표본이 파괴되자 바늘로 물고기에 이름표를 꿰매며 질서를 복구하려 애썼다. 밀러는 처음에 그의 집념에 매료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완벽한 질서’를 인간 사회에까지 적용하며 우생학 운동을 옹호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질서에 대한 집착이 과학적 성취를 낳았지만, 동시에 타인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조던의 삶은 양면성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저자 자신의 여정이다. 밀러는 삶의 의미를 잃

고 혼돈에 휘둘리던 시기에 조던의 이야기를 통해 위안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된다. 완벽한 질서는 안전망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과 우연성, 즉 혼돈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인간다운 삶에 더 가깝다는 통찰에 도달한다.

책의 묘미는 단순한 전기나 과학 에세이를 넘어, 독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데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류’ -즉 허구의 범주-를 붙잡고 있는가? 그 범주를 내려놓으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택할 것인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국 이렇게 말한다.

질서가 전부가 아니다. 혼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빛난다.

책을 읽으며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어류의 범주’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되물게 되었다. 나에게 그것은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은 그 확신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그리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저자가 조던의 삶을 따라가며 혼돈을 두려워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나 역시 완벽한 질서 대신 불완전한 과정 속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삶에서 혼돈이 찾아올 때, 이 책의 제목처럼 그 혼돈 속에 숨어있는 자유와 가능성을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소란스럽지 않게, 오래남는 이야기

김정은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는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여운을 남기는 소설이다. 이야기는 ‘심시선’이라는 인물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가족들이 하와이로 추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이지만,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그의 삶은 소설 속 곳곳에서 생생하게 전해진다. 각기 다른 인물의 시점을 따라가며 심시선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차분하게 그려낸다.

소설은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가지만, 인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촘촘히 쌓이면서 읽는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파고든다. 특히 인물들의 말과 기억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은 인상 깊었다. 누구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심시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던 것처럼,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하나로 정의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무게감도 느껴진다.

정세랑 특유의 문체는 이 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짧고 명료하지만 감정을 놓치지 않는 문장, 인물들의 말투에 녹아든 위트와 따뜻함이 소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다정하지만 진지함을 잃지 않고,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은 이야기 전개 덕분에 몰입감도 높았다.

책을 읽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도 이모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누군가가 있었을까?’ 혹은 ‘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시선으로부터’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꼭 정답이 필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 소설을 읽고 난 후에는 잠시 멈춰서 곱씹어보게 된다.

이 책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다. 거창한 주제를 외치지 않고, 큰 사건을 그리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하게 남는다. 각자의 기억과 시선 속에 살아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을 다 읽은 뒤에도 한동안 생각에 머무르게 된다. ‘시선으로부터’는 차분한 분위기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히 잘 맞을 것이다. 누군가의 삶을, 기억을, 그리고 그 잔상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에게 조용한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이스케

초역 부처의 말

유지후

/ 읽게 된 계기

불교는 단순히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 내면의 무언가를 초월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알고 다스리는 그런 불교적 자세를 배우고,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고자 이 책을 집어들게 되었다.

/ 와닿은 구절

험담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타인을 상처입히려고 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운전할 때 욕을 하면 욕을 할 땐 풀릴지 몰라도 결국 그 욕을 듣는 건 나 자신뿐이라고 한다. 이 말을 접한 후로 욕을 좀 줄이게 되었다.

자기 내면을 알아차린다: 자기 내면을 의식해서 현재 자신이 무슨 욕구와 감정이 드는지를 알아차린다면 혼란한 마음이 정리되어 명료해진다.

나는 항상 내 마음을 바로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며칠 지

나야 그 날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을 해야하는 순간 혹은 화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순간이 지나버린다. 상황파악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내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편인데 평소에 내면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글도 와닿았다.

부처의 가르침의 정수: 스스로 마음으로 정한 규칙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여 마음의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교만함을 순순히 내려놓는다/ 무슨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연습/ 친구인척하는 가짜 친구/ 등의 글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고치고 반영해야 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독서모임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왔던 의견으로는 이 책이 자기개발서 느낌이 들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느낌이라 거부 반응이 든다는 것이 있었다. 나 역시 자기개발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기본적 불교 교리인 무소유의 의미가 내면의 화를 다스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접했기에 책의 내용 자체도 더 반감 없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이 책을 추천할 때에는 그러한 불교의 특성도 함께 말해주며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 드 보통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유한나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밀물처럼 들어오게 된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어서 들어왔던 마음이 서서히 다른 곳으로 향하기도 한다.

알랭 드 보통은 인간의 사랑을 바다의 밀물과 썰물에 비유하여 사랑의 유무를 이야기한다.

밀물, 썰물같이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을 연속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랑의 끝은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을 책 속에선 “사랑의 끝은 그 시작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사랑의 붕괴 요소들은 그의 창조된 요소들 안에서 전조 증상이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붕괴의 증상이 보이듯이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을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온전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까?, 거짓으로 만들어 낸 내가 아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책에서는 사랑을 넘어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함없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이를 바다에 비유한다면 사랑과 다름없다고 생각되었다. 인간이 살아가며 사랑하고, 울고, 웃는 감정을 갖는 모든 일상에서 말이다. 이 안에서 서로 간의 몸이 움직이고, 걷고, 앉고 일하는 것처럼 우연과 필연 속에서 관계가 맺어진다. 인간의 몸짓이 우연이 되어 필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책에서 말하는 마음속 바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생각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 우정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과 움직임 변화를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드린다.

「더 셜리 클럽」 박서련

사랑에도 색이 있어요.

이현진

"목소리가 보라색인 사람"

책 속 이 한 문장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색이 없는 목소리에 색을 입히는 순간, 검은 글자만 있던 페이지에서 여러 색이 흘러나왔다.

낮선 도시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작은 클럽. 서로를 알아보며 웃는 그 장면에서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전해졌다. 어쩌면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은 생각보다 사소하고, 그만큼 깊을지도 모른다.

한국을 떠나 호주 멜버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온 설희는 낯선 환경 속에서 매일이 낯설고 외롭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걷다 '더 셜리 클럽'이라는 이름의 퍼레이드를 발견한다. '더 셜리 클럽'의 참여 조건은 단 하나, 이름이 '셜리'일 것. 이 단순한 기준으로 모인 사람들 속에서 설희는 따뜻한 관심과 웃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S'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

이 소설을 읽으며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부러움이었다. 항상 혼자였던 설희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으며, 그들과 모임을 가지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이름 하나로 이어진 인연이 설희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S'와의 만남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왔다. 'S'와 대화를 나눌수록 설희는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경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묘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더 마음을 빼앗긴 건 '목소리가 보라색인 사람'이라는 표현이었다. 물들지 않는, 자기만이 가진 고유한 색을 지닌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맞추느라 스스로의 색을 잊고 산다. 그 색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설희는 그런 사람이었다. 설희는 모든 사람의 색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색이 더 빛나도록 곁에서 색을 더해주었다.

셜리 클럽의 연대가 설희에게는 소속감의 문을 열어 주었다면, '목소리의 색'은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존재를 잃지 않게 해주었다. <<더 셜리 클럽>>은 이름 하나가 만들어 낸 연대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자기만의 색을 이야기한다. 나는 이 책을,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사람에게, 그리고 잊고 있던 자신의 색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더 셸리 클럽」 박서련

더 셸리 클럽

전수형

사람이 여타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작거나 큰 조직에 소속해있다. 예를 들자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나이의 또래 친구가 될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 설희는 소속감을 거의 가지지 않고 살았었다. 국가를 떠나 호주란 낯선 땅에서 지냈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최소한의 친목만 가졌고 부모님은 이른 나이에 이혼하셨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었지만 설희는 의연하게 살아갔던 것 같다. 그 날, 페스티벌에서 한 클럽에 가입하기 전까지.

셸리 클럽이란 동명의 이름을 가진 이들이 가입하는 소모임이 있었다. 설희의 가입을 두고 낯선 타지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여자아이의 가입을 받아야 하는가에 논의가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해 점차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설희는 약간의 도움을 받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다시피했던 직장을 대신해 맞서줘 담당자에게서 사과를 받기도 했다.

설희에게 소속감을 가르쳐준 건 수많은 셜리들만이 아닌 H란 사람의 역할도 있었다. 보라색 향이 나던 그는 설희와 다정한 시간을 가지며 그의 세계로 안내했다. H가 잠시 가족의 일로 떠나자 설희는 부재를 느끼고 H를 떠나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다. 막막했던 그 과정 속에는 타 지역의 셜리들의 도움이 있었고 마침내 H와 재회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야기는 끝난다.

외로웠던 설희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수많은 셜리들과 H를 만남으로 그녀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고 행복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 선택은 설희 본인이 한 것이고 직접 행동으로 옮겼기에 할 수 있던 것이지만 누군가와 어울렸기에 해피엔딩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견생북클럽

강혜정, 김수형, 김지현, 김효선, 노수진, 류윤정,
서인숙, 송선영, 이경애, 이길례, 이상주, 이성애,
장정희, 정남희, 정선옥, 한라

책을 매개로 삶의 활력을 나누는 40~60대 여성들의
7년 차 독서모임 '견생(見生)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책과 마음을 나누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갑니다.
언제나 미소가 번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모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람』 이정우

누가의 관점으로 본 사람.

김수형(열정나비)

작가는 의사이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의사이다. 현대 의학을 공부한 그가 인간이란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과 혼, 영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없다고도 무시하기도 힘든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했던 흔적이 이 책을 읽다보면 곳곳에서 보인다.

가령 한강 작가의 소설을 통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영혼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간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뇌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서서히 밝혀진 정신적 기능들에 대한 설명과 시를 통해 사람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하는 방식도 새로웠다.

사람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다 보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갈등과 분열은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는지를 과거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드라마를 통한 예시로 설명하였다. 독특한 것은 종교가 없는 저자

가 성경 속에서 사람에 대한 고민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고통은 왜 오는 것일까? 고통은 사람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일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갈 것이다.

극심한 고통, 통증의 마지막 끝에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성경 속 예수를 통해 설명해 놓았다. 나약한 인간으로 태어나 극심한 고통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신념은 무엇인지.

나약한 인간이 공동체를 통해 지금까지 살아내면서 믿음, 신뢰, 신념을 어떻게 지켜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시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온 뒷담화 이론을 설명하였다.

나약한 인간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뒷담화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이루었고 옛날에는 뒷담화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지금은 부정적으로 쓰이는 뒷담화가 말이다.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고통과 시련을 맛보기도 하고 서로 화해를 하며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한 개인의 사람이 아닌 공동체의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저자는 마지막에 ‘완전한 사람을 기다리며...’라고 마무리를 했다.

저자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척 궁금해지는 질문을 던져주며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가장 독특했던 것은 추천사를 시가 써 주었다는 것이

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기를.....

「소년이 온다」 한강

울컥함과 침묵 사이에서 읽은 한 권

김효선(보나오라)

『소년이 온다』는 언젠가 읽어야지 마음만 먹고 미뤄두었던 책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영화나 뉴스에서 여러 번 접했지만, 왠지 글로 읽는 건 더 무거울 것 같아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그러다 독서모임에서 한강작가 읽기를 통해, 책장을 펼치게 되었다.

읽는 순간부터 끝까지, 울컥함과 침묵이 번갈아 가며 마음을 채웠다.

이 책의 작가 한강은 한국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소설가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지만, 조용하고 절제된 문장 속에 깊은 울림이 담겨있는 작가이다.

『소년이 온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 5월, 광주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슬픔을 전한다.

책은 열다섯 살 소년 동호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그는 도청 안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맡고, 결국 끝까지 남았다가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된다.
동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함께 있었던 이들,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과 기억이 이어진다.
그들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죽은 자의 시점으로 서술된 장면들이었다.
떠난 이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하고 있었다.
“잊지 말아달라,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 소리가 마음속 깊이 울렸다.
작가는 그런 방식으로 독자에게 기억의 책임을 건네고 있었다.
결코 강요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책을 덮고 나서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날의 고통은 정말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였을까?
그날 서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아주었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이 온다』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날 있었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일상이, 누군가의 용기 위에 있다는 걸 더 깊이 새기게 되었다.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미술 만나기!

류윤정(행복하자)

7년 전 여행을 떠난 제주도에서 국가 기간통신시설이던 오래된 벙커에서 ‘빛의 벙커’라는 이름으로 예술과 음악이 융합된 문화 재생 컨셉의 미디어아트를 접하게 되었다. 이때 빛과 음악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영상에 구스타프 클림트와 훈베르트 바서의 작품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고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 아직도 훈베르트 바서의 빛방울이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벽면에서 춤을 추는 듯하다. 이렇게 한 편의 영화 같은 영상에서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읽어내는 재미를 맛보았다.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미술작품과 내가 좀 더 편하고 친해진 친구가 되게 해주는 것처럼 그저 미술관 갈 시간이 좀처럼 없던 때 ‘방구석’(사실 이 책의 제목 중 일부인 이 단어에 손이 가 펼쳐보게 되었다.)에서라도 그림을 감상하며 책을 읽어보면 지친 일상에 단비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가벼운 맘으로 이 책 〈방구석 미술관〉을 읽게 되었는데 상상 그 이상이었다.

우선 작가 조원재는 ‘미술은 누구나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모토 아래 2016년부터 팟캐스트 〈방구석 미술관〉을 진행하고 있다. 미술에 대한 오해와 허례허식을 벗겨 모두가 ‘미술, 사실은 별거 아니구나’를 깨닫고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구석 미술관〉(2018)과 〈방구석 미술관2:한국〉(2020), 최근 〈방구석 미술관3:서양서양현대미술〉(2025) 출간했다.

우리는 처음 미술을 접할 때 보통 ‘공부’를 하게 되고 친해지기 전에 ‘서양미술사’라는 역사로 접근하거나 ‘미학’이라는 학문으로 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미술은 공부’라는 오해만 품고 영영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작품 앞에서 눈과 가슴이 아닌 암기한 지식을 되새기며 ‘시험 정답 맞추기 식’ 감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미술을 머리로는 이해한 것 같지만, 정작 가슴으로 공감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의 프로필을 안다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듯, 미술 역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친해질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작가 조원재는 미술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미술사적 의미가 아닌 예술가의 삶에서 ‘왜 그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슴으로 공감하는 경험을 선물해 준다.

절규의 화가 몽크. 심장의 피로 그렸다는 절규, 늘 그의 그림에선 음산함과 괴기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게 영원히 각인될 고통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책, 정통 귀족 출신으로 전통 미술 교육을 받고, 전통 미술 시스템을 따라왔었지만 99퍼센트의 화가들이 의문 없이 따랐던 고전적인 아카데미 화풍을 파괴한 마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 - 이 책을 읽다 보면 작품의 해설이 아닌 ‘우리와 작품으로 소통하길 간절히 원했던’ 예술가의

숨소리를 듣고 공감해 나가는 경험이 생기게 된다.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과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

「스토너」 존 윌리엄스

서인숙(자두)

〈스토너〉는 1965년에 출간된 존 윌리엄스의 세 번째 소설로 미주리 대학교 영문과 조교수의 삶을 그리고 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p6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열아홉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도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동료들이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중세 문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문헌은 지금도 희귀서적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영문과 교수 윌리엄 스토너를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동료들이 미주리 대학 도서관에 기증.”

가끔 어떤 학생이 이 이름을 우연히 발견하고 윌리엄 스토너가 누구인지 무심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호기

심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토너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 있을 때도 그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 않는다. 노장교수들에게 스토너의 이름은 그들을 기다리는 종말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고, 젊은 교수들에게는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일깨워 주지 않고 동질감을 느낄 구석도 전혀 없는 단순한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주인공 스토너는 우리가 소설에서 기대하게 되는 독보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다. 스토너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인물들도 우리 자신의 일부분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평범하다. 스토너는 농과 대학 2학년 교양 과목인 영문학 개론 강의에서 셰익스피어 시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고 평생을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수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는 부모에게 끝까지 다정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서툰 아들이었고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실패한 불행한 남편이었으며 불안정한 엄마로부터 사랑하는 딸을 지켜내지 못한 부족한 아빠였다. 영혼의 반쪽 같은 캐서린을 만나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가 가정을 버리고 그녀를 선택한다면 결국 그들 자신이 파괴되고 그들의 일이 망가질 것이라며 헤어진다. 조금 기묘하기는 했어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바친 스토너, 죽음을 앞 둔 그는 자신이 살아 온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묻는다.

p385

넌 무엇을 기대했나?

스토너를 읽고 나면 우리도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난 무엇을 기대했나?”

「말센스」

진정한 말센스는 무엇이며 나는 말센스가 있는 편일까

송선영(보배)

인생을 살아 가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는 요소가 말인데 말이란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럼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말을 잘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책은 CNN, BBC등 여러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인 셀레스트 헤들 리가 알려주는 말에 대한 센스를 16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재주보다 말센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 하면 저는 김제동과 유재석이 먼저 떠오릅니다.

보통 같이 있으면 조언이나 충고 설명 등을 장황하게 자기 위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다 보면 지루하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는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김제동과 유재석의 이야기는 재미있고 웃으며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유명 방송인이고 오랜 시간 많은 국민과 소통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말을 잘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말보다 말센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말을 잘하는 것은 들어 주는 것, 참는 것, 침묵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 공감, 배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말센스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16가지 목차 중 제게 크게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3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인공이 되려는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합니다.

학교시절 교장선생님의 말씀, 회사 회의 시간 상사의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얼마나 지루하고 듣기 힘들었습니까? 나는 혹시? 초등, 중학생을 많이 대하는 저는 학생들이 걱정되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화 나르시즘’이란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나와 연관시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 할 때 나의 경험 위주에 비추어 비슷한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이지요. 이때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나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조금 더 살았다고 충고를 해주기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 아이들과 조금 더 깊은 사이가 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둘째,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스스로 행복하라

이경애(찬누리)

법정스님과 떠나는 여행

*법정스님 의 열반 10주기 특별판 소장하고 싶어 구입한 책
초가집 뒤꼍의 굴뚝으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연기가 집 언저
리를 맴돌듯이 책 표지를 쓸어내리고 메만지며 한 장 넘기는
손길에 떨림이 또로록 흘러내렸다.*

서문과 더불어

1장, 행복 2장, 자판연, 3장, 책, 4장, 나눔으로 되어 있는
200페이지 남짓의 조금은 가볍게 만져지는 책 하지만 결코 가
볍지 않은 마음의 울림이 온 마음에 오는 책 스스로 행복하라
서문에서부터 폭풍 같은 마음의 질문을 받게 되지만 기분 나쁘
지 않으며 마음이 고요해진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얼굴
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얼굴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두고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설령 오늘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엄마 배 속에서 열 달 동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p9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나이 먹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에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오늘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 배 속에서 열 달 동안 이루어진 것이라 하지 않는가 그러기에 정말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게 신념 같은 책임감으로 나에게 늘 존재한다.

책을 읽는 내내 법정 스님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아온 길을 사부작사부작 조심스레 따라

가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따라가며 사계절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매화나무 한 그루를 용달차에 싣고 고속도를 달리며 꽃잎이 흩날리는 것을 뒤돌아보며 흩날리는 꽃잎에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시는 모습을 따라 매화 꽃잎이 되어도 보고 화전민이 버리고 떠난 집에서 기거하시는 모습에 마당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스님의 걸음마다 시선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장마철 아궁이에 물을 퍼내시는 모습과 폭우가 내리는 날에 부아가 오르기도 끓어오르기도 한다는 표현에는 나이 드신 노인분의 화증을 보는 듯 쿡 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책을 읽는 내내 사계절을 조용히 여행하고 돌아온 느낌이다.

별 좋고 바람 좋은 날 나무 밑동에 기대고 앉아 다시 한번 조용히 여행을 하고 싶은 책

스스로 행복하라는 우울하고 지칠 때 나의 어깨를 살포시 두드려 주며 다 괜찮다.

위로를 건네준 그런 책이다.

『작은 땅의 야수들』 김주혜

이국 땅에서 영어로 쓴 우리네 삶과 사랑이야기

이길례(진달래)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이자 친환경 생활과 생태 문학을 다루는 잡지의 편집장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아홉 살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이기도 하다. 이민자의 눈으로 이국땅에서 영어로 쓰인 글을 역으로 번역한 번역 소설이기도 하다. 또한 어린 나이에 이국 생활을 한 소녀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일들과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에서 일어난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를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 가난하고 어딘가 몸이 불편한 이들, 특히 여린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살아나온 이야기를 역동감 있게 엮어 나간 소설이다.

호랑이 사냥을 시작으로 이 소설은 시작되며 마지막에 그 호랑이가 다시 등장하며 그 사냥꾼의 아들이 다시 또 다른 아들과 만나면서 이 소설은 끝을 맺게 된다.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 된 어린 소녀에게서 조국의 땅이 얼마나 작게 보였을까만, 이 작은 땅에서 일어난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해방, 6·25전쟁, 남북분단….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힘없는 부모를 가진 어린 소년과 소녀들, 그들이 평양에

서 제주까지 터전을 바꾸면서 온전히 온몸으로 힘겨운 우리 고난의 역사를 맞부딪히며 버텨온 원동력은 무엇일까?

읽어 가는 내내 가슴 먹먹함을 느끼며 몇 번 책을 덮고 심호흡하게 된다.

굵직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내리며 후손인 우리가 맞아 그렸었지?라며 되뇌는다. 또한 조상들의 아픔을 엿보고 나도 모르는 먹먹함과 가슴 아린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정당성을 느끼게 하는 소설이기도 했다. 때린 이나 그 손길을 맞는 이나 모두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라 결코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 고난의 생활들이지만 뜻뜻한 사랑들이 엿보이고 그 사랑의 고리들이 조금씩은 어긋나지만, 사람들을 버티게 하고 세계에서 보면 귀퉁이에 붙어있는 작은 새끼 호랑이기만 한 우리네지만 아래로 흐른 내리사랑과 온몸으로 운명을 개척한 작은 야수들이 있어 이 작은 숲을 지켜내고 이겨낸 것이리라 믿는다.

저자는 몇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버텨온 원동력을 되뇌는다.

삶은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며 누군가에게서 깊은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이는 삶은 견딜 만한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읽었던 펄 벅의 대지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웅장함과 긴 심호흡이 이 한 권의 책 속에 고르게 펼쳐져 있다.

지금 가끔 본인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여겨지거나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꼭 읽어보면 힘을 얻게 되는 소설로 무더운 여름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해 드린다.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이상주(타사리)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책으로 무자비한 폭력과 고통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낸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아직 서로 정식으로 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죽은 자의 슬픔은 살아있는 자의 기억과 이야기로 남아 전해지고, 기록으로, 이야기로, 기억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연결되어 잊히지 않는다. 억울한 희생자와 가해자, 그리고 고스란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또다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그 날의 사건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듯하다.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나.
가슴에 활활 일어나는 불이 없다면.
기어이 돌아가 꺼안을 네가 없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을까

거친 파도 앞에서 얼마나 긴시간 자신의 삶과 넋을 내려놓아야 했을까

이 소설에서 전개된 ‘새, 밤, 불꽃’... 각 단락의 제목은 소설의 핵심적인 상징과 주제를 담고 있다.

‘새’는 이 소설에서 때로는 자유롭게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구할 수 없는 희생자이며 이미 떨어져 죽은 존재를 상징하며 제주 4.3 사건 당시 학살당하고 잊혀진 이들이 아닐까 싶다.

‘밤’은 소설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고통이 심화되는 시간이 아닐까?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며 죽은 자와 산 자, 꿈과 현실이 뒤섞인 모호한 세계를 경험한다.

밤의 어둠 속에서 과거의 아픔이 드러나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기억과 진실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 계속된다.

‘불꽃’은 짧게 전개되고 있지만, 불꽃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고 비극의 과거와 모두 연결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그 비극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력과 저항, 그리고 기억을 통해 피어나는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건 아닌지..

이 책을 통해 작가는 단지 지난날의 문헌 과거를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자들과 끝나지 않은 관계를 이어가는 윤리적 태도를 묻고 있다.

그날의 아픔과 상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안고 숨죽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안아줘야 함을, 단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세상이 알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살에 관한 소설을 쓴 후에 악몽에 시달려야 했던 한강 작가.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비극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한강 작가의 깊은 메시지도 담겨있다. 인간의 잔혹함과 처절함, 그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표현의 한계를 경험한 책이다. 한강 작가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글을 읽어보고 싶다.

“폭력은 육체의 절멸을 기도하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 있게 할 수는 있다.”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속삭이듯 천천히 살고 싶습니다.

이성애(줄리아)

도서 동기와 배경지식

10년 전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를 감명 깊이 읽은 것이 생각이 나서 서평쓰기 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이라 포커스를 아이들에게 맞추어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건강이 좋지 않고, 랜디 포시의 심정이 이입되어, 랜디 포시 관점으로 돌아보고픈 마음에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책 요약과 작가 의도

랜디 포시가 종신 교수로 재직했던 카네기멜론대학은 공학, 컴퓨터 과학, 로봇공학, 경영학, 공정 정책학, 예술, 인문학을 특색 있게 접목한 교과 과정에서 만 명이 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 사립 종합대학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2007년 9월에 카네기멜론대학에서 ‘마지막 강의’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져 ‘랜디 포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췌장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 큰아들 6살 딜런, 세 살 로건, 십팔 개월 클로이, 아내 재이를

위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앞으로 함께 하지 못할 날들을 위해 수많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떠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아빠도 함께 할 거란 믿음을 〈마지막 강의〉를 통해 메시지로 남겨주었습니다.

인상 깊게 남은 부분은

불평하지 마라, 그저 노력해라. 성실함이 겉멋보다 낫다. 정중하게 사람들을 대해라. 서로 칭찬해라. 진실을 말해라. 말이 아닌 행동을 보아라. 등등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내 가슴에 제일 가슴에 콕! 박힌 것은 “그 애를 도와줘라! 사랑한다면 도와줘!”입니다. 이 말은 저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책 소감과 작가와 다른 내 의견

이 책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서툰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책 평가와 추천 이유

요즘처럼 정보화 시대에 AI와 큐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생은 무한할 것 같지만 종착지는 언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책은 정신 줄 놓지 않고 살기 위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따뜻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슬프고, 덧없이 느껴질 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희랍어시간」 한강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

장정희(케이트)

“ 우리가 가진 가장 약하고 연하고 쓸쓸한 것,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언젠가 물질의 세계에 반납할 때,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이끌고 온 모든 경험의 기억을 나는 결코 아름다웠다고만은 기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남루한 맥락에서 나는 플라톤을 이해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 역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완전한 것은 영원히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이 세상에는. ”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면, 내속에 있는 나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나의 유년 시절 나의 외로웠던 시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게 성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스치고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들 속에 나는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있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 열심히 살

고 있다. 모든 게 서툴기만 한 시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순간
순간 가슴 깊은 곳에 뜨거움이 올라올 때가 있다.

상처 속에 살아가는 두 주인공
빛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은 여자의 만남
그들은 각자의 상처가 된 시간속 에서도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고 있다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남자,
말을 잃었던 여자가 새로운 언어를 알게 되면서 갑자기 말을
되찾았던 여자.
아이를 잃고,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다시 말을 잃게 되면서 말
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언어 희랍어 수업을 듣는 여자,

어렸을 적 낙태되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들이 주는 공포심과 무관심,
상처를 견뎌내며 살아내야 하는 그녀의 시간

유전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남자,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듯... 나이 40정도가 되면 시
력을 잃게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의 시간
각자가 경험한 과거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각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한강작가의 글들의 섬세함을 대할 때면 나 또한 그 안에서 나
의 상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듯 숨소리마저 들릴듯하다.
내면 깊이까지 들어가 그 감정을 고집어 내면서 부딪히기도 하

고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올라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작은 새가 지하의 어둠 속으로 길을 잃고 들어갔다 지상으로 올라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부딪히고 다치듯이... 그 새는 무사히 통로를 찾아 밖으로 나갔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견디어내야 하는 현실

나의 위로의 시간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
나만 힘든건 아니구나...하는
나는 이책을 통해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스토너」 존 윌리엄

스토너

정선옥(씨니)

1910년 열아홉 살의 청년이 아버지의 권유로 농과대학에 진학하지만 문학에 눈이 트이면서 농사가 아닌 학자의 길에 들어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70년대 시골의 정서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두 번의 전쟁과 경제 공황사태를 겪었던 그 시대의 암울함이 주인공 스토너의 삶에도 그대로 묻어 있는 듯하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단조롭다 못해 무미건조해 보이던 그의 삶에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파티에서 첫눈에 반한 이디스에게 거침없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순식간에 결혼까지 해치워버리는 열정적인 남자. 결혼 후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이 실패였음을 깨닫고, 1년도 안 돼서 결혼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린 남자. 임신과 함께 환자가 되어버린 아내 이디스는 출산 후에도 여전히 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버려진 희망 속에서 결혼 3년 만에 얻은 딸 그레이스의 양육은 오로지 스토너의 몫이 되었다.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그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보이기도 한다. 같은 학교 강사인 캐서린 드리스콜을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전개를 기대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예정된 수순대로 흘러간다.

스토너의 아내 이디스는 친절아버지의 자살로 인해 이전의 모습을 완전 뒤집고 또 다른 이디스로 탄생한다. 그림을 그리고, 연극을 하며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딸 그레이스에게는 지나치게 간섭하며 병적인 집착을 한다. 그레이스는 집을 떠나려는 일념으로 임신과 결혼을 선택한다. 사랑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집을 떠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듯하다. 결혼 후 남편은 전쟁터에서 전사했고, 가끔씩 만나는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하게 되지만, 자신의 아들을 양육할 수 없을 만큼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지독하리만치 잔인한 인내심이 어찌면 스토너 자신과 딸 그레이스의 인생을 침식시킨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이디스와 이혼을 하고 캐서린과 딸 그레이스와 다른 삶을 선택했다면 세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영혼을 구제할 캐서린도 잡지 못했고, 그레이스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했던 그가 죽음이 문턱 서 있을 때에야 비로소 ‘넌 무엇을 기대했나?’라는 자문을 하고 있는 스토너. 참으로 의미 없는 질문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었고,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보여준다.

소설을 읽는 내내 주인공 스토너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떠나지 않는 그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로 전환되었다. 당사자 본인은 알아채지 못하는 결정 장애. 어찌면 보

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녹아있다. 오래된 소설이라 현재의 우리 감정 상태와 차이가 있지만 결혼을 앞 둔 사람이라면 특별히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혼. 상대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 행동을 유추해 보면 대략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의 콩깍지가 씌운 상태에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스토너의 인생이 당신의 이성의 끈을 잡아 줄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신의 미적거림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인공 스토너를 보며 자신의 삶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소리벗의 낭만낭독

강봉란, 권혜조, 김수영, 박경숙, 신선경, 이미영,
이현정, 조은경

책이 좋아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며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임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어 나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어린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낭독으로 어린왕자를 다시 만나다

강봉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익혀진 책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어린왕자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명대사가 사람들의 입에 오랫동안 회자되다 보니 마치 자신이 어린왕자를 다 읽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도 있다. 나 역시 정말 오래전 청년 시절에 어린왕자를 읽은 기억은 있지만 끝까지 정독을 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수차례, 수십번 이상을 읽고도 이해가 어렵다고 고백한 유명한 종교인도 있다고 할 정도니 어린왕자의 깊이와 진가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가 1935년 비행 도중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경험에서 얻은 영감에서 쓰여졌다고 하니 분명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담보로 한 경이로운 창작물이 아닐 수 없다. 어린왕자를 읽는 내내 작가의 섬세하고 깊은 정신세계에 감탄이 터져나왔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본질과 나약함을 저렇게 꿰뚫어 풀어낼 수 있었을까?

내가 읽은 어린왕자는 낭독을 위해 새롭게 편저된 낭독 에디션이다. 기존의 출판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본문의 내용은 그대

로지만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줄 바꿈을 함으로써 좀 더 쉽게 의미를 파악하고, 보다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배열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좀 더 편하게 어린왕자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던 것 같다.

어린왕자를 낭독 에디션으로 다시 읽게 된 것은 마침 올해 봄, 어린왕자로 낭독코칭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으로만 보는 기존의 독서방식과는 달리 1장부터 27장까지를 하루에 한두 장씩 소리 내어 읽으며 천천히 음미했고, 일일이 녹음을 해서 다시 들으며 모니터링을 했다. 길을 걸을 때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잠이 안올 때 자주 나의 목소리로 녹음된 어린왕자를 듣곤 한다. 낭독이 유일한 취미이기도 한 내겐 그냥 눈으로 책을 읽는 건 인내심의 한계를 주지만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즐거움과 집중력이 배가되고 녹음파일까지 들을 수 있으니 내 정서상태까지도 읽을 수 있고 언제든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누구나 그렇듯 내 목소리가 녹음된 걸 처음 들을땐 정말이지 민망함으로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차차 내 목소리에 익숙해지면 어느새 내가 나에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듯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좋은 책을 낭독하고 녹음을 즐겨하는 이유는 책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와 소중한 감정들을 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기 때문이다... 녹음파일 속의 어린왕자는 마치 내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다. 아주 오래전에 어설프게 읽었던 어린왕자가 마치 급하게 먹은 영양가 적은 패스트푸드였다면 삼십년 이 지난 60대에 낭독으로 다시 읽은 어린왕자는 영양 가득한 건강한 슬로우푸드인 것 같다. 나는 앞으로도 시간이 날 때 마다 소리내어 어린왕자를 읽으려고 한다. 내게는 어느하나 버릴 것 없는 인생의 잠언서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어른도 처음엔 다 어린아이였지만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는 작가의 말에 먹고사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

한 본질은 놓치고 살다가 사그러지고야 마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다. 어린왕자의 외로움과 고뇌가 마치 내 것인 양 마음이 아리다. 강한 척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송이 장미꽃이 바로 나 자신임을, 본질을 놓친 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분주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임이 보인다. 술먹는 부끄러움을 잊고자 다시 술을 마신다는 술꾼의 핑계는 얼마나 어이없고 가여운지 모른다. 그들이 내게 당신은 이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는 것 같다. 관계를 맺고, 길들여지는 것,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사랑을 위해서는 약속된 의식과 책임이 필요해요, 내가 쏟은 시간과 정성이 내가 사랑하는 이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라고 어린왕자가 내게 말하는 것 같다. 결국 사랑의 책임을 위해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어린왕자의 결단은 점점 타성과 오염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낭독으로 어린왕자를 다시 읽기 시작한 시점이 17년을 함께한 반려견 메롱이를 떠나보낸 지 두어 달 된 시점이었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던 것,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 이제는 다시 만져보지도 안아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다. 떠나는 날 내 품에 안겨 이별하기 싫다는 듯 온 힘을 다해 킁킁거리며 울부짖던 모습, 몸에 근육이 다 풀려 맥없이 안겨있던 그때의 촉감이 아직도 슬프게 선명하다. 때로는 메롱이가 마치 옆에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열어질 줄 알았지만 아쉬움과 그리움은 더 깊어만 간다. 어린왕자가 떠난 지 6년이 되었는데도 작가는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맞다. 애써 아닌 척 승화하려 하지 말고 슬픔은 슬픔으로 남겨놓는 게!

어린 자식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어떤 엄마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은 품에 묻는다고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가슴 속에 묻지 않고 부활시킨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인 적이 있었다. 뭔가 크게 위로가 되었고, 이별은 두렵고 아프지만 이별 후의 마음관리가 더 중요하구나 생각했다. 어린왕자에 대한 비행기 조종사도 이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큰아들에게 다시 읽은 어린왕자 이야기를 하며 “메롱이가 엄마의 어린왕자 같아” 라고 말하니 아들은 “그래요? 엄마생각은 나랑 다르네.... 나는 엄마가 메롱이의 어린왕자라고 생각했는데..”라고 말하던 것이 기억난다. 나도 메롱이도 서로에게 ‘어린왕자’ 였나보다. 메롱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우리 집에 온 이후 남편보다도 아이들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했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껌딱지처럼 붙어있었다.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줬다. 혼자 방치되는 때도 내게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메롱이가 할 수 있는건 그저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것이었다. 어린왕자의 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메롱이가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언제까지나 메롱이를 잊지 않고 행복하게 기억하는 것이리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어린왕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어린왕자를 늘 기억하기를~!

낭독으로 다시 깊이 만난 어린왕자, 2025년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이다.^^

「수치심 권하는 사회」 브레네 브라운

수치심에서 진짜 나로

권혜조

“난 지금 부족해서 조금 더 배워서 해야 해. 난 아직 이것을 하기에 충분치 않아.”

이런 생각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을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 순간은 겁을 주고 이후에는 후회하게 만드는 이 감정은 뭐지?’ 다시 말해 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이고 왜 이런 생각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 수치심과 취약성을 연구해 온 심리 전문가인 브레네 브라운의 통찰을 만났다.

한동안 온 세상이 “자존감” 열풍에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자존감을 높이려 애쓴 만큼의 성과가 있었을까? 어쩌면 내면 깊은 곳에는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의지가 그리 강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자존감이 라는 것은 과거 자신의 모습과 미래의 원하는 모습에 바탕을 두고 현재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수치심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감정의 문제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본능적이고 더 솔직한 몸의 반응이다. 이 때문에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 순간 “나를 들켰다”라는 느낌(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병의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효과가 없듯이,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수치심은 타고난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사랑, 인정 그리고 소속감을 원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욕구이다.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부터 우리는 부모에게 또는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춰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때로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습득해 왔다. 즉 지금의 자신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상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은 대부분 두려움과 좌절감을 동반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권위자에 이어 미디어와 문화로 확장된다. 미디어에서 이상적이고 모습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게 만든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것에 혜택을 얻는 기업, 단체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될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원체 도달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수치심 거미줄에 걸리고 만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결점만을 확대하여 바라보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이 자기 혼자라고 느끼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한없이 작아지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는 이 극복 방법을 ‘수치심 회복탄력성’이라 명명하였다. 우선 수치심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익혀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바로 공감, 용기와 연민이다. 이것을 정말 잘 대변하는 문장이자, 내게 깊은 울림을 준 문장이 있다.

“용기는 목소리를 주고, 연민은 귀를 준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용기는 (수치심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민은 (자신의 수치심과 비슷한 상대의 수치심을 듣는 것이 힘들어)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귀를 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에게 아직 안 일어났을 뿐일수도...

연민은 공감하고자 마음을 여는 의지와 같다. 연민을 품고 하는 공감은 내가 혼자가 아니며 내 곁에 나를 지지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의미 있는 신뢰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비난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해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감과 동정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정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하겠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공감은 유대감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반면 동정은 분리와 단절감을 불러온다.

이제 수치심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자신의 본모습을 찾기 위

한 수치심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저자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치심 촉발제 파악하기, 둘째 비판적 인식 실천하기, 셋째 손 내밀기, 넷째 수치심 말하기”다.

첫째 자신이 보이고 싶은 모습과 자신에게 수치심을 불러오는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히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의 의미와 왜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지, 이런 모습이 나쁘다는 생각은 어디서 비롯됐고, 이 생각과 신념이 자신의 삶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누구나 장단점을 모두 가진 복잡하고 취약한 존재이며, 이런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에너지가 생기고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수치심에 휩싸이면 우리는 자신의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확대해서 온통 자신만 잘못됐고 자신만이 문제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런 순간 사진기의 줌 렌즈처럼 줌 아웃을 하면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개별화시키는 것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정상이고 타인과 함께해야 수치심에서 회복하여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것을 살살이 파헤쳐서 ‘의문’을 의식의 수면으로 올려놓아야 우리는 비판적 인식을 통해 의문 제거를 시작할 수 있다.

셋째 혼자 감당할수록 고통은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심리적 분리는 손 내밀기를 방해하곤 한다. (자신의 수치심 촉발제를 타인을 통해 만났을 때) 그 고통을 피하거나 줄이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름’을 이유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분리하게 된다. 이때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특정 경험으로 내가 비난받고 수치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타인을 비판하고 수치심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분리에서 연결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자신의 수치심 촉발제를 찾아보고 그 수치심에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어떤 수치심에 따라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넷째 수치심은 침묵과 비밀 그리고 고립을 좋아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찾아내고 고통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은 수치심 거미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수치심은 완벽주의와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은 무시하고 도달하기 비현실적인 완벽한 모습을 기대한다. 아마 외모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 완벽이라는 허상을 쫓으면 뒤따라오는 것은 실패와 수치심이다. 그러므로 완벽함보다는 지금 자신에서 시작하는 현실적인 목표, 성장하는 목표,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수치심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 성장하는 마인드는 실수를 실패자로 보지 않고 성장에 필요한 한 요소라고 받아들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기반 다지기가 필요하다. 이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진짜 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고, 진심 어리고, 참되고, 마음에서 우러나고, 개방적이고, 진실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란 저자의 표현에 공감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와 있는 얼마나 편안

할까?

결국 수치심을 원하는 사회에서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쩌면 ‘진짜 나’로 존재하기 위한 또 다른 길이지 않을까?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만난다는 것은 그 감정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의미이다. 그 질문에 답해가며 우리는 자신이 품고 있었던 생각과 신념을 자각하게 되고, 그 이면에 우리의 욕구와 바람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수치심이란 감정을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 연금술사가 되기를 바라본다.

「내 마음을 누가 알까요?」 줄리크라우리스

김수영

마음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어 홀로 느끼는 외로움이 더 커져 버린다. 그러면 마음의 슬픔이 더 깊어진다.

책의 표지에서 보이는 주인공 표정은 우울하다. 검정 덩어리 뭉치를 신은 수레를 힘겹게 언덕 위로 끌고 가고 있다. 얼굴에 비해 팔과 다리는 매우 가늘고 약해 보여서 더욱 대조되며 위태로워 보인다. 이는 힘겹게 오르는 언덕길의 어려움을 부각시킨다.

날씨 또한 흐리고 뿌연다. 다행인 건 주변 풀잎이 노란빛으로 어두운 표지에 작은 희망을 느끼게 한다.

제목을 보면, ‘내 마음을 누가 알까요’ 라는 글자 중에 ‘누가’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다. 다른 글자에 비해 강조된 글자가 부담스럽다. ‘누가?’ 라는 말에 선뜻 누군가가 떠오르지도 않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 머릿속으로 빠르게 탐색해보지만 쉽지가 않다. 이 ‘누가’를 떠올리지 못하고 고민하게 한다는 것. 이

모든 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혼자서 어쩔 줄 몰라 고민하던 주인공은 처음에는 숨기고자 한다. 양탄자 아래로. 그러나 결국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숨기는 것에 실패한다.

나는 어두운 마음덩이를 내 마음속 어딘가에 숨겼을까?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서 아직도 내마음속 어딘가에 묻혀 있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숨겼을까? 지금도 나의 마음덩이들 중에 이처럼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까?

지금까지 내게 작거나 커다란 또는 가볍거나 무겁기도 한 많은 마음덩이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주인공처럼 나 또한 여전히 숨기기도 하고,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러다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덩이는 바로 ‘아이들’이다. 공공 숨기지는 못하고 칭칭 감아 매달아 놓는다. 그래서 더욱 쉽게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내 탓이 아닌 남을 탓하며 내 짐을 아이들에게 자주 매달아 놓는다. 참 못난 엄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공처럼 날려보낸다. 날려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무거워서 안 날아간단다. 슬프다. 나 또한 절망스럽다.

다시금 주인공을 따라서 조심조심 떠나보낸다. 물속에 가라앉은 덩어리는 심연의 바닷속처럼 더 깊게 깊게 들어간다. 물의 무게까지 더해져 점점 더 무거워진다. 침체되는 그 중압감에 숨이 막힐 거 같다.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마지막 ‘그래, 바로 이거였다’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무의식처럼 행동하는 ‘못 본 체 하는 것!’ 지금까지 나의 해결책은. 살아오면서 ‘망각’을 해결책처럼 사용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닌 ‘회피’라는 것을 말이다. 기억은 못해도 몸이 기억하고, 내 감각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기억해서 결국

은 너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 덩이덩이를 하나 하나 가만히 바라본다. 뭉쳐 놓았던 것을 조각 조각 잘라보고, 씨앗 크기의 조각은 마음에 다시 심어 보기도 한다.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조각들은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눠주기도 한다. 덩이 조각들이 뽀족하고 어두울거라 생각한 것은 나만의 착각이다.

주인공이 올라가는 계단처럼 나 또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간다. 그 끝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새롭고 더 넓은 세상이 나온다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의 끈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안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안다. 표지에 있던 우울하고,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는 표정이 마지막 장을 읽고 책을 덮는 순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가벼움이 될 수 있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조차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있는 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과 함께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몫도 내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조용히 내게 다가와 수많은 메시지들을 던진 이 책이 자신 안에 무거운 덩이들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메시지를 던져 줄것이라 믿는다.

「국가론」 플라톤,이환

수치심에서 진짜 나로

박경숙

국가론은 고대 그리스의 학자 플라톤이 쓴 가장 유명한 철학 대화편 중 하나이며,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폴레마르코스 등의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대화 형식을 띤다. 정의 실현을 위한 이상국가에는 세 계급이 존재하는데, 절제의 생산자, 용기의 수호자와 지혜의 통치자인 철인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국가의 통치자(철인)를 양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지혜를 갖춘 이상적인 통치자인 철인왕으로 하여금 정의와 국가번영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국가론의 주요 질문들과 내용을 살펴보면 1. 정의란 무엇인가? 강자의 이익이나 단순한 순종이 아닌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행하며 서로의 일을 존중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진정한 선이다.

2. 이상적인 국가란? 지혜로운 지도자인 통치자,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 농부, 상인 등의 생산자의 세 계급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 할 수 있다.

3. 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할까? 플라톤은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닌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와 통찰을 갖춘 철학자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4. 개인에게도 국가와 닮은 구조가 있다.

우리의 마음은 이성, 의지, 욕망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성이 의지와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막스베버에 따르면 현대정치학에서 국가란 「정해진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힘의 독점」을 주장하는 인간공동체로 정의한다. 즉, 경찰, 군대 같은 권위 있는 조직을 통해 폭력 행사를 정당하게 허용받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 독점권이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권력이 아닌 합법적으로 인정된 폭력을 독점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 국가의 구조와 정의로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만을 잘 수행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해 비상계엄 선포 발표에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며 플라톤의 국가론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대화체 구성으로 철학적인 주제에 대한 답변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구성이 좋았으며 철학적 관점에서의 ‘정의’와 ‘행복’을 좀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는 철학의 입문서로 추천하고 싶다.

「문제가 생겼어요!」 & 「금이 생겼어요!」

엄마와 딸

신선경

이런 얼룩과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현명한 충고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오시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中〉

엄마가 잠깐 나간 사이, 엄마의 아끼는 식탁보에 다리미를 올려놔 얼룩이 생겼다. 딸은 불안과 걱정을 다리미 자국에 그림을 그려가며 상상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그러나 엄마는 따뜻한 한마디로 안아준다.

모든 것에 금이 갔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딸은 마침내 돌아와

〈금이 생겼어요! 中〉

성장한 딸이 출근한 사이, 딸을 도와주려고 욕실에 들어갔다가 딸의 완벽한 새집 욕실 타일에 다리미가 떨어진다. 금이 생겨버렸다!

엄마는 그 금을 보며 딸에게 잘 못해준 일들과 그동안의

실수를 떠올린다. 너무 자책하는걸로 보이지만 엄마마음이 그렇다.

난 꼭 뭔가를 망치고 마는 사람이니까. 오늘처럼.

24년 초판된 <금이 생겼어요!>는 14년전 <문제가 생겼어요!>의 다음 이야기인 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과거 엄마의 현명함을 배운 딸은 또 현명하게 지나갑니다. 마치 그 불안함을 이해한 것처럼요.

73세가 된 우리엄마와 나는 어떤가?

중2가 된 우리딸과 나는 어떤가?

툴툴 대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

엄마와 딸의 관계는 그렇다.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의 세계가 있다.

할머니에서 엄마, 그리고 딸

단 한 번의 용감하고 다정한 결정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이릅니다.

옛날에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상상력입니다.

그때부터 식탁보는 우리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식탁보가 되었어요.

할머니, 엄마, 나의 추억이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욕실은 더욱더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아름다웠죠.

우리 둘처럼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는 모든 것처럼요.

「해피버쓰데이」 백희나

옷장에서 꺼낸 치유, 그리고 남은 의문

이미영

『구름빵』으로 처음 만난 백희나 작가는 내게 구름빵이라는 굉장한 상상을 가지고 독특한 그림을 가진 이야기를 만든 것에 큰 문화 충격을 주었다. 이후 여러 작품을 찾아 읽었지만, 때로는 『어제 저녁』처럼 쉽지 않은 작품 앞에서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하기도 했다. 이번 신작 『해피버쓰데이』 역시 나에게는 그런 난해함으로 다가왔고, 그 난해함이 오히려 책을 여러 번 다시 읽게 만들었다.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난해함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해피버쓰데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브리나의 옷장에서 꺼내 입는 옷들이었다. 매일 달라지는 옷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며, 제브리나는 무대의 주인공처럼 빛났다. 그림 속 제브리나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패셔니스타처럼 당당한 태도와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한 벌 한 벌이 너무 예쁘고 개성 넘쳐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고, ‘옷핏’이 너무 잘 어울려 나도 입어보고 싶다는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옷장이 제브리나에게는 치유의 공간이자 패션쇼 무대였고, 독

자인 나에게는 다음 장면을 설레며 기다리게 만드는 장치였다. 그러나 생일날, 옷장에는 고깔모자 하나만 남아 있었다. 화려한 옷 대신 단순한 모자, 실망한 제브리나. 생일파티도 취소하고 슬퍼하다가 유니콘이 되어 하늘을 날며 기쁨과 황홀을 맛본다. 그러나 그것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비에 젖으며 모두 사라져 버린다. 돌아와 확인한 옷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제브리나는 속상함도 없이 따뜻한 물에 개운하게 씻고 잠자리에 들고, 그 날 이후에는 스스로 옷장을 채우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그 장면에서 당혹스러움과 의문을 느꼈다.

왜 하필 생일에는 고깔모자뿐이었을까? 왜 제브리나는 비에 젖어 망가졌음에도 치유되어 힘이 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책은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의아함을 안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해피버쓰데이』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쉽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함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 화려한 옷에서 느낀 동경, 패션니스타처럼 반짝이는 제브리나의 모습, 그리고 고깔모자와 비 속에서 남겨진 의문은 지금도 내 안에 오래 머문다.

내 삶에서 옷장을 선물해 줄 이모는 없을까? 나는 타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는가?

나를 반짝이게 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반짝임이 있을까?

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나를 실망시켰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좌절 후에 일어설 수 있었던가? 개운함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해피버쓰데이』는 친절히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대신 묻는다. “당신은 무엇으로 치유되는가? 당신에게 빛나는 순간은 언제

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 질문 덕분에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아마 그림책의 힘은, 때로는 한 별의 옷처럼 내 마음을 치유하는 반짝임의 경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마르크 로제

삶의 성장을 이끄는 ‘낭독’

이현정

무엇하나 드러낼 것 없던 열여덟 살의 그레구아르, ‘출석은 했지만 결석한 거나 마찬가지인! 완벽한, 벽으로 드나드는 존재’라는 표현이 적절했던 주인공 그레구아르. 소위 아싸였던 소년 그레구아르는 책방 할아버지 피키에 씨를 만나며 삶의 방향이 바뀐다. 어쩔 바뀐다기보다는 그레구아르 속에 있던 진짜 그레구아르의 모습을 찾아갔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수레국화 요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은 드라마틱한 전개는 없지만 마음에 울림을 준다. 그 이유는 공간적 배경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예전에는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변화되었다. 요양원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요즘 나이든 분들의 임종 소식을 접할 때면 요양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면 요양원으로 향하는 게 수순이 되고, 가족들은 일정 기간의 병간호를 의무기간처럼 끝내면 결국 더 이상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없어 요양원행을 결정한다. 그렇게 요양원은 죽음의 공간이 되고 말았다. 장례식 대기공간이라고 해야할까?

그렇다 보니 요양원이란 단어에 실린 무게감은 묵직하다. 그곳에서의 생활 역시 무겁고 괴로울 것이다.

그렇게 무거운 주제로 흐를 수밖에 없는 요양원이란 공간에 살고 있는 피키에 씨. 그는 전략가이면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결가지 문학’ 서점을 운영하며 책을 사랑하며 살아왔다. 그런 그에게 모든 걸 팔아치우고 책 삼천 권만 가지고 요양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은 그의 방문 앞 단어 “*Pauca meae*”가 대변해준다. “내게 남아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글귀는 그레구아르가 자신을 성장으로 확장시켜나갈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된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레구아르에게 낭독이라는 열쇠를 쥐어주고 혼자 삶을 열어나가게 할 힘을 준 피키에 씨의 매력. 그건 책이 주는 매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로 인해 책이라는 걸 멀리했던 그레구아르는 피키에 씨를 만나면서 낭독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한다. 무거운 수레국화 요양원은 낭독 덕분에 가벼워지고 그레구아르는 성장을 한다. 그레구아르가 성장할수록 피키에 씨에게 허락된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레구아르의 성장이 피키에 씨를 또다시, 아니 영원히 살게 만들어 줄테니까.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피키에 씨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매력적인 결말을 맞볼 수 있다. 그게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책 첫머리에는 두 가지 구절이 적혀 있다.

“우리가 책을 만드는 이유는 오로지 무덤 너머의 사람들과 계속 이어져 있기 위해, -생략”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다 인재가 될 수 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두 개의 구절들은 각각 피키에 씨와 그레구아르를 대표하는 구절이다. 죽어서도 그레구아르의 마음

속 영원한 '책'으로 간직된 피키에 씨. 그리고 그레구아르의 어려움을 알고 책을 권하지 않고 옆에 두고 자연스럽게 책에 가까이 가게 만들었던 피키에 씨의 낭독 교육, 그것이 그레구아르를 낭독 인재로 만든다. 그렇게 그레구아르가 수레국화 요양원에서 어떻게 낭독가로서 거듭나고 요양원 사람들은 그런 그레구아르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한 피키에 씨의 기지를 통해 개설된 라디오 수레국화 미디어를 이용하는 장면과 크리스마스에 그레구아르를 괴롭히던 악당을 응징하는 방법 모두 낭독을 통해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요양원 식구 셀레스틴과의 이별 역시 낭독으로 담담하게 전해진다. 낭독은 그렇게 수레국화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많은 요양원 거주자들이 외롭지 않게 남은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 본다.

낭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낭독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속속들이 찾아 읽게 되는 이 책은,
소설이란 형식을 빌려 낭독의 기본기를 알려주고 낭독의 효과를 전달하는 책이다.

「북극 곰 어디로 가야 하나?」 황창현

지구를 살리는 삶을 살자!!!

조은경

지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별이 아니라
사람처럼 긴 세월을 걸쳐 태어나서 자라고 죽어가는 생명체다
특별히 지구는 우주 안에서 더 극적인 변화를 겪는 별이라고
한다

6천 5백만 년 전부터 시작된 신생대에는 공룡대신 포유류가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포유류 가운데 최고봉에 오른 인간이 신
생대 마지막 시기를 지배하고 있다

지구는 미행성 충돌 때 생긴 폭발 때문에 표면 온도가 섭씨 4
천도가 되는 부글부글 마그마 바다였다 미행성의 충돌이 멈추
자 태양빛이 지표면에 닿지 않아 땅이 차츰 식었다

대기층이 식자 수증기가 비로 변해 지구에 엄청나게 쏟아졌다
지구에 최초로 내린 비의 온도는 대략 섭씨 3백도 정도로 펄
펄 끓는 물이었다 생명을 잉태하듯 지구도 첫 비를 맞이하면서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을 확보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노래한 시인의 말처럼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환
경을 만들기 위해 지구는 46년을 준비했다

인간이 무심히 스치는 빗줄기에서 아무느낌없이 들이마시는 공기에서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구 성장과정에서 인간 출현은 공룡 출현한 2억 5천만년전보다 훨씬 뒤인 겨우 2백만년 전이다 지구나이를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인간이 지구에 태어나서 산 시간은 2초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등장하기 전 지구 생명체들은 나름대로 창조질서를 따라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간이 유독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있다

지구의 일부는 조화롭게 잘 살다가 250년 전 산업혁명을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아름답고 생명가득한 지구를 순식간에 파괴하기 시작했다

환경학자들은 지구촌 사람들을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하면서 개구리는 끓는 물에 집어 넣으면 뛰쳐 나가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피부가 서서히 적응해서 나중에는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게 된다고 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행동은 멈추고 환경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환경이야기에 별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매년 지구가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고 편안대로 살아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15년 안으로 5억 이상 되는 환경난민이 물을 찾아 대이동을 한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라하며 물을 찾아 이동하는 국가와 물을 지키려는 국가 간의 전쟁은 피할 길이 없다며 물이 부족한 국민들은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비단 북극곰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인간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닥쳤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은 단순한 환경 에세이가 아니라 지구의 탄생과 그 과정
그리고 현재 인간에 의해 지구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책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작은 습관을
만들어 행동으로 옮겨 실천합시다!!! 함께해요

讀(독)하리

김효식, 나혜정, 박경순, 송봉라, 주미정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토론을 통해 각자 삶의 본질을 사유하고자 만든 동아리입니다.
특별히 독서법을 연구하고 나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고 체계화하여
향후 독서동아리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독서리더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것을
목표로 열심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3주차 토요일 10-13시까지 모임을 가지고 있고
월 별 담당 발제자가 선정한 도서(2권)을 읽고
발제문 작성한것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는데
동아리회원들의 열의가 아주 뜨겁고
매번 성장하는 느낌을 통해 만족도가 높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매달 담당 발제자가 발제문과 책소개를
올리고, 독서모임후에는 이곳에 한줄평을 모두 올려
독서후 후속활동도 꾸준히 한답니다.
이제 3년의 흔적을 역사처럼 기록하고 있어
우리모임이 보다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독하게 독하고자 독한 사람들의 모임
독하리 소개였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 김호연 저

편의점, 낯선 만남이 남긴 따뜻한 흔적

김효식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 청파동의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의 삶을 스쳐 지나며 위로와 변화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억을 잃은 노숙자 독고가 야간 알바로 들어오면서 편의점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각자의 상처와 불편함이 드러나고 치유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고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취업 준비로 지친 시현은 독고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취업의 길을 찾는다.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오여사는 독고의 조언으로 다시 소통을 시작한다. 혼술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던 경만은 독고의 작은 배려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 욕심 많은 민식, 글쓰기를 포기했던 인경 역시 독고와의 만남을 통해 변화한다. 결국 독고 자신도 기억을 되찾고 가족을 찾아가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경만과 독고의 관계가 가장 인상 깊었다. 세일즈맨 경만은 늘 퇴근 후 편의점에서 혼술을 즐기며 외로움을 달래지만, 독고의 걱정 어린 충고에 서운함을 느껴 한동안 발길을 끊는다. 그러나 다시 찾은 편의점에서 독고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VIP처럼 대접받으며 큰 위로를 받는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깊이 남았다.

이 책을 읽으며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말했듯, “행복은 길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친절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독고가 오히려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곁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작가가 전하고 싶던 말도 이와 같지 않을까. 나 역시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곁의 이들에게 감사하며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며 살고 싶다. 읽는 내내 몰입했고, 따뜻한 울림이 오래 남는 책이다.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 한근태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나혜정

한근태 저의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는 독서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담고 있는 도서이다. 이 책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독서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독서를 함에 있어 단순하게 읽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생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목적에 위한 독서’ 즉 아웃풋을 지향하는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읽지 않은 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저자의 파격적인 주장이다. 저자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읽히지 않는 책에 대한 죄책감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히려 읽히지 않는 책, 원하지 않는 책은 과감히 덮어도 된다고 말하며, 읽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독자가 아닌 저자에게 있을 수 있다고도 언급한다. 사실 주변에서 의욕적으로 책을 읽어보리라 다짐하며 달려들던 사람들이 끝까지 책을 완독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잊어버린 앞 쪽지의 내용을 거듭살펴 보다가 매번 제자리를 반복, 급기야 독서를 멈춰버리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데 저자의 이 과감한 발상과 주장은 독서를 막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무조건 완독해야 독서한 것이란 암묵적 공식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책에서는 독서력이 높은 사람은 정보 분별력, 문해력, 기억력, 요약력, 상상력, 논평력의 능력이 함께 상승한다 말하고 있다. 교양은 독서력에 비례하고 독서력은 독서량에 비례하는 것이니 독서의 효용은 실제 책을 읽으며 점차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전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효용성이 크고 지식의 밀천이라 불리우는 독서는 일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 돈을 들여야 하고 시간을 강제로라도 할당하여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신발 한 켤레 살 돈으로 위대한 사람의 한 평생을 살 수 있다. 독서는 가성비 최고의 투자다” 대만의 독서가 탕누어의 말과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면 위안이 된다” 키케로의 말을 되새기며 이제 하나씩 실천하여 ‘독서의 임계점’을 넘어가야 할 개인의 다짐과 실천만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유용한 특징은, 저자가 세리시이오(삼성경제연구소에서 CEO를 대상으로 만든 지식앱)에서 책 소개를 위해 경영자가 읽었으면 하는 책을 읽고 압축해서 7-8분 동영상을 만든 20년간의 노하우가 녹여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장마다 독서 아웃풋을 위한 요약이 들어가 있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독서 아웃풋을 위한 요약을 통해 저자가 접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간접 경험할 뿐 아니라 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해놓아 왜 독서가 중요한지,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독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명확히 제시하는 듯 보인다. 책 전체를 다 읽고 나면 독자들에게는 10권 이상의 양서를 추천받고 읽은 느낌을 준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속의 소제목이 ‘공부하고 책 읽고 글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였다. 그 내용 중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이 함께 모여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독서법의 핵심 중 하나’임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데,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란 책은 독서 동아리를 즐겁게 참여하는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과 나에게 또 책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지적 성장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울림과 동시에 ‘독서만이 답이다’라는 확신에 확신을 더해주는 책이자 ‘독서법개론’ 과도 같이 독서시작을 위한 필독서로서 책임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유괴의 날」 정해연

어설픈 유괴범과 천재소녀의 유쾌한 일상의 미스터리

박경순

정해연 작가의 장편소설 『유괴의 날』은 2023년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이 소설은 유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발단으로 여러 인물의 복합적인 사연과 미스터리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유괴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과정으로만 전개되지 않고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집착이 친딸에게 인체실험까지 하는 보통의 사람은 상상하지 않는 구도가 신박하고 반전과 반전이 거듭하면서 긴박감을 더하는 과정 또한 몰입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정해연 작가만의 유괴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작가는 특유의 재치와 인물들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끝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강점이다. 어딘가 서툰고 빈틈 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독자에게 단순한 사건 해결 이상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이야기는 어설픈 유괴범과 천재 소녀가 우연히 얹히게 되면서 시작된다. 표면적으로는 유괴 사건이 중심을 이루지만, 그 이면에는 살인 사건을 포함한 복잡한 미스터리가 겹겹이 얹혀있

다. 유괴된 소녀는 자신이 유괴되었다고 생각한 아저씨와 함께 다니면서 오히려 그가 친부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의심하게 되며, 자신의 친부가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된다. 독자는 소녀가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반전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든 할아버지의 연구를 완성시키려고 했죠. 피가 다르니까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아줌마를 보나 우리 아버지를 보나 인간의 집착이란 참 무서워요.”

집착이 만들어 낸 최동억의 삶이 아들 최진태의 삶으로 이어지고 법의학 교수 유성훈은 과연 어떤 의도로 교수직을 그만두고 복사본 연구자료를 힘있게 쥐었을까? 집착의 무서움도 담아낸 점이 인상 깊다.

이 작품은 띠지에 ‘일상 미스터리’라고 표기되어 있듯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그 속은 예상보다 깊고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더욱 흥미를 유발한다.

『유괴의 날』은 예측 불가능한 전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입체적인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얹혀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독자를 사로잡는 작품이다. 진실을 쫓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의 다양한 면모를 통해 깊은 생각과 여운을 남기는 미스터리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태주

회상

송봉라

나태주 시인님의 시집,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책 읽는 동안 내내 마음이 따뜻
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시인님을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한 구절구절 읽는 동
안 시에 담긴 사랑의 말과 따뜻함이 그대로 와닿아 행복했습니
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기도 했고, 보고 싶
은 얼굴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생각나 한참을 회
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때의 추억과 감정들이 마음에 피어올라 가슴 한 칸이 아련해
지기도 했습니다.

이내 깨달은 것은 아쉬움과 슬픔보다는,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있게 한 소중한 조각들인 것을 알았습니
다.

시인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이 덕분에 지나간

인연과 추억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추억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도 됩니다.

완벽함과 성과 위주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들어 하며 고뇌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순간 잠시 멈춰 자신을 소중하
게 돌아보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깊은 감동과 울림
을 독자들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불안」 알랭 드 보통/정영목 옮김

마주해야 할 삶의 시간

주미정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삶의 조건의 개선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의 충족을 기대할 수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의 다섯 가지 원인의 첫째는 사랑의 결핍으로 무시를 당하면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한다. 혹시 주변인들이 관심으로 우리 자신을 견디고 사는 것은 아닐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둘째는 속물근성으로 어떤 사람을 속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려는 의도이며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히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며 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속물의 존경 대상도 바뀌며 명성과 업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며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만이 남에게 당신은 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기를 쓴다.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래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 형벌이다.

셋째는 기대이며 영국의 소비자 혁명은 19세기까지 이어지며 더 확장되고 백화점은 예전에 왕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자를 보통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수많은 과학기술 발명품이 일상생활을 바꾸었으며, 정신적 지평에도 변화가 왔고 인류는 매년 완벽한 상태를 향해 진보한다는 세계관이 자리를 잡았다. 그 발명품 중 콘플레이크, 깡통따개, 옷핀, 재봉틀, 타자기, 가공식품, 조명, 위생(하수 시설, 공중 화장실), 전화, 드라이클리닝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세탁액을 개선함. 우리는 조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그 대가는 우리가 현재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달라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끊임 없는 불안이다.

넷째는 능력주의로 실패에 관한 유용한 옛이야기 세 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 책임 아니며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쓸모가 크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낮은 지위에 도덕적 의미는 없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자는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여 부를 쌓았다. 불안을 일으키는 새로운 성공 이야기 세 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는 빈자가 아니라 부자가 쓸모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위에는 도덕적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제는 자신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와는 달리 기회를 박탈당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열등하기 때문에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지게 된다.

다섯째는 불확실성으로 경제의 특성 때문에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 결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동료나 경쟁자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다.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하녀다 사회적 위계 내에서 자신이 바라는 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번덕스러운 재능, 운, 고용주, 고용주의 이익, 세계 경제 등의 이유이다. 우리의 요구와 세상의 불확실한 조건 사이의 불균형은 지위에 대한 불안을 끈질기게 들쭉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불안의 해법으로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 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작품을 통하여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며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는 지위의 위계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 다수의 가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 다수의 가치를 비판하는 새로운 가치에 기초하여 새로운 위계를 세우려 했고 성공과 실패, 선과 악, 수치와 명예의 구분 자체는 유지하며 패자나 이름 없는 사람이라는 잔인한 규정과는 다른 규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당성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작가 김수현은 알랭 드 보통은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살아보니 세상은 동화 같지 않다. 갑질에 분개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차별은 일상

에 만연하고 속물의 조건적 관심에 의연한 척하며 무시하려 해도 마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쿠키다스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일 수밖에 없으며 물질 만능의 시대이기에 현실주의 일상적인 삶을 지표로 삼을 책(불안)이 분명하며 작가 알랭 드 보통의 통찰에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오며 읽는 독자로서 나 자신의 사고와 시야가 깊어지고 넓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동네책방

김혜영, 배은아, 이시연, 이지원, 이지혜,
임영주, 한보륜, 한혜경, 허정윤

〈동네책방〉은 성별/나이 제한이 없는 소규모 독서모임입니다.
2022년 1월 처음 생긴 이후로 매달 2회씩 책을 통해서 서로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email : lsy392@naver.com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이다지

나의 봄날은 언제 올까?

한혜경

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다. 이 책의 저자 이다지님은 학원 강사이다.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는 대학 입시 때 역사학과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모두들 반대했다고 한다. 여자가 역사학과를 나와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 주위 반대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역사학과에 지원했다. 저자의 적성에 맞는 학과였다. 그리고 후에 저자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떠나 학원 강사로 이직하려고 하자 또 주위에서 심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학교 선생님은 안정적인 직업인데 반해 학원 강사는 불안정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그때에도 저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본인의 신념에 따라 선택했고 결과는 그가 맞았다. 얼마 전 저자가 매수한 부동산 빌딩이 몇십억이 올라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한 그녀는 승승장구했다. 그녀가 가장 부러운 것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활비를 위

해 어쩔수 없이 억지로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 것과 자아실현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 그렇다면 사람도 각자의 전성기가 따로 있는 것일까?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나간 것인가? 어쨌든 나의 봄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꽃처럼 활짝 이쁘게 개화하는 나의 전성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자는 사회 영역에서 대한민국 일타강사이다. 그녀의 학생들을 짹짹이라고 부르며 엄청난 팬덤도 지니고 있다.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넘어서 SNS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강의 실력도 좋다. 학생들의 인정을 받으며 즐겁게 강의하고 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수익은 덤이자 달콤한 열매이다. 나는 학창시절 내내 선생님이 꿈이었다. 하지만 입시 때 순간 잘못 선택하여 사범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대학 진학 후 사범대로 복수전공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 후 대학 입시를 다시 봤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 다시 대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쳤다. 대학 졸업 후에는 다른 꿈이 생겨 한동안 선생님이라는 꿈은 잊었다. 하지만 요즘 스멀스멀 그 꿈이 조금씩 생각난다. 미련한 미련인건가. 아까 잠깐 영어공부를 했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공부 시간 겨우 한시간을 채웠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 같다. 나의 공부하는 때는 지난 건 아닐까? 솔직히 저자가 부럽다. 어쩔 그렇게 선택을 잘했고 어쩔 그렇게 현명하게 인생을 설계하는지 그의 판단력이 부럽다. 나는 잘못 선택했고 그 결과를 지금 툭툭히 치르고 있다. 맞다. 치르고 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치르고 있다. 현재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과거로 돌아가 선택을 바꿀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일까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일까? 앞으로는 현명한 선택만 하고 싶다. 미래의 내가 또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기특한 선택만 하고 싶다. 그것이 내 희망이다.

「불안을 이기는 철학」 브리지드 딜레이니

불안의 언어를 철학의 언어로 다독이다

허정윤

불안을 이기는 철학은 일상 속의 불안을 철학의 언어로 삶을 다독이는 책이다.

스토아 철학, 실존주의, 불교 사상 등 다양한 사유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왜 불안한지 그리고 그 불안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준다.

이책은 단순히 '불안을 없애라'가 아니라, 불안을 직면하고 이해할 때 삶이 더 단단해진다고 말한다.

철학은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 깃든 태도의 문제라는 걸 일깨워 준다.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느꼈다.

1. 어떤 일이든 본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2. 흔들릴 때는 즉시 내면으로 돌아가서 리듬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3.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이유는 사고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4. 나의 마음을 다스릴 힘은 나에게 있다.
5.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나의 생각을 더 넓게 열어 주었다.

삶은 늘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 불확실함이 바로 존재의 증거이다. 이 책은 철학이라는 단단한 언어로 내 마음을 조용히 열어주었다.

나도 이제 조금은 불안과 함께 숨 쉬는법을 알아가는 중이다. 20대에 만난 아우렐리우스님을 50대에 다시 만났다. 이젠 친구 같다.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운 기념비

이시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자유의 개념과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정의한 철학적 기념비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이루는 핵심 가치는 이 책에서 처음 공론화되었고, 이후 법·제도 체계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밀이 제시한 ‘해악 원칙’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자기 이익이나 도덕적 판단만으로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매우 명료한 기준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 집회의 자유 등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근거가 되었으며,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밀은 다수의 횡포를 강력히 경계했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성립하더라도 여론이 획일적인 강압이 될 위험이 있으며, 이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가 강조한 자유는 단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사회의 획일적 틀로부터의 해방까지 포괄한다.

밀의 논증 구조는 깔끔하고 일관적이어서 놀라웠다. 특히 그의 사상과 오늘날 법률 체계가 규정하는 자유권 사이에 높은 일치성이 발견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자유의 원칙이 이미 19세기에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대가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했다.

서평의 말미에 짧게 덧붙고 싶은 것은, 대선 시기가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이 책에 기반해 현실 정치에 대한 토론을 나눈 경험이다. 교칙 대신 현실 정치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전개됐고, 상대 진영의 시각을 이해하며 토론을 심화한 시간이 참 소중했다. 이는 밀이 강조한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이 단지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서도 얼마나 유효한지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자유론은 자유라는 단어 하나의 깊이를 설계한 설계도이다. 힌트, 이론 그리고 실천적 가이드라인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자유권의 이론적 기초를 완성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그의 논리가 지닌 핵심적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현실 정치 맥락에서 자유와 토론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체험하게 만든 이 책은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 사유의 경험적 장이 되어주었다.

동화읽는어른

모임

권향란, 김경희, 노진희, 배현미, 신정화, 염은정,
이미남, 이민정. 이선아, 이수진, 정성혜, 조귀님,
조영화, 조은희, 최명심, 편숙정

1993년 '동화읽는어른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부평지회'입니다. 매주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책읽어주기, 도서관 행사 참여 등 좋은 어린이 책을
알리고,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눈과 보이지 않는」 데이브 에거스 글 | 손 해리스 그림

권향란

도시와 바다 사이에 있는 공원에서 떠돌이 들개 요하네스의 시점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한정된 도시공원이지만, 요하네스는 자유롭게 달리며 우리에게 갇힌 들소들과 다른 동물들의 눈이 되어 살아간다. 반려견인 엄마가 공원에서 낳아 다른 형제들은 반려견이 되었지만 요하네스는 혼자인 자유를 선택했다.

요하네스는 인간들을 관찰하며 빠르게 달리는 능력으로 동물들과 더불어 생활하다 인간에게 잡히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빛의 속도로 빠르게 달린다는 자신감이 지나칠 정도로 나열되어 살짝 걸리기도 한다.

요하네스는 공원 벽에 전시된 작품, 사각형 미술작품이 강한 호기심으로 자신을 이끄는 걸 느낀다. 요하네스의 감정을 통해 예술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생각과 위안을 준다는 것도 보여준다.

사람에게 잡혀 자유의 절실함을 경험한 요하네스는 들소를 탈출시키는 모험을 강행한다. 지혜로운 염소 헬렌과 동물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들소가 아닌 요하네스와 갈매기 버트런드가 공원을 벗어난다. 공원에 남겠다는 들소의 말을 들으며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요하네스의 말과 행동은 어린이들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진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하네스가 개가 아닌 코요테로 들소에 의해 밝혀지고 죽음을 앞둔 갈매기의 장엄한 비행 관례에 의문을 제시하는 반전과 용기가 돋보인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고 공원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큰 어른 들소에게 자유를 주고픈 요하네스가 인간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인물이나 사건 배경이 명료하고 흥미롭다. 자기만의 가치와 진리를 찾아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주제를 생생하게 풀어냈다.

좀 아쉬운 점은 강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고 끊어지다 이어지는 느낌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문장이 이야기를 전하는 문학작품엔 덜 어울린다고나 할까.

「리디아의 정원」 데이비드 스몰 그림 · 사라 스튜어트 글

내 마음에도 리디아의 정원이 있는가?

배현미

내 마음에도 리디아처럼 풍성한 정원을 가꾸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접하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 리디아도 나와 마찬가지로 형편이 그리 넉넉한 친구가 아니다. 부모님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도시에 있는 짐 외삼촌네로 잠시 보내진다.

리디아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도 부모님의 여러 가지 형편상 친척집에 맡겨진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눈칫밥이라고 해야하나? 어린 나이에 그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에 휘둘려 어른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때를 써 본 적이 없던 것 같다. 그저 나를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작은 몸짓으로 내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 성인이 된 내 자신이 그 시절을 뒤돌아볼 때 어찌나 안타깝고 짝한지 콧등이 찡하다. 추운 겨울 집에 들어가기 싫어 고드름이 얼어 있는 처마 밑에서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서 있었던 기억도 있고, 어른들이 주는 눈치 때문인지 그 앞에서 울면 어린 아이의 자존심이 들킬까 봐 못내 울음을 삼킨 적도 많았으며, 나름의 그 힘들을 견디기 위해 내 얼굴에

손톱자국을 내어, 피를 보며 스트레스를 푼 기억이 있다.

어릴 적 겪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겪어서인지 난 점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집불통의 아이로 자라있었다. 스무 살 성인이 되어도 녹녹치 않은 생활은 이어졌다. 아픈 엄마를 대신해 취업해서 돈을 벌었고 가정엔 별 관심이 없던 아빠는 집을 나가셔서 지내고 형제들은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나고... 아직 다 크지도 못한 어린아이가 또 그 모진 시간들을 버텨 내고 있었다. 리디아는 그래도 엄마, 아빠, 할머니의 그늘에서 지낼 수도 있고 잠시 도시의 외삼촌 댁으로 보내지지만 거기서도 나름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 리디아도 혼자 도시로 보내졌을 때 말은 하지 않았어도 어린 것이 느꼈을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된다. 낯선 환경에서 그곳의 어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넘 따스하다. 편지 형식의 글이 참 특이하면서도 정감이 간다. 할머니의 사랑이 온전히 보이고 원예사 리디아의 내면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엿보인다. 무뚝뚝하지만 정이 넘치는 짐 외삼촌도 나의 마음을 몽클하게 한다. 리디아는 외삼촌을 웃게 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일도 배우며 옥상 정원에 예쁜 꽃들을 가꾸어 보여드리고 외삼촌은 리디아를 위해 꽃으로 장식한 케익과 부모님의 반가운 편지를 전하여 준다. 그리고 황량했던 옥상이,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삽화가 참으로 인상 깊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리디아의 내면의 강인함과 고운 마음이 느껴진다. 나처럼...

나도 내 마음 한켠에 풍성한 정원을 여전히 가꾸고 있는 중이다.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 오십 줄의 아줌마여서 매일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겠지만 그래도 내면이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억되고 싶다.

여전히 나는 나만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 여전히 진행중이다.

“저, 어떨까요? 모두에게 사랑을 담은 리디아 그레이스처럼,
저 괜찮은 사람 맞죠?”

오늘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글.그림

놓치고 있던 진심

염은정

어린 시절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는 날들이 종종 있었다. 유독 학교 가기 싫은 날은 비가 많이 와서 학교가 떠내려 간다거나 눈이 펄펄 와서 학교가 눈에 파묻히는 상상을 하며 그렇게 되길 바라곤 했다. 어떨 때는 학교 가는 길에 선생님이 아프셔서 수업을 못 하는 별의별 생각도 했었다. 그래서일까 지각대장 존이 무척 내 이야기 같고 지각대장이라는 단어에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내가 뜨끔한다.

이런 아이들의 일상에서의 상상력이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듯 하다. 우리 아들도 존이 학교 가는 길에 상상을 펼치며 겪는 신기한 일들이 즐거운지 읽고 또 읽고 몇 번이고 책을 펼쳐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난다. 고난의 등갓길에 나타나는 동물들에 눈을 떼지 못하고 연신 웃다가도 지각하여 벌을 받는 존을 볼 때는 자기 일인마냥 너무 안쓰러워 하면서, 벌을 주는 선생님이 나빴다며 미워하며 화를 내기도 했다. 같은 아이들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되나보다. 어찌 감정이입이 안 될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도 초등 저학년때 이유 있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머리가 어지럽다는 등 다리가 아프다는 등 하면서 학교를 안 가려 하는 게 부지기수였는데 지각도 여러 번 했었다.

존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벌을 주면서 다음에는 회초리를 들겠다고 엄포를 하는 선생님의 모습엔 위협적이면서도 가혹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언뜻 나를 보는 듯 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며 학교 안 가려고 할 때 나는 피병이라며 책 속 선생님처럼 믿어주질 않았다. 그러면서 엄하게 대하여 학교를 보냈는데 그 당시엔 자꾸 들어주면 학교를 쉽게 안 가려고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 돌이켜 존을 보며 생각해 보니 아이들에게 내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 아이들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잘 받아주고 더 귀 기울였으리라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듬뿍 줘야겠다.

선생님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 그동안 벌을 받았던 존이 선생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말은 통쾌한 한방이었다. 어쩌면 존의 등긋길을 힘들게 했던 악어, 사자, 파도는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존을 괴롭히는 친구, 가족 또는 다른 환경일 수도... 우리가 아이의 언어를 듣지 못 하고 아이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말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듣기 위해 오늘 하루 잠시 멈춰 보는 것도 좋겠다.

「몬스터 차일드」, 이재문, 사계절, 2021

비공감이 괴물을 만든다

이선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변이 종양 증후군', 약자로는 MCS. 험칭으로 '몬스터 차일드', '괴물 아이 증후군'이라고 불린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동물을 잡아서 생으로 먹고 주변 농가의 동물들을 해치는 피해를 주기도 한다.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질병이고 전염성은 없다.

MCS는 차별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다. 이 증후군에 대해 부풀려진 사실들이 많고 언론과 이웃의 시선은 왜곡되어 있다.

이야기의 제재인 '괴물 아이 증후군'에 대해 위와 같이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생각의 조각들이 정리된다.

MCS는 이해받고 보호받아야 할 질병이지만 세상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늬와 선우에게 가해지는 혐오의 표현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뚤어진 감정을 죄책감 없이 서슴없이 표출하는 그 자체가 괴물 같은 행동인 걸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을까?'.
.

그리고 선우와 하늬가 변이를 한 채로 나무를 자유롭게 오가는 장면을 보며 궁금해졌다. ‘왜 작가는 파격적인 모습의 돌연변이 증후군을 설정했을까? 문명사회에 사는 지금의 우리에게 비문명적인 모습을 끌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문명사회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깊숙이 가두어 버린 본래의 모습, 본능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 나이부터 억압되는 세태를 반영하고 싶었을까?’.

또, 이웃에게 재산 손해를 끼치는 승아가 저지른 행동은 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낸 그림자이자 부메랑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비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책에서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의미 있는 설정이라고 여겨졌다.

정리해보자면, 작가의 문제 제기와 주제 의식 그리고 선우와 하늬의 건강한 자의식은 충분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하늬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선우의 서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다니. 하늬의 입을 빌려 서라도 선우, 승아, 박사님의 뒷이야기를 풀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늬와 함께 서사를 이끌어가던 매력적인 캐릭터 선우가 갑자기 증발해버린 느낌이었다.

편견은 혐오를 부르고 혐오는 이기심과 폭력을 불러온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습득한다면 누구나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물론,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 다름의 차이를 좁히는 작업은 어렵다. 아주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는 '공감력'이라는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력을 키우기 위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모둠원들의 의견이 궁금해진다.

「씨드1」 최영희

인간의 상상력, 문제 해결의 열쇠

이수진

며칠 전 뉴스에 중국에서 로봇 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직은 어설퍼 보이지만, 뛰고 싸우는 로봇의 모습에 기술의 발전이 대단하다 싶었다. 한편으로 저런 대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다 보면 인간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이 곧 만들어지겠구나 싶어 무섭기도 했다.

어린 시절 꿈같은 이야기였던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은 어느새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계산이나 자료 검색 같은 부분은 오히려 인간보다 더 빠른 수준에 이르렀다. 빠르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뺏길 거라는 두려움도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은 실제로 오랫동안 SF소설에 담겨왔다. 최영희 작가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간, 기계인간, 그다음은 뭘까? 인간이 인공지능을 발명했듯, 언젠가는 인공지능도 다른 지성체를 창조해 내지 않을까? 호모 사피엔스와 인공지능의 뒤를 이

을 세 번째 지성체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지구에 세 번째 지성체가 등장할 즈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써드1』을 썼다고 말한다.

로봇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설가이자 과학자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1950년에 발간한 장편소설인 ‘I Robot’에서 로봇 행동에 관한 3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첫 번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단, 제1법칙에 거스를 경우는 예외다. 세 번째,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단, 제1법칙과 제2법칙에 거스를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낸 로봇과 인공지능은 이미 첫 번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미 사람을 죽이는 데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멀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써드1』이다. 미래의 어느 시기, 인간은 도시의 로봇, 기계인간에게 쫓겨나 전기도 없는 자연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주인공인 열세 살 요릿은 하나뿐인 가족인 언니를 잃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농장에서 돼지치기로 살아간다. 어느 날 언니의 장례식에서 슬프게 울어주던 압둘라 아저씨가 괴물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도시의 조사관인 기계인간 리처드가 농장을 찾아온다.

리처드를 숲으로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요릿은 숲에서 위험에 처하고, 그 순간 처음보는 괴물을 맞닥뜨린다. 잡아 먹힐까봐 두려움에 떨던 요릿과 리처드를 괴물이 오히려 위험에서 구해주면서, 요릿은 괴물을 살리고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요릿은 괴물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

지를 알게 되고, ‘가위바위보도 저서는 안 된다’던 로봇 조사관 리처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책을 읽은 적이 있는 초우싱치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다.

작가는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하는 ‘이야기 공동체’이며, 책과 이야기는 사라진 세계를 복원할 설계도이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다. 따라서 책을 지키고 이야기를 지켜낸다면, 인간은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써드1』을 썼다고 말한다. 책을 덮으며 나는 작가의 믿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글을 읽으며 작가의 믿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써드1』을 읽어보길 권한다.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독서는 늙음이라는 독에 대항하는 해독제다

조영화

*그는 글을 읽을 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는 늙음이라는 가공할 만한 독에 대한
해독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글씨를 읽을 줄 알았다.
(p.71)*

연애소설만은 읽는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그는 단지 읽을
줄만 알 뿐 쓰지는 못하는 노인이다. 자연의 처녀성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아마존 밀림 속 그의 오두막에서 읽고 또 읽었
던 연애소설을 되풀이해서 읽는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연애소설만을! 그것
이 그의 유일한 낙이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열다섯 살에 돌로레스 엔카르나시
온 델 산티시모 사크라멘도 에스투피냐 오타말로로와 결혼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처를 혼자 축제에 내보내
라는 모욕적인 제안을 받자 정부에서 이주의 대가로 넓은 땅과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향을 등지고 엘 이딜리오에 이주한다. 하지만 일찍이 본 적이 없는 폭우와 폭풍우·굶주림·열병·밀림의 동물들에 치여 영영 가망 없나 보다 생각하고 있을 때 구원의 사자처럼 수아르 족이 찾아와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말라리아로 아내를 잃으면서 자신의 사랑과 꿈을 앗아간 아마존 강 유역을 증오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느끼고 자신이 숲을 증오할 수 있을 만큼 숲을 혐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마존의 원주민인 수아르 족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통해 밀림에서의 생존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아마존으로 밀려드는 이주민, 노다지꾼, 사냥꾼, 석유 기지를 찾아오는 양키들로 인해 숲은 닳치는 대로 숲을 유린되는 혼돈의 어느 날 원주민 수아르 인들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양키를 실어오고, 인디오들이 살인 혐의를 받는다. 늙은 볼리바르는 암살쟁이의 발톱 자국과 아주 작은 살쟁이 가족을 죽은 양키의 몸과 소지품에서 찾아내면서 양키가 살쟁이의 새끼를 죽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백인들에게 가족을 빼앗긴 암살쟁이의 피해자가 늘자, 음장은 볼리바르를 암살쟁이 수색대로 뽑아 밀림으로 사냥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는 절정에 치달는다.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는 소설가. 작가. 시인. 환경 운동가로 그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칠레 군부 피노체트 정권에 장악되자 오직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망명하였고, 40살이 된 1989년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을 발표했다. 157쪽의 길지 않은 소설이지만, 사랑을 통해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지해주는지를 표현하며 진정한 사랑과 연민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책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지음

나도 책을 먹는다면

조은희

책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여우 아저씨는 다 읽은 책에 소금 한 줌 툭툭 후추 조금 툭툭 뿌려 꿀꺽 먹어 치운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도서로 우화적인 내용이 신선하고 재미있다. 책을 아끼는 나에겐 충격적인 모습이다. 급게 책을 보느라 밑줄도 잘 안 긋고 메모도 노트에 한다. 앞표지를 펼쳐 접지도 못하고 다 읽은 뒤에도 새 책처럼 깨끗함을 유지한다. 조심스레 그렇게 아껴도 세월이 지나면 책장에서 색이 바래지고 먼지도 쌓이는데 왜 그리 책을 떠받드는 걸까?

어릴적 풍족하지 않던 당시에도 책을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던 부모님과 사회통념이 내 뇌리에 깊이 박혀서일지도 모른다. 차라리 여우처럼 책을 다 읽고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생생한 느낌으로 먹어 치우는 것도 기발한 방법인 듯도 하다. 엄청난 식욕으로 귀한 책들을 맛있게 먹는 여우를 보며 아이들은 통쾌하고 즐거운 상상을 할 것도 같다. 매일 공부하고 책보라고 잔소리하는 부모의 억압에 때론 이 세상 모든 책이 없어지길 바라는 아이들도 있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특이하게도 책으로 지식과 허기를 채운다.

학창 시절, 영어 사전의 단어를 외우고 한 장씩 뜯어 먹는다
는 전설적인 괴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뜯겨져 나간 페이지
지의 공백으로 이미 사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닌가 괜스레
알지도 못하는 남의 걱정을 하던 때가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위인전기와 세계문학 전집을 다 읽으면 또
새로이 책장에 채워주시던 엄마의 책 신봉이 언니와 나를 문학
의 세계로 이끌었지만, 가정경제를 걱정하신 아버지는 과소비
라며 잔소리를 퍼부으셨다. 집에서 학교도 멀었던 당시 주변엔
도서관이라는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었기에 엄마
는 어려운 형편에도 전집을 덜컥 들여놓곤 흐뭇해하셨다. 그나
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빗물에 젖어 고민하다가 정중히 사과
했다는 링컨대통령보다는 나은 형편이었다. 엄마는 당신의 못
배운 설움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어려운 형편에도
책 구입에 비중을 많이 두셨다. 그 마음을 몰랐더라도 책은 나
를 아주 먼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갔다. 무인도에서 해적과 결
투를 벌이기도 하고, 걸리버와 함께 소인국, 대인국을 여행하
고, 80일간 세계일주 하느라 진땀뻘었다. 제인에어와 폭풍의 언
덕을 읽으며 영국의 황막한 언덕에서 피어난 진실한 사랑을 상
상하던 그때 그 마음이 여우 아저씨의 독서 후 책이 아주 먹
음직스럽게 보이는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먹을 책이 없어서 도서관의 책까지 겁 없이 먹어 치우던 여
우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서점에서 강도짓까지 서슴지 않는
다. 도대체 결말이 어떻게 되려는 걸까 조마조마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간 여우는 역시 영리했다. 3000권의 책을
읽으면 저술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여우도 먹어
치운 책들이 워낙 많은지라 읽었던 그 내용들이 자양분이 되어

글을 써내려 가는데 막힘이 없다. 오히려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교도관이 책을 내자고 제안한다. 역시 좋은 문장을 알아보는 편집자가 있어야 일이 되는구나. 그런데 한편 걱정이 되는 것은 요즘은 여우 아저씨같은 작가를 대신하는 챗GPT가 수많은 정보수집을 통해 창작에 기여하고 그 결과물의 수준이 놀랄 정도로 높다는 사실에 불안하기도 하다. 사람이 설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여우 아저씨처럼 재미있는 책을 쓰는 재주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나도 내 책에 후추와 소금을 뿌려 먹어봐야지!

「길러지지 않는다」 탁동철

최명심

아기 고양이를 키우기 위한 4학년 친구들의 재미난 이야기다. 현덕의 〈고양이〉 그림책이 저절로 생각난다. 삽화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삽화의 이미지가 이중섭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겹쳐 보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삽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단숨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강원도 사투리의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삽화가 이 글에서 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어른들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자라고 있는 4학년 아이들의 이야기다. 온전히 이야기의 주체가 아이들이라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다.

거의 쓰러져 가는 창고에서 발견한 새끼 고양이를 보살피기 위한 과정, 어른들의 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강압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가는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보기 좋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모두 아픔을 지닌, 그래서 인지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결국 학교에서 잔소리 대마왕격이던 교장선생님 마저, 밖에서 보고 반가워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웃음을 짓게 만들기도 한다.

어린 생명인 고양이 달님을 키우면서, 생명에 대한 것을 배우고, 약하고 어린 것에 대한 마음, 엄마 잃은 고양이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입시켜 더욱 잘 보살펴주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져 읽는 내내 마음이 흐뭇해진다.

아이들 스스로 학급에서 고양이를 키우려고 하는 과정, 선생님과 의견 조율하는 과정, 고양이 집을 스스로 지어 주는 과정, 고양이 먹이를 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까지도 조금은 과장된 것도 같지만, 시골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이 잘 나타난 것 같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물심양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 온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잘 써진 것 같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잘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들이야말로 고양이 달님처럼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력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잘 풀어가고 있는
듯 하다.

멘도롱또뜻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오은영

말하는 것의 중요성

김민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는 책 제목에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겠다는 방식 혹은 사례를 소개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다.

화내면서 말하지 않는 법. 간결하게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법. 영어회화를 연습하듯, 한국어도 회화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

감정을 수궁하면서, 분명하게 대화를 제시해야한다는 것은 어렵듯하게 알았었지만,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조건 받아주거나, 무조건적인 예뻐예뻐~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표현방식 또한 당연히 아이한테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성인과 성인의 대화

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적인 조언과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주어서, 간접 경험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참 좋았다.

또한, 책은 말하기의 중요성도 강조하지만, 듣기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감정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교육 방식은 내가 앞으로 살면서 머릿속에 잘 염두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 있지. 그 부분은 잘했어.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말하기는 ‘나’자신의 말하기 및 언격의 향상 뿐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방식이자 말하기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원칙과 이를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방식.

이는 어찌면, 나에게도, 내가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기위한 방식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읽어도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

김수환

소설의 배경인 강원도 시골 마을 북현리. 작은 독립서점 ‘굿나잇책방’을 운영하는 주인공 ‘임은섭’은 온화하고 진중한 성품이지만, 남몰래 고독과 성장통을 안고 살아온 인물. 어느 겨울, 서울 생활을 접고 어린 시절 자랐던 북현리로 돌아온 이웃집 동창 ‘목해원’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설렘을 선사한다.

굿나잇책방에 모이는 다양한 인물들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 그들이 읽는 책과 함께하는 겨울 풍경, 크고 작은 사건 속에 서로를 위로하며 변화시키는데, 오랫동안 베일 속에 숨겨졌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겨울 평화롭고 다정했던 눈송이는 거칠게 몰아치는 눈보라로 변한다.

눈동자 뒤에 그녀가 살기 시작했다. 눈을 감아도 소용이 없다. 계속 보이니까.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던.
겨울에서 봄까지.

사랑할 사람을 찾는 여정이라는 표현과, 어쨌든 인생은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곁에 남겨가는 거지 싶어서 라는 대목이 기억에 남는다.

사랑이란 단어가 품은 뜻을 감히 헤아릴 수 없어서, 그 단어 자체에 압도될 때가 있다.

이 소설책은 어디든 내가 머무는 곳이 내 자리라는 것.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스스로가 하나의 공간과 위치가 된다는 것. 내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제자리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구절을 통해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겉표지가 참 싱그러운 책이었고, 책 제목도 싱그러웠는데, 책 내용 또한 참 싱그럽다.

「아침 그리고 저녁」 윤 포세, 박경희 번역

삶은 짧다

유소영

시적이고 음악적인 문체로 삶과 생존에 대한 투쟁.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을 잘 그려낸 소설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바지런한 산파의 움직임, 산모의 고통어린 숨, 이제 곧 아버지가 되려는 남자의 기대와 걱정. 소설은 노르웨이 해안마을 어딘가, 한 살림집에서의 출산 장면으로 시작된다. 일이 잘못되어 아내나 아이나 아내와 아이 모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찬 남자의 내적 독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상념은 분명 그들을 도와 온갖 나쁜 일로부터 구원해줄 신에게로 향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신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는 믿지 않는 남자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요한네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미쳐 단어가 되지 못한 외마디 모음과 뒤섞인 아내의 비명이 길게 이어진 후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초조한 시간은 끝난다. 그렇게, 요한네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다.

장이 바뀌고 그사이 긴 시간이 흘러, 요한네스는 노인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너무 외진 곳이었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이곳에 터전을 잡았고 고깃배를 타고 나가 생계를 꾸렸다.

아내도 친구도 곁을 떠난 지금, 적막하고 고독하기만 한 요한네스의 삶에서 근처에 사는 막내딸만이 의지처가 되어준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그의 하루가 막 시작된 참이다. 썰렁한 집안에서 혼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빵을 먹는다. 별다른 기대가 없는 일상,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고 원래 그대로인데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듯하다.

늙은 몸도 무게가 거의 없는 듯이 가볍하다. 눈에 들어오는 사물들, 풍경이 어쩐지 너무 달라 보인다. 요한네스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

작품의 형식 또한 이를 구현해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마침표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쉼표로 잠시 침묵한 뒤 다음 문장으로 미끄러지듯 넘어간다.

“죽음과 삶의 과정이 결국 하나의 끝나지 않는 문장 속으로 들어”와 있다(정여울).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듯이, 삶과 죽음의 세계는 마치 문장의 사슬처럼 서로 이어지고, 겹치고, 스며든다.

삶과 죽음에 대해, 간접적이고 몽환적인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책이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지나영

때로는 흐르는 대로 살아가자

이수민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었을 때 깨달았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단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책 소개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나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실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빠르게 달려가지 않으면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이 모조리 낭비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내게 맡겨진 일은 빈틈없이 해내려고 노력했다. 2017년 5월 12일, 지나영이라는 고속열차가 큰 바위를 들이받은 듯 완전히 서버리기 전까지는.”

위 초반의 내용은, 현재 대한민국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경쟁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부분이었다.

작가는 아버지가 외면했던 탄생의 순간부터 어린 시절 내내 겪어야 했던 가난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크게 세상을 느끼고 더 담대히 도전

해왔다. 그렇게 그녀는 미국에서 ‘잘나가는’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가 되었다.

그러나 ‘기립성빈맥증후군’과 ‘신경매개저혈압’. 의사들조차 생소해하는 이 병은 그녀의 삶을 180도 변화시켰다. 자율신경계 장애 중 하나인 이 병으로 인해 그녀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병적인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고, 15분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머리는 움직여야 한다고, 일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마지 않던 의사로서의 일과 교수로서의 삶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다.

그녀가 책에서 전하고싶은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다. “Follow your heart(자신의 진심을 따르라)!” 매 순간 맞닥뜨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늘 자신의 마음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걸어왔고, 그 선택은 실패했을지언정 한 번도 그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고 자아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세상과 작별하는 날, 당신은 지금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병마와 싸우며, 또 그 병과 함께 살아가며 그녀가 깨달은 삶의 작은 교훈들은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드는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때로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라는 용기가 될 것이며, 험난한 자신만의 삶의 여정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만을 철저히 계산해 걸어간다고 해도 내가 계획했던 목적지에 다다르리라는 보장도 없다. 인생의 어떤

문제에든 꼭 들어맞는 길이나 정답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그녀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잘 다가왔다.

「동경」, 김화진

세상은 참 놀라워

이지영

“세상에는 나에게만 놀랍고 소중한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흔들리며 빛나는 청춘의 계절들. 각기 다른 세 사람이 서로를
향하며 그리는 마음의 삼각형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문장을 통해 섬세하고 잘 표현한
이 책은 자신만의 문장으로 한땀한땀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과 꿈,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가족이라는 삶의 주요한
화두들 앞에서 흔들리는 세 여성이 등장한다. 이제는 마냥
어리다고만 할 수도, 그렇다고 어엿한 어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서른 언저리의 나이, 자주 혼란스럽고 때로 아프기도 한
삶의 분기점에서 만난 그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 각기
다른 성격을 지녔지만 서로에게 이끌리게 된다.

서로에 대한 ‘동경’이 만들어내는 인력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지길 반복하는 세 사람은 좀처럼 정리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관계의 삼각함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늘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훗날 반드시 그리워하게 될
성장통의 계절들. 책에서는 이 세 인물이 만들어가는
복잡하면서도 다채로운 색채를 띤 마음의 삼각형을 반짝이는
청춘의 시간들로 잘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삼각형을 원하는 건 나만의 꿈일까. 언제나 삼각형을
상상하며 살아온 것 같았다. 둘은 너무 적고 넷은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둘이 의미하는 것은 애인이었고 넷이
의미하는 것은 가족이었다. 셋은 친구였다. 나는 둘이나
넷보다 언제나 셋만을 바라왔다.

동경이라는 단어, 그리고 현재라는 단어, 우리 옆에 늘 같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되었다.

민들레 책향기

김미나, 서민숙, 이금숙, 이은성, 채경희, 한순영

민들레 책향기 회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며,
책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흙씨처럼 작은 씨앗이 훗날려
어디선가 꽃을 피우듯,
또 다른 인연과 따뜻한 만남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에센셜 - 희랍어 시간」 한강

말을 잃은 그녀와 눈을 잃어가는 그

김미나

노벨문학상을 한국인이 받았다고? 그것도 여성 작가가?
언론에서 거의 매일 나오는 것을 보고, 한강 작가를 알게 되었다.

처음 ‘한강’이라고 들었을 때 서울을 흐르는 강? 그 한강?
아니 작가라고 했으니 사람이네!

그리고 소년이 온다, 회복하는 인간, 희랍어 시간을 읽은 후
선정한 “디 에센셜”

희랍어 시간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어려웠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
지?

두 번째는 소설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었다.

말할 수 있었을 때, 이따금 그녀는 말하는 대신 물끄러미 상대
를 바라보았다. 말하려는 내용을 시선으로 완전하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처럼, 말 대신 눈으로 인사하고, 말
대신 눈으로 감사를 표하고, 말 대신 눈으로 미안해했다. 시선
만큼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접촉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느꼈다. 접촉하지 않으면서 접촉할 수 있는 거의 유일

한 방법이었다.

그에 비하면 언어는 수십 배 육체적인 접촉이었다. 폐와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움직여, 공기를 흔들어 상대에게 날아간다. 혀가 마르고 침이 튀고 입술이 갈라진다. 그 육체적인 과정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녀는 오히려 말이 많아졌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커졌다.

말을 잃기 직전, 그녀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다변가였다. 어느 때보다 오래 글을 쓰지 못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이 쓴 문장이 침묵 속에서 일으키는 소란 역시 견디기 어려웠다.

날말들 중 시선, 눈, 폐, 목구멍, 혀, 입술, 공기, 다변가 등이 인상적이다.

이런 날말들은 언어, 특히 말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들이다.

어쩌면 그녀는 입으로 내뱉는 언어를 스스로 달고 눈으로 말하는 것을 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동이 트려면 세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겠지.

그때까지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겠지.

이제 스탠드를 끄면 어둠이 찾아오겠지.

*눈을 감는 것과 뜨는 것이 거의 다르지 않은, 먹보다 진한 내
눈의 밤이.*

점점 볼 수 없음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내가 노안 때문에 안경을 쓰면 해결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감을 그는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그녀는 아이에게 그토록 말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자신이 많이 힘들었다.

“숨”을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작가가 참 특별하게 느껴진다.

내가 살면서 말문을 닫고 싶었을 때가 있었겠지만 생각나지는 않는다.

다만 말하기 싫었던 경우는 종종 있었지.

닫힌 마음이 열리면 말문도 열리지 않을까? 그녀가 희랍어를 배우며 그를 마주하고 어떤 사고로 가까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그와 함께하며 그녀의 입이 열리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디에센셜 - 희랍어 시간」 한강

소통이 상실의 마음을 치유한다.

서민숙

『희랍어 시간』은 그와 그녀, 나로 표현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처음에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렵게 느껴졌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전개를 읽다 보면 누구의 이야기인지 헷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읽어나가도, [희랍어 시간]이 끌어내는 몰입감과 특유의 문체가 어려움을 넘어 읽게 되는 책이다.

주인공 ‘그’는 17세에 갑작스럽게 언어를 잃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불어 시간에 ‘비블리오떼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면서 언어를 되찾게 된다. 이십 년 후 이혼과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기고, 어머니마저 암으로 잃게 되면서 다시 언어를 잃게 된다. 과거에 외국어가 언어의 침묵을 깬듯이, 낯선 언어 ‘희랍어’를 배우며 말을 되찾으려 노력한다.

또 다른 남자주인공 희랍어 강사는 15세에 가족과 독일로 이

민을 갔다가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유전병이 있고, 아카데미에서 희랍어를 가르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상실을 이해하며, 소통으로 아픔과 상실의 마음을 치유한다.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소개 글이 있다.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침묵과 눈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빛이 만나는 찰나의 이야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되고 단단한 언어인 희랍어처럼, 고르고 또 고른 절제된 단어들로 세계를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던 것들, 영혼과도 같은 어떤 찰나들이 한자리에 서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이 문장이, 작품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희랍어 시간』을 읽으며, 침묵 속에서도 소통하며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의 매력을 알게 되길 바라며, 『희랍어 시간』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디에센셜 - 아버지가 지금, 책상 앞에 앉아 계신다.」 한강

이제야 진심을 전하는 막둥이의 고백

이금숙

*고백하자면 아버지를 잘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다.
왜 늘 저렇게 피곤하실까.
인생을 꼭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가.
막연히 그런 의문을, 때로는 불만을, 때로는 연민을 가졌을 뿐
이었다. 306쪽*

사실 식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식구가 주는 애뜻함을 말하려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 모든 삶의 국면들을 함께 매만지며 상처를 공유하며 나아갔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릴 적 지방 소도시에서 자란 나는, 막둥이의 특혜(?)로 유복하게 자랐다.
그 당시 엘리트였던 아버지는 과묵하셨고,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점잖은 분이셨다.

잘나가던 아버지는 2번의 사업 실패로 기세가 꺾였으며, 동시에 가세도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든 엄마를 보면서 가장의 무게를 이해하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좌절이 내 속 깊이 뿌리를 틀었다.

훗날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며 서럽게, 서럽게 울었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왜 이리 회한의 눈물이 흐르는지...

아버지, 아버지.....

이제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 막둥이 올림 -

「디에센셀 - 희랍어 시간」 한강

침묵과 빛

이은성

빛을 볼 수 있어도 ‘말’이라는 빛을 잃어버린 여자와, 말을 할 수 있어도 눈과 함께 ‘빛’을 잃어버린 남자의 이야기.

두 사람이 끝내 붙잡고 싶었던 건 그저 한 줌의 빛이었다.
희랍어가 이들을 연결한 빛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죽은 언어를 사이에 둔 빛과 침묵이 만나는 두 사람의 희랍어 시간.

두 사람이 침묵과 어둠 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현실의 벽에서 얼마나 힘겨웠을지를 보게 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침묵과 어둠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돕고자 했던 모습은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둘은 자신이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는다.

『 인상 깊었던 책의 내용을 적어본다. 』

삶이란 게, 결코 견디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고.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는 건 최악이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아름다운 건 봄비는 거리였지.
햇빛이 끓어넘치는 트램 정거장이었지.
세차게 뛰는 심장
부풀어 오르는 허파
아직 따뜻한 입술
그 입술을 누군가의 입술에 세차게 문지르는 거였지.

방금 내가 쓴 글씨지만, 십 센티미터 이상 눈에서 멀어지면 보
이지 않아요. 암기한 대로 소리 내어 읽을 때 공포를 느껴요.
태연하게 내 혀와 이와 목구멍으로 발음된 모든 음운들에 공포
를 느껴요.
내 목소리가 퍼져 나가는 공간의 침묵에 공포를 느껴요.
한번 퍼져 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어들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단어들에 공포를 느껴요.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침묵이라면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끝없이 긴 문장들 인지도 모른다.
단어들이 보도블록에, 콘크리트 건물의 옥상에, 검은 웅덩이에
떨어진다.
튀어 오른다.
검은 빗방울에 싸인 모국어 문자들,
둥글거나 반듯한 획들, 짧게 머무른 점들.
몸을 구부린 십표와 물음표.

「디에센셜 - 희랍어 시간」 한강

인간의 고통, 상실, 치유를 거쳐 희망을 꿈꾼다.

채경희

『희랍어 시간』의 작가 한강은 1970년 겨울에 광주에서 태어났고, 1993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 ‘서울의 겨울’외 4편을 발표하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장편소설 ‘검은 사슴’, ‘채식주의자’,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과 소설집과 시집도 발표했다.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노르웨이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 참여 작가로 선정되었다.

드디어 2024년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언어를 잃은 사람과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끌리는 과정을 저자의 섬세한 필력으로 전개된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입을 열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소름 끼칠 만큼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이었다. 18쪽

그녀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의 수단인 ‘언어’에 대해 어릴 적부터 매우 특별한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함을 넘어선 고통으로 다가오기까지 한다.

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내뿜는 말조차도 소름 끼치게 들린다고 한다. 인간은 각자 다르게 유독 과민반응하는 부분이 있다. 그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그녀처럼 지나친 예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본인이 아니고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녀는 말을 잃은 상태에 놓인 후 몸속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응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느끼며 지낸다. 그녀의 고통이 몸속에 스며들면서 만들어내는 반응까지도 그녀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생각된다.

그 고통의 가중을 독자의 입장에서는 작가가 실타래 풀어가듯 써 내려가는 문장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녀보다 더 큰 고통을 견디고서야 만들어지는 문장들일 것이다. 작가의 그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조금이나마 헤아리려는 마음은 생긴다.

그 새벽에, 왜 나는 너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지 못했을까. 왜 너처럼 용기를 내서, 대범하게 상처를 감수하며 되물을 수 있었을까. 나의 조건이 그렇다면 너의 조건은, 바로 너의 조건은 너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느냐고. 134쪽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리라는 걸 알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가? 그 말을 듣는 상대방

도 자신의 아픔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말이다. 인간은 한계를 극복하려고 수많은 상황에서 도전을 시도해 본다.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은 가히 아름답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약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신은 아마 짐작하지 못했을 테지만, 이따금 나는 당신과 긴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했는데, 내가 말을 건네면 당신이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이 말을 건네면 내가 귀 기울여 듣는 상상을 했는데, 텅 빈 강의실에서 희랍어 수업의 시작을 기다리며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실제로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193 ~ 194쪽

이들의 상실감이 서로의 내면에 자리 잡으면서 공감과 연대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녀는 말을 상실했지만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그 상실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다. 그 극복을 위해서 희랍어를 선택했고, 그는 시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지만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다.

두 사람의 다른 상황의 상실이지만 서로의 상실이 소통이 되는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녀 역시 마음으로 소통했지만 그에게의 끌림은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서로가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서로의 끌림으로 그동안의 고통, 상실이 치유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희망을 떠오르게 하는 저자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된다.

「디에센셜 - 희랍어 시간」 한강

사라진 것들과,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한순영

한강의 『희랍어 시간』은 잃어버린 것을 안고 살아가는 두 인물의 조용한 동행을 그린 소설이다. 말을 잃은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 둘은 희랍어 수업이라는 공간 안에서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에게 스며든다. 그들을 이어주는 것은 소리도, 시선도 아닌, 오히려 상실과 침묵 그 자체다.

그녀는 아이가 없는 1층 아파트 어둠 속에서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다. 문득문득 아이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곁에 없는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다. 아이의 ‘반짝이는 숲’이라는 인디언식 이름 때문에 ‘숲’이라는 글자를 좋아하게 된 건지도, 펄펄 내리는 눈의 슬픔을 마주하기 힘들어 질끈 눈을 감은 채 아이의 부재를 온몸으로 감당한다. 밤마다 아이의 온기를 되살리듯 기억 속을 더듬고, 그리움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애잔하고도 가엾다.

남자 또한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들은 살아 있는 것들과 점점 멀어지지만, 서로에게만은 조금씩 다가선다. 둘 사이를 연결한 결정적 장면은 계단에 갇힌 작은 새를 구하는 순간이었다. 남자가 새를 구하려다 어려움에 처하자, 여자는 말없이 손을 내민다. 어둠 속에서, 말없이 오간 이 장면은 이 소설이 품고 있는 다정함과 연민의 정서를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밤의 교실, 불 꺼진 계단, 희랍어 수업이라는 배경은 모두 소멸과 잊힘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희랍어는 ‘죽은 언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은 언어를 통해 그들은 서로를 살아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말도 느리게 내뱉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공감과 이해의 온도가 깃들어 있다.

한강 작가는 여기서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구어로 소통할 수 없는 ‘죽은 말’이 오히려 진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시력을 잃어가며 보이지 않는 남자가 그녀를 더 깊이 바라본다. 빛과 소리가 사라지는 와중에도 삶은 계속되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나마 숨을 고른다.

이 작품의 목차 구성 역시 인상적이다. 1에서 시작해 0으로 끝나는 목차는 서사의 흐름이 끝이 아닌 ‘소멸’을 향해 수렴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마지막 장 ‘0’은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무(無)의 시작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 해석은 독자에게 맡겨진 채, 조용한 여운을 남

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책장을 넘길 여유조차 없던 어느 날, 밤늦게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난 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꼭 한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와 그녀가 서로를 알아보았고, 어깨를 내어주기로 한 결말은 다행처럼 느껴진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위로였다.

『희랍어 시간』은 말보다 침묵이, 행동보다 여백이 더 크게 작용하는 소설이다. 그러나 바로 그 여백 덕분에 독자는 인물들의 고통과 체온을 더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읽고 나면 말없이 머무는 눈발처럼 마음 한편에 오래 남는다.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부제

후성유전학과 교육의 힘

박성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국어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평소 책 읽는 것을 좋아해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선배들과 함께 생명과학과 관련된 **후성유전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후성유전학은 유전자가 단순히 DNA 염기서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생활 습관 같은 후성적 요인에 의해 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의 생활 습관이나 경험에 따라 자녀의 유전자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후성유전학을 배우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유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전자를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공부를 잘 못하셨다면 자신도 공부를 잘 못할 거라며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성유전학은 그렇게 정해진 운명을 깨뜨릴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바로 **교육**이 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람

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국어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이런 생각을 교육 현장에서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공부’가 아닌,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성유전학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책을 많이 읽고,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이런 생각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국어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리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

박정연

미국은 17세기에 유럽인들이 처음 발을 내딛고 정착을 시작한 땅이다. 미 대륙은 비옥한 토지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었다.

초기 정착민들이 서쪽으로 전진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정치였다.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미국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새로운 국가 즉 미합중국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당시 막 걸음마를 댔 미합중국은 서쪽으로 진출하고 싶었지만 프랑스가 뉴올리언스를 지배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지배권을 사는 형태로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또한 미국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루이지애나를 스페인으로부터 사들여 태평양 방향의 경계선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내륙 물자 수송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캘리포니아 북부 끝까지 지배하고 있었지만 텍사스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멕시코는 결국 리오그란데 강의 남쪽 제방이 끝나는 영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유럽인들은 떠났고 다른 공격으로

부터 안전해져 태평양에 도달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졌다. 마침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등장한 것이다.

이제 미국의 패권이 도전받을 만한 지역은 유럽, 러시아, 중국이다. 유럽은 적은 방위비만을 지출해 미국에 의존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하고 계획경제에서 비롯한 문제들을 푸는 데 실패해 미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보다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중국은 수많은 인구조를 돈을 벌며 과학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성장 속도가 가파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리의 힘’에선 저자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간이 1세기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영국 평가기관 QS가 발표한 대학순위에 따르면 중국대학들이 약진한 것으로 보아 현재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척된 땅이 아닌 미지의 땅에서 여러 인종들이 모여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리의 힘’ 때문이다.

하나는 모든 것으로 이뤄져 있고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나온다.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이다. 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래 늘 함께했던 동물이자 인간의 친구로 이제는 가족과도 같은 반열에 오른 강아지는 수많은 동물 중에서 어떻게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인류의 역사에 당당하게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또 수많은 인류의 종 중에서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진화를 거듭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적자생존을 뜻하는 ‘Survival of the fittest’을 살짝 뒤틀어 이 책의 원제인 ‘Survival of the friendliest’ 친화 생존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적자생존 개념처럼 가장 잘 적응한 개체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두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응하지 못한 자 혹은 가장 운이 나쁜 자가 도태되고 충분히 훌륭한, 그래서 서로 손잡고 서로에게 다정한 개체들이 살아남는다는 개념이다. 가장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 살아남는다는 다소 인류 친화적인 개념은 지엽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엄청난 양의 참고문헌과 과학적 실험으로 무

장하고 있어서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브리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내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며 어떠한 대가라도 감수할 정도로 강한 유대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자생존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며, 인간 사회의 다정함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력을 통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등의 복합적 행동으로 드러난다고도 밝히고 있다. 고대에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던 호모 에렉투스도 강력한 신체로 무장한 네안데르탈인도 모두 멸종하였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는 친화력 바로 ‘자기 가축화 self-domestication’를 통해서 진화했다.

오레오와 함께 한 실험을 통해서(원래는 침팬지를 통한 인지 능력 실험이었다) 개와 사람 아기에게 손짓 놀이를 통해 공통으로 나타나는 능력. 바로 우리에게 ‘마음이론 능력’이 있어서 지구에서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타인과 협력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손짓 놀이 즉 어떠한 행동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행동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동작이든 선의로 받아들이며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실험은 ‘다정함의 힘’에 나타나는 야생 여우가 사람에게 대해 가진 친화력을 기준으로 동물들의 가축화에 대해 밝히고 있다. 개는 이미 강아지 때부터 모든 협력적 의사소통의 기술이 존재하지만, 늑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기술이 드러나지 않는다. 늑대는 지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내는 협력적 의사소통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재미있는 가설을 제시하는데 바로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나온 배설물 똥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면서 늑대들은 번식

상 이점이 생겼을 것이고 친화력이 좋은 늑대와 겁많은 늑대 사이에 유전자의 이동은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의 의도적 선택없이 친화력이 좋은 새로운 종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람이 개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늑대가 스스로 가축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축화된 동물은 인지능력에서 변화가 있는가? 오히려 친화력이 동물들의 인지능력 특히 협력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개체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개체들 사이에서 자연선택을 통해 대규모의 자기 가축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변수를 제거했어도 ‘자기 가축화’가 진행될 것인가? 3장 ‘오랫동안 잊고 있던 우리의 사촌’에서는 침팬지 무리의 폭력성에 대한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공격성이란 결국 집단 내의 협력자의 수를 크게 제한시키고 생존에도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그와 대비되는 사례로 보노보 말루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암컷 보노보는 배란기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전략과 아기 보노보를 지키기 위한 암컷 보노보의 연합과정을 통해 (실제 생김새도 보노보는 순하게 생겼다-편견일 수도) 수컷이 암컷을 만나는 전략 또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다정한 수컷에 대한 선호로 다정한 사회를 유지 진화시키고 있다. 낯선 이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끌린다거나 서로를 죽이지 않는 치명적인 폭력성에서 벗어난 종으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노보는 성취했다.

지금 세계는 무역전쟁과 인종 갈등, 세계의 패권 전쟁 등으로 얼룩져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책이 출판되기 직전 취소되었다고 한다. 다시 트럼프가 집권한 2025년 우리는 보노보의 일화에서 오레오의 일화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와 앞으로 평화롭게 살아남기 위해 어떤 자

세가 필요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평 독서 클럽

곽은수, 노강윤, 유보환, 이진주, 이화배, 최수정

24년 봄 평생교육원 글쓰기 수업에서
처음 만난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모임을 이어갔고
작년 말 회원들의 글을 모아
에세이 작품집을 출간했습니다.
글쓰기의 바탕은 독서에 있기에
25년부터는 독서 동아리를 병행하며
지속적인 읽기와 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두 번째 작품집이 출간 예정입니다.

「다만 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 박완서

슬픔을 건디는 여행

곽은수

“다만 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삶을 간신히 붙잡는 끈처럼 느껴졌다. 여행이라는 낮은 공간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그녀에게 여행은 고통에서 잠시 떨어져 있기 위한 노력으로 보였다.

이 책은 화려한 여행지를 소개하거나 이국적인 문화에 감탄하는 책이 아니다. 그녀가 걷는 길은 조용하고, 그 길 위의 시선은 늘 주변을 향하지만, 길 끝에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자신의 상실감이 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 쓸수록 죽은 사람이 더 자주 생각난다. 여행은 그럴 때 필요하다. 슬픔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해준다.”

그녀는 떠남을 통해 아픔을 잊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픔을 더 잘 바라보기 위해 걷는다. 걷는 동안만큼은 괴로움과 자신 사이에 약간의 거리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의 낡은 골목을 걸을 때도, 이스탄불의 골동품 가게를 지나칠 때도, 그녀의 눈에는 도시보다 사람의 얼굴이 먼저 들어온다. “이국의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토록 원했지만 누리지 못한 시간을 떠올렸다.” 이 문장에서는 그녀의 여행은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고 남겨진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다. 어떤 풍경은 그녀에게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다.

그녀는 말한다. “여행자는 잠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롭다. 그래서 조금은 덜 아프다.” 삶의 한가운데에 설 수 없을 때, 가장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이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서의 여행이 그녀가 말하는 여행인 것이다.

격렬하게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절제된 표현이 아픔을 이기려 걷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끌어안은 채 묵묵히 걸어간다. 그 모습은 나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보니 살아 있었던 시간들.” 이 문장은 마치 내게도 건네는 말처럼 느껴진다.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살아 있었고, 어쩌다 보니 이만큼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 책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읽는 이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잠시 떠나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이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범주의 커튼을 젖히다.

노강윤

7살의 어린 저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딸의 갑작스런 질문에 생화학자였던 저자의 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의미는 없어! 혼돈만이 세상의 유일한 지배자이고 혼돈은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광대한 시간의 길이 가운데 인간이 존재한 기간은 미미하고 우리는 곧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p54~55)

천지불인(天地不仁) 이만물위추구(以萬物爲芻狗). 하늘과 땅은 완전하지 못하여 세상 만물 역시 온전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수밖에 없다는 노자의 심오한 사상과도 같은 아버지의 선문답은 저자에게는 일생의 화두가 되었을 것입니다. 16살 어린 나이의 자살 시도와 대학에서 만난 계피 냄새를 풍기는 곱슬머리 청년과의 7년간의 열애, 그리고 우연히 만난 금발소녀와의 일탈과 그로 인한 이별, 이 모든 방황과 혼돈으로부터 그녀에게 구원의 빛을 밝혀주고 질서를 부여해 준 사람은 바로 생물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류학자로서 지구상의 모든 물고기를 수집하여 이름을 지어주고, 그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과 범죄, 문맹, 정신박약, 방탕 등을 혈통과 관련된 것으로 결론짓고 특정 집단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우생학 신봉자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영구 불임을 법제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평화주의자를 표방하였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우생학적 계층 사다리 중 가장 보잘것없고 숨어 살아야만 하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신, 경멸하고 격리해 버립니다. 사다리의 최상위 계층에 있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상상 속 계층 사다리에서 인간들만이 모든 분야의 최정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인간보다 우월한 다른 동물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우월성을 박탈하는 연어적 거세를 가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삶의 롤 모델이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던 저자는 자신의 이상에게서 발견한 이런 충격적 모습에 좌절하고 맙니다. 결국 저자는 데이비드가 한평생의 업적으로 연구했던 물고기는 그 중 자체가 분기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학문적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세상 밖으로 고집어내면서 자신의 이상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계층 구조에만 매달리는 것은 더 큰 그림, 자연의 생명 전체 조직의 복잡다단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와 함께 작가는 우리에게 직관적 편안함에서 벗어나 진실과 마주하라고 주장합니다.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서 움직이는 것은 별이 아니고 지구라는 과학적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페르니쿠스는 이단으로 몰리고, 브루노는 화형대에서 화형당하고, 갈릴레오는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별이라는 오랜 믿음을 포기한 덕분에, 사람들은 공학적 영감을 얻게 되고, 직관의 반대편으로 배를 보내는 꿈을 꾸게 되고, 마침내는 달에 닿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 아니 기존의 직관적 편안함을 포기하면서 작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 받쳐주는 세심하고 촘촘한 그물망이 실은 이 세상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그물망이 받쳐주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지구라는 행성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범주를 깨부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이 프린트된 상상의 커튼을 젖히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문구의 포스트잇을 책상머리맡에 붙이고 생활한다는 누군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의 사다리에서 어느 칸에 속해있다고 규정되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의 협동과 육체적 노동과 땀방울로 엮어진 촘촘한 그물망들이 진정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힘이고 싹틔줄임을 믿습니다. 그 작은 그물망 사이에는 어떠한 막힘도, 장애도 없습니다. 작은 물길도, 커다란 바람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생명체의 뜨거운 숨결과 몸짓 하나하나가 그 그물망 속에서 은빛 비늘로 펄떡이며 힘차게 솟아오르리라 믿습니다.

관습과 직관의 인식 속에서 말 못 하고 쫓기는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부당한 인식의 장막을 걷어내

고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물망의 작은 구멍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신만의 바람길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 존재의 외연은 넓어지고 범주의 커튼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역 부처의말」

내 안의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유보환

올해는 유독 마음이 불안정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삶의 속도는 버겁게 느껴졌고, 평온함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부터 담백하고 간결한 문체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책, 「초역 부처의말」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반가웠던 것은 제가 좋아하는 「법구경」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법구경」의 구절들은 마치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신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을 뽕 뚫어 주었습니다. 특히, 스님께서 수많은 「법구경」 구절 중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엄선하고, 주제별로 명료하게 정리해 놓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무작정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했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복이라는 허상을 쫓아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고, 그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행복이 이미 제 주머니 속에,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음에도, 너무 조금하게 욕심만 부렸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 것입니다.

「초역 부처의 말」은 한 번에 후루룩 읽어버리기에는 아쉬운 책입니다. 이 책은 일상 속에서 마음이 불안정해지거나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한 번씩 꺼내 읽으며 나에게 필요한 구절을 찾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음의 비상약’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알아차리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과」 구병모

깨지고 상한 모든 것에 바치는 찬사

이진주

「파과」는 노년의 여성 살인청부업자 ‘조각’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 노년의 쇠락과 존엄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이다. 주인공 조각은 무더진 감각과 쇠락해 가는 육체를 안고도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존재를 지켜내며 살아간다. 표면적으로는 장르적 긴장감이 흐르지만 사실 이 소설은 늙어간다는 것, 사라짐과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묻는다.

‘파과’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부서진 과일, 흩집 난 과실, 두 번째는 여자 나이 16세, 가장 빛나는 시절을 뜻한다. 소설은 우리 각자가 주어진 상실과 쇠락 속에서도 의연하게 살아내고자 결심할 때, 비로소 자신의 ‘파과(破瓜)’의 순간, 즉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 속에서 조각과 대립하는 젊은 킬러는 조각이 과거 임무 중 부모를 제거했지만, 어린아이였던 그는 살려둔 인물이다. 젊은 킬러는 조각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각은 알약을 삼키지 못하던 모습까지 선명히 기억한다. 이 관계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조각이 남긴 씨앗이 자

신 앞에 돌아오는 아이러니한 인과를 보여준다.

이 소설은 특히나 긴 문장이 인상적인데 놀랍도록 정교하다. 마치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이어진 문장들은 독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붙잡으며, 삶과 죽음, 노화와 존엄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한다. 긴 문장 속에서도 독자는 조각의 내면, 기억, 감정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최근 리커버 표지는 자수 작가 이은정의 작품을 활용하고, 박연미 디자이너가 새롭게 디자인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피어난 자수는 이 소설의 문장처럼 섬세하고 힘이 있다. 이은정 자수 화가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빛났던 ‘찰나의 순간’을 모아 꿈같은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표지 역시 소설 속 주인공 조각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을 담았다. 형형색색의 꽃과 식물, 나무들은 조각의 삶이 고요하지만 힘 있게 뻗어 나가는 모습을 상징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파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노년 여성 킬러의 삶과 내면을 스크린으로 확장하며 문학적 서사의 감동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또한 「파쇄: 일단 마음 먹고 칼을 집었으면」이라는 외전도 있다. 조각의 어린 시절과 어떻게 킬러가 되었는지의 시작을 다룬 프리퀄로, 「파과」와 함께 읽으면 조각이라는 인물의 내적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파과」는 긴 문장, 리뉴얼된 섬세한 자수 표지, 상징적인 제목, 외전과 영화화까지 다층적으로 어우러지며 독자에게 묵직한 울림을 준다.

“누군가의 눈에는 파과로 보일지라도,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남기며, 삶과 존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사랑이 부족해서 변명만 늘었다」 박현준

그냥 모든 게 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의 변명

이화배

박현준 작가의 「사랑이 부족해서 변명만 늘었다」를 읽으면서 나의 젊었을 때를 상상하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황하던 그때를 되새기는 것은 상처를 남겼던 마음의 생채기를 다시 헤집는 아픔이 밀려들었다.

그는 사랑을 잃은 후에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그 모든 변명은 결국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뼈아픈 결론에 도달한다.

저자는 반복적으로 사랑을 "돌봄"과 "책임"의 감정으로 해석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적어도 상처 주는 말은 삼켰어야 했고, 변명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한다. 이런 반성이 담긴 문장들 속에서 독자들은 저마다의 지난 연애를 떠올리게 된다. 어떤 이들은 책 속 문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랑의 흔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남성의 연애 감정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특

별하다. 감정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이별을 체념으로 건디는 남성들이 많다는 현실에서, 박현준은 눈물 흘리는 남자, 후회하는 남자,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남자의 목소리를 꺼내 놓는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고백을 넘어, 감정 표현을 억눌러온 사회적 통념에 대한 작은 저항이기도 하다.

물론, 책의 감성이 다소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일부 문장은 지나치게 감정에 기대어 있어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본질은 '완성도 있는 문학'이라기보다, 누구나 겪었을 법한 사랑의 흔적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전하려는 데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문장의 거칠음조차도 진정성으로 읽힌다.

“사람이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사는 게 어디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것이겠냐는 말.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처럼 잘되지 않았다는 말. 나는 이제 이런 걸 두고, 마음이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정확히 그게 맞고 마음처럼 잘되지 않은 게 아니라 딱 마음만큼만 된 것이라고 못 박고 싶다. 그냥 모든 게 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의 변명.”(p 268)중에서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어떤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 깨달은 게 모든 것은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결혼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는 무척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체감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는 그저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운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대신했다. 그것이 마음먹기 때문인 것인지도 몰랐다.

예전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매정한 뿌리침을 당할 때, 직장에서 동기들이 먼저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이면을 들추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서 변명만 늘었다」를 읽고 난 뒤,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이 마음먹은 것처럼 잘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처럼 잘되지 않은 게 아니라 딱 마음만큼만 된 것이라는 것을.

「빛과 실」 한강

작가와의 만남

최수정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그를 만나 보고 싶은 독자가 많았을 것이다. 에세이집 「빛과 실」의 출간이야말로 작가와의 만남을 대체할 만하다. 지금부터 이 책을 추천하는 대상을 조목조목 적어두려 한다.

우선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감명받은 독자라면 추천한다. 「소년이 온다」를 읽는 내내 이런 작품을 구상하고 써 내려가면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한 번이라도 걱정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에 대한 작가의 소회를 이 에세이집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도 어마어마한 양의 눈물을 흘렸노라고 얘기해 주는 대목이 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쓰기가 작가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실’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가슴 먹먹해진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많은 독자들이 7년의 세월을 거쳐 세상에 나온 작품이란 것을 알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이 저장돼있는 USB 메모리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저녁 내내 걸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작가의 표현대로 가슴이 무지근해질지도 모른다.

친오빠에 대한 평생의 사랑이 그려져 있는 소설을 완성하고 나서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빛과 실」을 읽으며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빛과 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 한강 시인의 시가 너무나 어려웠던 독자들이여, 이곳으로 오라! 「빛과 실」에 실려 있는 시들은 한결 쉽다. 이해도 더 잘 되고 한강 작가를 훨씬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이다. 평생 시와 거리를 두고 지냈던 독자라고 해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강의 작품 세계에 대해 무겁고 어둡기만 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거기서부터 우려져 나오는 작가의 진심과 통찰에 대해 느껴보는 건 어떨까.

또 하나, 이 책에는 작가가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일기가 수록돼 있다. 살아있는 생물 중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키워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좋아할 것이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빛’을 주는 일에 대한 숭고함을 전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굳이 햇빛이 아니더라도 생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누구라도 엄마 미소 지으며 작가의 일기를 엿보는 재미가 있다. 선녀벌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작가를 흠쳐볼 때면 배꼽을 잡을지도 모른다. 작가의 정원일기는 왠지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내자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참, 무엇보다 책의 앞부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이 수록돼 있다. 참고하시라.

**불편한
책읽기 클럽
(불독클럽)**

「먼 산의 기억」 오르한 파묵

미완의 꿈은 누구나 품고 있지만,
누군가는 삶을 통해 천천히 이뤄간다

조성숙

튀르키예의 위대한 소설가 오르한 파묵.

1952년 이스탄불 태생인 그는 수많은 실험적인 소설들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내 이름은 빨강〉, 〈이스탄불〉, 〈패스트의 밤〉등 역사와 정치소설 등이 있으며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동,서양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한 신비한 분위기를 특유의 문체와 서술방식으로 그려낸 작품들로 높이 평가 받는다.

〈먼 산의 기억〉은 14년간의 기록이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겪은 일, 가족과의 일화들, ‘글쓰는 일’을 대하는 작가의 자세와 그리고 작품에 영감을 준 것들이 시적인 문체와 그림과 함께 어우러져 펼쳐진다.

일기라고 해서 시간 순서로 편집되어 있지는 않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이 불규칙적으로 뒤섞인 구성이다. 작가나 출판사의 의도가 들어있는 편집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작가를 이해하는데 기술하는 순서가 방해하진 않는다,

작품 집필과 외부 일과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고민내용,
여행 중 만난 새들에 대한 단상은 시처럼 짧고 간결함과 어울

리는 이미지, 그 여백에 ‘물/식사/택시비 11.000’처럼 그날 외출에 지출한 내용도 메모인 듯 아닌 듯 써놓은 것도 재밌다. 글을 쓸 여력이 없을 때는 내가 작업하는 그림만 그려둔 부분도 재밌다.

그림을 좋아하여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는 작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로마, 미국등지의 미술관과 박물관, 개인 박물관, 작가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느낀 즐거움과 행복한 감상들을 드러낸다.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스페인 톨레도의 엘 그레코 그림등을 보며 친구들에게 즐겁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자신에 대해 서술하기도 했는데 이런 작가의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

또한 여행지에서 본 건축들의 다양한 양식을 서술하고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개인 박물관인 비토리아알레에서 조각,장식품, 생활용품들,라틴어 말들과 책들로 가득한 단눈치오의 집등을 둘러보며 느낀 감동을 나누기도 한다.

공과대한 건축과를 졸업한 작가는 오스만제국과 튀르키예 요소를 결합하여 팔라디오스타일에 의거한 가상의 건축물, 집 등을 구성하여 이 모든 요소들로 도시의 모형을 만들고 이 장소가 배경인 소설을 쓰고 싶다는 내용도 있다.

작품을 구상하는 다양한 영감통로를 엿볼 수 있다.

2012년 5월 어느 날의 일기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은 마치 성욕과도 같아서 내 마음속에 마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솟구쳐 오르고 그러면 당장에 연필과 물감을 잡고 그림을 그린다.

저 멀리 또 다른 삶과 세계가 있다는 상상, 멀고 거친 풍경이 암시하는 다른 삶에 대한 생각은 나의 모든 삶을 정의하고 항상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 이상하다. 마치 뭔가 증명해야 할 게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소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써야한다. 사람들이 그 소설에서 내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p.107
꿈을 품고만 있는 자와 천천히 생을 통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엿본 느낌이다.

「하루하나 클래식」 안일구, 김소라, 박지혁, 데안 가브리츠

하루하나 클래식

이순전

400년을 아우르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 안에서 어떤 곡을 어디
서부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클래식 음악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루하나 클래식100은 음악을 처음 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
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칼람니스트, 첼로 연주자, 플루티스트, 큐레이트 등 악기, 작
곡가, 연주자에 대해 한 곡 한 곡 영상과 함께 너무나 잘 표현
이 되어 있어 음악을 들으며 작곡가나 연주자와 함께 동행하며
듣는 듯 공감이 되며 감성이 키워진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면 어떤 악기의 흐름인지를 잘 모르고
들을 때가 있고 악기 소리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다. 현악기 타
악기 관악기 솔로곡 성악곡, 협주곡부터 오케스트라 합창곡까
지 다양한 악기의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하듯 느낄 수 있는
책이다.

특히 비발디 사계 양상불의 혼연일체가 되어 겨울을 그리며 연
주하는 모습이나 흔히 접해 볼 수 없는 르네상스나 바로크시대
의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모습은 너무나 신선하고
감동 깊은 장면이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할 때 클래식 음악을 듣는 습관이

있는 나에게 하루하나 클래식100은 그냥 흘러나오는 음악을 접하는 게 아니고 곡도 알고 악기도 알고 작곡가 연주자 지휘자의 마음도 조금은 공감하면서 음악을 듣게 해준다.
하루를 클래식 음악 한 페이지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풍요로운 마음도 갖게 된다.

「나폴리 4부작」 엘레나 페란테

문순영

(1권 나의 눈부신 친구, 2권 새로운 이름의 이야기, 3권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 4권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

“인간의 경험은 어떤 것이라도 솔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차마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자신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일일수록 그렇다.”

3권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 중, 작가가 된 레누의 생각이다. 이 말과 달리 레누는 자신의 마음을 차마 다 털어놓지 못한다, 분신과도 같은 친구 릴라에게도. 릴라 역시 끝끝내 숨기고 싶은 경험이 있었다. 늘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투명하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두 친구에게는, 각각 티나와 누라는 인형이 있었다. 이들이 서로에게 가장 솔직했던 때는 아마도 인형을 통해 역할 놀이를 하던 시절이었으리라. 릴라에게 ‘레누의 티나’는 부러움과 애정, 질투의 대상이었다. 그런 존재를 돈 아킬레의 창고에 던져버린 작은 행동은 수십 년 후 나비효과가 되어 릴라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릴라의 딸 티나의 실종. 부자와 결혼도 하고, 멋진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사업가가 되어

지역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지만, 어린 딸 티나를 잃은 뒤로 릴라는 무너져간다. 그리고 모든 흔적을 감쪽같이 지우고 사라져 버린다.

처음 1권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 두 친구의 우정은 내 학창 시절의 한 친구를 떠오르게 했다. 예쁘고 똑똑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그 아이가 된 듯 나의 자존감마저 치켜올려 주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사이가 멀어졌어도 이따금 절친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면 또다시 나는 그 아이를 생각한다. 50대가 되었어도 틀림없이 어디선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을 사람, 나의 눈부신 친구.

전권을 읽는 내내 한 페이지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페이지로 따지자면 25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책을 덮자 한동안 머리가 멍해졌다. 60년.. 두 친구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난했던 시절 약자들의 이야기? 여성주의에 대한 주제? 두 친구의 성장 소설? 이 모든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닐 것이다. 조용하고 섬세하게 우리들 삶의 복잡하고 미묘한 '경계의 해체'에 대해 들려주고 싶었을 수도 있다. 선심을 쓰다가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생각해 본다, 언젠가 친구를 마주치게 될 순간을. 그때 나는 말해줄 수 있을까? 넌 나의 눈부신 친구였다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 레프 톨스토이

죽음이 삶을 비추는 순간
-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최혜미

짧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책이 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바로 그런 작품이다. 분량은 길지 않지만, 책장을 덮고 나면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오래도록 곱씹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주인공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처지를 대변해 줌으로써 읽을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준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주인공 이반 일리치의 호소에 몰입했다. 병으로 몸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고통, 가족에게서 느끼는 서운함과 고독, 죽음을 눈앞에 둔 이의 극심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죽음’이란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언젠가 나 역시도 죽음과 마주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 공포스러웠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부정하고 가족들과 신을 원망하는 이반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되어 오랫동안 가슴을 무겁게 했다.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이반이 아닌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불편하고, 힘겹고,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들의 언행에 비난의 마음이 들다가 문득 ‘나는 이들을 책망할 만큼 주변인들을 친절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끄러운 자각이 따라왔다. 그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어주었다.

세 번째 읽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시선이 갔다.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두고 ‘내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불안에 휩싸인다. 이들의 양가감정에 십분 공감하는 바이다. 이반의 죽음은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겪을 ‘나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하인 게라심의 꾸밈없는 헌신과,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터뜨리던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은 죽음 앞의 이반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어준다.

결국 죽음은 홀로 마주해야 하지만, 곁을 지켜주는 이의 따뜻한 시선은 그 길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물들인다. 마지막 순간의 위로는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단지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해준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

음이었다. 사회적 성공, 체면, 남의 시선에 휘둘리며 살아온 이반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기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 그는 해방을 경험한다. 죽음은 ‘끝’이 아닌 ‘깨달음’이었다.

이반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책을 세 번 읽으며 나는 세 가지 얼굴을 마주했다. 죽음을 앞둔 자의 두려움,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무력감, 그리고 제3자의 양가감정.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작품은 그저 문학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인물들이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여러 번, 다시 이 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책 속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될지 기대하면서 말이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 테드 창

과학과 철학이 공존하는 SF의 진수,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이혜원

테드 창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영화 ‘컨택트’의 원작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나 역시 영화를 먼저 보고 책에 관심을 가졌지만, 여덟 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두툼한 분량은 한동안 선뜻 손이 가지 않게 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야기인 「바벨론의 탑」을 펼친 순간, 나는 끝내 책을 덮을 수 없었다.

「바벨론의 탑」에서 시작해 「이해」, 「영으로 나누면」, 「네 인생의 이야기」, 「일흔두 글자」, 「인류 과학의 진화」, 「지옥은 신의 부재」,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까지 이어지는 여덟 편의 단편을 읽어나가며, 나는 내가 SF 소설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철학책을 읽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각 작품은 신의 존재, 인간의 욕망, 언어와 사고, 시간 인식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물음이 작품을 따라다녔고, 때로는 명쾌한 해답 대신 뫼비우스의 띠 같은 사유의 굴곡만 남았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이 왜 수많은 상을 수상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특히 「네 인생의 이야기」에서 인용된 문장은 오래 내 마음에 남았다.

‘물질 우주는 완벽하게 양의적인 문법을 가진 하나의 언어이다. 모든 물리적 사건은 완전히 상이한 두 방식으로 분리될 수 있는 하나의 언술에 해당된다. 한 가지 방식은 인과적이고, 다른 방식은 목적론적이다. 두 가지 모두 타당하고, 한쪽에서 아무리 많은 문맥을 동원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은 없다.’

이 구절은 과학과 시간 그리고 언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세계를 이해하지만, 동시에 목적과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통찰을 얻게 된다.

책을 덮고 나서도 가장 오래 남은 질문은 “내가 미래를 미리 알게 된다면, 그 길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을까?”였다. 테드 창은 그 답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다만 작품 속 인물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묵묵히 되묻는다. 삶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알면서도 감당하고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오늘날 과학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속도로 발전하며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학을 단순한 도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그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바로 그 고민을 촉발하는 책이다.

SF 소설을 통해 단순한 상상 그 이상의 깊은 사유를 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이다. 읽고 나면 우리는 과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동시에, 존재와 시간, 그리고 삶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붓과 펜

김경선, 박수복, 조윤주, 조정례, 홍희경

붓으로 그리고 펜으로 쓰는 ‘붓과 펜’ 동아리는
시니어동아리로 주제별 그림책을 살펴보며
생활 속 공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림책 북아트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평 마을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 부평을
꾸준히 그리기도 한답니다.

「인생은 지금」 다비드 칼리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김경선

책의 겉표지는 부부가 누군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대방은 보이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모습으로 부부간의 어긋남이 보이는 것 같다.

은퇴한 중년 부부의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이다. 은퇴한 남편은 버킷리스트였던 여행, 악기 배우기, 밤낚시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만 아내는 “다음에”, “내일”이라며 망설이고 미룬다. 그러다 마지막 장엔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웃으며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일만 하느라 모든 걸 미뤘었던 남자와 어떤 모험도 추구하지 않으려는 여자, 어긋나기만 하는 두 사람은 오늘 함께할 수 있을까? 은퇴한 노부부의 현실감 넘치는 대화는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매일 무언가를 유예하며 사는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 돌아온다.

남편과 아내의 오랫동안 각자 단순한 일상이 몸에 배어 있는

상태에서 은퇴 후 함께 하는 삶의 중요성과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해도 해도 끊임없는 가사와 육아로 번아웃이 왔을 때, 어느 날 문득 싱크대에 쌓여 있는 설거지보다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거지는 언제든 몰아서 할 수 있지만, 독서는 한꺼번에 읽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에 집안 일은 잠시 미뤄두고 이를 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맘껏 읽었던 생각이 난다.

정년을 앞둔 중년 직장인, 미래에 대해 압박감이 있는 사람, 버킷리스트는 작성되어 있으나 망설이고 있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선물」 밥 길

어머니의 선물

박수복

시아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석 달이 되었다. 그 즈에 이 책을 선물받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참 동안 책을 펼쳐보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 '선물'을 허투루 열어보고 싶지 않은 맘이었을까? 쫓기듯 준비에 허덕이던 강박 같은 강의 준비가 없는 오늘이 되어서야 이 책을 비로소 찬찬히 보게 되었다.

생일을 2주 앞둔 아서는 아빠 옷장에서 뭔가를 찾다가 선반 위에 있는 선물 상자를 발견한다. 반짝이는 별무늬 포장지로 싸여졌고 빨간 리본으로 묶여 있는 상자. 아서는 틀림없이 깜짝 생일 선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물은 케이크 아닐까?

고리 던지기 세트라면 매일 연습해서 세계챔피언이 될 거야. 돛단배라면 맨 앞에 밧줄을 매달 거야. 트랙터라면 친구 트랙에 연결해서 차고까지 끌고 가볼 거야. 볼링 세트라면? 포근한 곰 인형? 초콜릿? 알록달록한 껌? 새 가방? 일본에서 만든 전등?... 등등등 그렇게 아서는 상자 속의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상상하며 나름의 기대를 키워간다. 아서는 생일이 돌아오기까지 매일 선물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영영 오지 않

을 것 같았던 생일 전날, 아서는 현관에서 엄마가 어떤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 아주머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모으고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서는 아빠 옷장에서 선물을 꺼내와 아주머니에게 준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건 2010년이라고 한다. 2010년 그 당시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전 세계를 휩쓸던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하던 시기였고, SNS에선 언박싱영상이 인기를 끌던 때였다고 한다. 작가는 상자 속 물건이 아닌, 뜯지 않은 상자 속에 대한 상상력과 나눔의 가치를 전한다. 상자를 바라보며 펼치는 상상의 나래, 어떤 물건이 나올지 아서 자신의 욕망이 담겨있으면서도 아서 자신의 감정을 놓치지 않는다. 파티의 즐거움, 연못 위의 돛단배를 타는 모험, 배구공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등 물질(물건)에서 그치지 않고 관계와 경험을 섬세하고 담아내고 있다.

아날로그 시절, 편지의 오고 가는 기다림을 즐겼던 나는 편지가 오면 바로 뜯지 않았었다. 주변의 일을 다 끝내고 편지 커터 칼로 편지를 뜯기 전까지 상상 속에서 여러 짜릿함을 즐겼었다. 그 즐거운 짜릿함이란 편지를 주고받았던 분들은 다 알지 않을까? 오래전 신혼 시절에 시어머니께 편지를 드렸던 기억이 있다. 답장은 없으셨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큰 답장(선물)을 주고 가셨다. 세대차를 극복하지 못했던 남편은 몇 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한 걸로 알던 중매 아저씨는 잘 사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도 만나게 되며 회포를 푸는 자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책 면지에 있는 “내가 먹는 사과보다 남에게 건네는 사과가 더

값지다.”라는 글귀.

가져도 가져도 배부르지 않는, 가진 게 많은데 여전히 허전한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너의 특별한 점」 이달 글/이고운 그림

너에게만 알려주는 비밀

조윤주

책 표지에는 밤하늘 배경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가 보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글씨는 바느질 땀처럼 하나하나 지나가게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눈 감은 아이 목에 있는 점은 나중에 보였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너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책을 열어 보았습니다. “특별한 점”이라는 단어에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특별함과 몸과 얼굴에서 보이는 점, 이렇게 두 가지 뜻을 생각했습니다.

목 한가운데 점이 있는 아이는 친구들이 자신의 모습을 놀린 것을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비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점에서 시작되어 모양이 생겨납니다. 첫 숨이 흩어지지 않고 특별한 점이 됩니다. 그 곳에 꿈씨가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면서 잊고 있다가 다시 꿈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엄마는 아이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양치질을 하다가 거울을 보고 웃습니다.

작가는 목에 점이 있어서, 친구들이 과녁 삼아 비비탄총을 쏜 일로 울고 돌아온 딸아이를 위로하려고 들려준 이야기를 그

림책으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과정에서 첫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숨을 쉬고 살피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일까지도 아름답게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점은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일, 'Being'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있다가 유치원과 학교라는 작은 사회로 나갑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 싸우고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듣고 있는 엄마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민하지 않게 별일 아니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사건과 감정을 간접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말로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몸에 점이 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눈에 띄거나 숨어 있거나 많거나 적지만 똑같은 점은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와 존재의 의미로 아이가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특별한 점을 찾아냅니다. 아이는 불편한 마음을 읽고 공감해 주는 엄마에게 위로받고 안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같이 읽어 보고 싶습니다.

「마스코트가 된 파랑이」 영미 글, 한혜정 그림

호기심 많은 파랑이

조정례

도서관 신작 코너에서 〈마스코트가 된 파랑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앞표지 속 물감을 잔뜩 묻힌 파랑이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 무척 사랑스럽다. 그림은 동화적이고 활기차며, 보는 이에게 따뜻하고 귀여운 분위기를 전한다. 읽는 동안 마음이 포근해지고, 가슴이 몽클한 감동이 남는다.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따뜻한 그림책이다.

외딴섬에서 태어난 아기 물개 파랑이는 밀렵꾼들에게 가족을 잃고 홀로 바다에 떠밀린다. 낡은 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파랑이는 상어의 위협과 폭풍우 등 수많은 고난을 겪는다. 간신히 살아남아 한국의 한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파랑이는 화가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 화가와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파랑이를 받아들인다. 파랑이는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아기물개 파랑이와 인간의 만남을 통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익히며, 파랑이를 돌보며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커다란 고무통에 물을 가득 담아 주었는데 찰방거리며 노는 모습.

손녀딸 목욕시킬 때 첨병첨병하며 물장구를 치는 모습이 떠올랐다.

천진난만한 모습에 온 가족이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집에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싶은 부모님.

함께 지내는 법과 서로 돕는 마음을 배우고 싶은 사람.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하거나 힐링이 필요한 누구나에게.

추천합니다.

「족제비」 신시아 디펠리스

증오를 넘어 삶을 붙드는 힘

홍희경

책 제목부터 신선했다. ‘족제비’라는 제목의 책이 과연 얼마나 될까? 표지 속 한 남자는 강인해 보이면서도 왠지 슬퍼 보였다. 이 남자가 족제비일까? 아니면 족제비를 잡은 사람일까? 호기심이 일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며 인정받은 책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지, 얼른 확인해보고 싶었다. 책은 1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며, 1839년 오하이오주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네이션은 동생 물리와 함께 사냥을 나간 아빠를 기다리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는다. 늦은 밤 나타난 것은 누더기에 짐승 가죽 같은 것을 걸친, 야생 동물 같은 백인 남자였다. 그는 말없이 엄마의 로켓 목걸이를 보여주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한다. 결국 아이들은 그를 따라 나서게 된다. 길 위에서 아이들은 그 남자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혀가 잘려 있었던 것이다. 네이션이 묻자, 그 짓을 한 이는 바로 족제비였다. 남자의 이름은 에즈라였다. 에즈라의 움막, 쇼니족이 ‘웨기와’라 부르는 집에는 부상당한 아빠가 누워 있었

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엄마처럼 아빠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에즈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족제비와 에즈라는 원래 정부가 보낸 인디언 토벌자였다. 그러나 에즈라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회의를 하며 그만두었고, 쇼니족 여성과 결혼했다. 그러자 족제비는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죽이고, 에즈라의 허까지 잘라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회복한 아빠에게 네이션은 족제비를 죽이자고 말한다. 하지만 아빠는 족제비를 죽인다고 달라질 건 없다며, 복수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족제비와 똑같아질 뿐이라며, 그는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게 될 거라고 말한다.

책 속 문장은 내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결국 족제비는 죽었지만, 그와 비슷한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종류의 야비함과 비탄과 슬픔이 삶에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장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세상에는 쟁기질과 씨 뿌리기, 친척과 캔자스주, 휘파람과 바이올린 연주도 있다.” 내게도 아이들, 일, 커피, 책, 음악,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이션은 말한다. 에즈라와 그의 아내, 쇼니족에게 일어난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자신이 연주하는 모든 음악 속에 자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책은 끝을 맺는다.

책장을 덮지 못한 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네이션과 에즈라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보듬어주고 싶었다. 눈물이 차올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삶은 본래 그렇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기에 힘겹지만, 결국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살아낸다. 기쁨이 슬픔보다 크고 많기에

그 힘으로 나아간다. 혹여 누군가를 증오하며 하루하루를 불태우는 이가 있다면, 이 책을 건네고 싶다. 에즈라와 네이션이 증오를 내려놓았듯, 우리도 소중한 삶을 붙들 수 있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야 왜 책 제목이 ‘에즈라’가 아니라 ‘족제비’인지 알겠다. 우리 삶에도 언제든 또 다른 ‘족제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에즈라처럼 용서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공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태수

행복한 바보

구담령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현대 사회에서 어른들이 겪는 감정과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 책은 어른들이 겪는 외로움, 스트레스, 불안, 후회 등 다양한 감정과 경험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다루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해준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어른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다룬다. 어른들이 겪는 외로움과 고독감, 어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어른들이 겪는 불안, 어른들이 겪는 후회와 자책감 등에 대해 다룬다.

이 책은 어른들이 겪는 감정과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달해준다. 어른들이 겪는 감정과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 책은 어른들이 겪는 감정과 경험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어른들이 겪는 감정과 경험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서도, 독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달해준다.

어른들이 겪는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어른들이 겪는 감정과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는 좋은 책이었다.

「채식주의자」 한강

폭력과 아름다움

손연숙

주인공 영혜가 채식주의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영혜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내면서, 인간의 본성과 욕망,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다.

영혜가 꿈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장면을 보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영혜는 가족들과의 갈등과 사회적인 편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영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해 간다. 이 책은 한강 작가의 뛰어난 문체와 깊은 사유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다. 내가 받은 감동과 생각을 다른 독자들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년이 온다」 한강

꽃이 핀 쪽으로

정미정

“소년이 온다”는 역사적인 사건과 인간의 고통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 희망과 인간의 강인함을 담아내고 있다. 여러 인물들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며, 각각의 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작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제주

정유지

4.3 사건의 비극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희생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전달한다. 이 소설은 역사적인 사건과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으로, 많은 감동을 준 작품이다.

「嫌われる勇氣(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인정욕구를 부정하자

황인하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자기계발서이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목적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목적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들러는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미움받을 용기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 이 책은 실용적인 조언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추천한다.

산책

고선화, 고종백, 구혜지, 송은비, 정은채

산책(散策)하듯 책(冊)을 이리저리 훑어
읽어보며(散) 책 속에 펼쳐진 여러 갈래의 오솔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남아있는 나날」 가즈오 이시구로

품위와 후회 사이에서

고선화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은 한때 대영제국의 위대한 집사였던 스티븐스의 회고록 형식으로 전개되는 소설이다. 1950년대 후반, 그는 미국인 대저택 주인인 패러데이 씨의 제안으로 며칠간의 여행을 떠나고, 그 여행길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소설은 겉으로 보기에 한 집사의 담담한 과거 회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품위’와 ‘후회’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깊이 탐색하는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담겨 있다.

소설은 스티븐스가 완벽한 집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과정을 냉정하면서도 집요하게 묘사한다. 그는 아버지의 임종 순간에도 하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며 자리를 지킨다. 또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도 있었던 켄턴 양의 사랑과 감정적 교류를 외면하고 오로지 업무에만 충실히 수행한다. 심지어 나치에 협력했던 주인, 달링턴 경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목격하고도 ‘위대한 집사’의 역할이라는 명분 아래 침묵을 택한다. 이 모든 순간, 그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철저히 희생하며 직업적인 자아를 완성하려 한다. 이러한 모습은 독자들에게 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동시에 선사하며, 과연 그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품위’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소설은 스티븐스의 삶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통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스티븐스는 삶의 모든 것을 바쳤던 ‘품위’가 사실은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는 완벽한 봉사를 위해 억눌렀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고, 특히 과거 동료였던 켄턴 양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을 회상하며 깊은 후회에 잠긴다. 켄턴 양이 그에게 고백했을지도 모를 감정을 외면한 채, 그는 오직 ‘위대한 집사’라는 자신의 허상에 매몰되었던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스티븐스가 한 노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이 소설의 백미이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남아있는 나날 동안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이 조언은 스티븐스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들에게 전하는 작가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삶의 끝에 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살았는지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안겨준다.

『남아있는 나날』은 화려한 사건이나 극적인 전개는 없지만, 한 인물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완벽함을 추구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현대인들에게 스티븐스의 삶은 거울과 같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이 소설은, 우리 모두의 ‘남아있는 나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규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청춘의 독서」 유시민

청춘의 나침반, 고전을 읽다.

고종백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는 단순한 독서 안내서를 넘어, 젊은 세대에게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지적 성장의 길잡이이다. 저자는 100년도 더 된 고전들을 재치 있는 필력으로 풀어내며, 독자들이 잊고 지냈던 ‘생각하는 힘’을 일깨운다. 이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하며, 고전 독서가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청춘의 독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고전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시민 작가는 책이 쓰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작가들의 삶과 사상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고전이 지닌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단순히 이념적 도그마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제시한다. 독자는 이를 통해 고전이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현실을 분석하고 통찰하는 살아있는 지혜임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독서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한다.

첫째, 비판적 사고력 함양이다. 저자는 독서가 맹목적인 지식 수용이 아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소화하고, 주체적인 사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맞설 수 있는 지적 용기로 이어진다. 둘째, 사회적 존재로서의 책임감이다. 유시민 작가는 독서가 단순히 개인의 교양을 높이는 행위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책 속에서 만난 위대한 사상가들의 고민을 통해 세상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독서는 책상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저자의 메시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청춘의 독서』는 바쁜 일상에 치여 독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지적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고전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를 친근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풀어낸 저자의 필력 덕분에 독자들은 거부감 없이 책장을 넘기며 새로운 지적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독서가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행위인지 다시금 깨닫게 한다.

결론적으로, **『청춘의 독서』**는 단순한 독서 에세이를 넘어, 독자들에게 왜 읽어야 하는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훌륭한 나침반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서가에 꽂혀 있던 오래된 고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독서가 곧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모스크바의 신사」 에이모 토울스

낭만과 품위의 시대정신

구혜지

에이모 토울스의 장편소설 『모스크바의 신사』는 1922년, 혁명 후의 러시아에서 ‘인민의 적’으로 규정되어 메트로폴 호텔에 연금된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의 이야기를 다룬다. 사형을 면한 그는 호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하지만, 절망하는 대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품위와 삶의 태도를 지켜나간다. 이 소설은 격변하는 시대의 풍랑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품위를 지키고 삶을 긍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핵심 주제는 '제약된 삶 속에서의 자유와 품위'다. 로스토프 백작에게 호텔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다. 그는 한때 지녔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잃었지만, 호텔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자신만의 우아하고 지적인 삶을 재창조한다. 호텔의 직원들과 투숙객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어린 소녀 니나와의 우정, 요리사 에밀과의 대화 등을 통해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는 호텔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오히려 그전까지는 몰랐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간다. 백작의 이러한 태도는 '외부 환경

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아름다운 서사를 담고 있다. 30여 년에 걸친 백작의 호텔 생활은 러시아의 정치적 격변과 맞물려 펼쳐진다. 혁명의 혼란, 스탈린 체제의 공포, 그리고 냉전 시대의 시작까지, 백작은 호텔 안에서 모든 역사의 변화를 목도한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시대의 비극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과 의미를 찾아내며 자신의 시간을 우아하게 채워나간다. 이 소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급변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제시한다.

『모스크바의 신사』는 가볍게 읽히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수작이다. 유려하고 재치 있는 문장, 매력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섬세한 심리 묘사는 독자들을 로스토프 백작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우리는 호텔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힌 백작을 보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일상에 쫓겨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의 삶을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한계에 갇힌 삶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로스토프 백작의 이야기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영감을 선사한다. 특히 매뉴얼과 규정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 이 책은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행복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희망」 양귀자

절망의 언저리에서 피어난 ‘희망’의 조각들

송은비

양귀자 작가의 장편소설 『희망』은 제목만으로는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1980~9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낡은 여관 ‘나성여관’이라는 공간적 제약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삼수생 ‘우연’의 시선을 통해 그려지는 가족의 해체와 시대의 비극은 독자로 하여금 과연 이 소설의 제목이 ‘희망’일 수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러나 작가는 이 모순적인 제목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희망의 진짜 의미를 묵직하게 전달한다.

『희망』은 표면적으로 우연의 성장기를 다루는 소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독재 정권에 맞서다 투옥된 형 도연, 생계를 위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누나, 이념의 상처로 현실을 외면하는 10호 할아버지, 가난이 낳은 분노에 사로잡힌 찌르레기 아저씨까지, 등장인물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는 거울과 같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존재한다. 특히 소설의 결말은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쓸쓸하

다. 나성여관은 결국 문을 닫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인물 누구도 완벽한 행복이나 안정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현된다. 작가는 희망이 거창한 성취나 성공적인 결말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희망은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태도’이자 ‘결심’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우연은 생산직 모집 전단지를 바라보며, 찌르레기 아저씨는 처음으로 ‘아비 노릇’을 꿈꾸고, 우연의 가족은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한다. 이들에게 닥친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다시금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한다. 이 작은 결심이야말로 작가가 말하는 ‘희망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희망』은 이범선의 단편 『오발탄』과 비교하며 읽어볼 만하다. 『오발탄』의 주인공 철호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방황하다 결국 방향을 잃고 비극적인 파멸을 맞는다. 그러나 『희망』의 우연은 다르다. 그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상처받지만, 좌절하는 대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고 나아간다. 『오발탄』이 방황하는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며 독자에게 시대의 아픔을 상기시킨다면, 『희망』은 그 아픔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작은 의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준다.

결국 『희망』은 독자들에게 묻는다. “희망은 결과인가, 태도인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소설은 우리에게 희망이 눈부신 성공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 다시금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매일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으로 이끌어 줄 것임을 조용히 속삭인다. 사회의 여러 어려움과 마주할 때, 이 책이 주는 묵직한 울림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불안」 알랭 드 보통

불안이라는 시대의 거울

정은채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통찰을 던지는 철학 에세이다. 이 책은 ‘불안’이라는 막연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사회적 불안’이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며, 그 원인과 해법을 서양 철학과 예술, 문학사의 거장들을 소환하여 흥미롭게 탐구한다. 독자들은 책을 읽는 내내,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근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

보통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한다. 첫째는 ‘사랑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사실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의 변형이라고 설명한다. 즉, 직업적 성취나 물질적 성공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경과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된다.

둘째는 ‘능력주의’라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다. 보

통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가 결정되는 능력주의 사회가 개인에게 심각한 불안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자신의 실패가 불운이나 계급 때문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었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실패의 책임이 오롯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며, ‘루저(loser)’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게 한다.

『불안』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 있다. 작가는 철학, 예술, 정치, 보헤미안 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답을 찾는다. 그는 철학을 통해 우리를 객관화하고, 예술을 통해 타인의 삶에 공감하며, 정치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재인식하고, 보헤미안 사상을 통해 주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조언한다. 이 모든 해결책의 핵심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위로하는 힐링 서적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사회 철학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알랭 드 보통은 유려하면서도 명료한 문장으로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며,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불안의 감정을 지적으로 해부한다. 왜 불안한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며,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 불안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궁극적으로 『불안』은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압박과 외부 시선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타인의 시선

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야말로 불안
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에 다가가는 길임을 보통은 끊임없
이 강조한다. 늘 외부의 평가와 시선에 노출될 수 있는 현대인
에게, 이 책이 주는 통찰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상상독서회

강선미, 김은숙, 이영미, 이지현

2017년부터 매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며 글을 써온
독서모임 ‘상상독서회’입니다.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보듬어 왔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등어 :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찼다」 고수리

모녀 삼대의 바다 밥상

강선미

햇살에 반짝이는 깊고 푸른 바다와 그 속에서 유영하는 듯한 고등어가 시선을 잡아끄는 표지의 책이 있다. 『고등어: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찼다』는 세미콜론의 ‘땡’ 시리즈 중 여섯 번째 책이다. ‘땡’ 시리즈는 ‘인생의 모든 ‘땡’ 하는 순간, 식탁 위에서 만나는 나만의 작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에세이 시리즈이다. 아담한 사이즈의 문고본 형태로 휴대가 간편하고, 200페이지가 안 되는 적은 분량으로 바쁜 일상에서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작가 고수리는 이전<인간극장>의 방송작가를 거쳐 2015년 브런치 프로젝트에서 금상을 받으며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를 출간한다. 이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야 만다』, 『마음 쓰는 밤』등 자신의 에세이와 『일상 생활자의 작가 되는 법』, 『요즘 사는 맛 2』, 『여행의 장면』등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엄마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는 이들과 함께 글을 쓰며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작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3대 모녀의 이야기를

바다가 만들어주는 밥상에 대한 이야기다. 해녀였던 할머니에서 엄마로 이어지는 바다내음 나는 음식들인 ‘가재미’, ‘보리토시’, ‘젓국’, ‘해물파전’, ‘미역국’, ‘가자미식해’ 등,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을 하나둘 풀어나간다. 일상적으로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주를 이루지만 ‘프리마 우유’처럼 작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나눠준다. 집밥이 가져오는 맛, 냄새, 삶의 이야기들은 독자에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소소해서 잊고 있었던 추억을 되살리게 해 준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음식을 만나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특별할 것 없는 음식이 평생 기억에 남은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어떤 음식은 손으로 만드는 위로 같다. 재료를 구하고 씻고 다듬고 만들어 전하는 수고로움과 누군가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한데 섞인 맛깔스러운 위로. 그런 음식을 입으로 넘겼을 때 나는 처음으로 미음을 먹어본 아기처럼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저 고맙습니다, 인사하며 울 것 같은 마음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세상에는 이런 음식도, 이런 위로도 있다. (p. 48)

음식이 주는 위로. 함께 하는 고마움. 작가는 입덧으로 힘들어했던 지난날, 엄마의 ‘시금치 된장국’으로 받았던 위안을 대물림하듯 임신한 아랫집 언니에게로 전해준다. 독자는 음식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기억과 위안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작가가 전해주는 소박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은 탄탄한 필력과 흡입력 있는 전개로 독자로 하여금 집밥을 떠올리게 하고, 가족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말미에 엄마에게 쓰는 편지가 읽는 이에 따라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아쉽다. 바

뿐 일상으로 집밥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음식과 함께 기억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가볍게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우리의 신념은 절대적이지 않다.

김은숙

워낙 유명한 책이지만 책표지나 내용이 선뜻 내키지 않다가 누군가의 추천으로 펼치게 되었다. 역시 책은 읽어봐야 알 수 있다. 첫인상과는 다르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에 하루만에 완독하게 되었다. 저자는 어류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인생을 통해 인생의 이유를 찾아간다. 처음에는 존경으로, 나중에는 분노로. 분류와 범주에 넘어 또다른 세상이 있음을 곱씹게 된다. 담을 넘어라. 과학과 철학에 관한 책이고 내용을 풀어나가는 표현들이 매력적이다. 저자의 표현인지 번역의 표현인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작은 풀 하나에도 귀하게 보던 데이비드는 권위있는 위치에서 변질되어 간다.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위가 정해져 있다. 질서를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까지 적용시켜 우생학을 주장하여 부적합한 사람을 분류하고, 불임시키자는 야만적인 주장까지 한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단정한 사람들을 납치하고 불임시키고, 그들의 삶을 짓밟는다.

데이비드가 정한 “어류”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비드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생물의 범주, 그가 역경의 시간

이 닥쳐올 때마다 의지했던 범주, 그가 명료히 보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범주는 결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어류”라는 범주가 이 모든 차이를 가리고 있다. 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덮어버리고, 지능을 깎아내린다. 그 범주는 가까운 사촌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잘못된 거리 감각을 만들어낸다.

아버지의 가치관 ‘세상에서 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너 좋은 대로 살아’에서 고민하다 데이비드의 삶을 연구하다 마침내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간다.

그것이 민들레 법칙이다. 어떤 사람에게 민들레는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약초 채집가에게 민들레는 약재이고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해법이다. 화가에게 민들레는 염료이며, 히피에게는 화관,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다.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벌에게는 짝짓기를 하는 침대이고, 개미에게는 광활한 후각의 아틀라스에서 한 지점이 된다.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응시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중요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지구에게, 이 사회에게, 서로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본질이라 믿는 신념, 질서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을 정의해버리면 자기기만으로 다른 진실을 못 볼 수 있다. 열린 마음, 열린 생각, 긍정적인 착각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책이 나에게 말하

고 있는 메시지다.

「베아」 이희영

《베아》를 읽고

이영미

소설은 처음부터 단군신화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곰부족을 상징하는 베아와 호랑이 부족을 상징하는 타이는 이미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복선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이희영 작가에 대해 감탄한 부분은 어느 소재 하나도 떡밥으로 회수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곳곳에 흩뿌려져 있었던 단서들이 마지막을 남겨두고는 모두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좋은 소설이란 독자들이 상황을 추론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대의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담고 있는 소설이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베아〉는 주인공의 제목이자 동시에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다. 소설의 시작은 베아와 타이 그리고 울피의 관계와 그들을 선택하거나 성장하게 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사계의 여신은 비스족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기도 하지만 비바람과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전설 속에서만 있는 것 같았던 풍요의 땅 ‘사라아’가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주변 부족 중에서 가장 약한 ‘피프족’이 죽음의 땅인 ‘케이브’를 넘어 풍요의 땅

에 도착했다는 소문과 전설이 어지럽게 휘돌아친다. 그리고 그 길을 베아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바랐다. 최선의 선택이든 최악의 선택이든 ‘모든 것은 베아가 선택한 길이자 운명’이기에 베아는 죽음의 땅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다.

청소년 성장소설은 보통 주인공의 선택으로 위기에 처하지만 스스로 그 위기를 해쳐 나가면서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이루는 이야기들로 되어있다. 그러니 이 소설은 판타지적 설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은 청소년들의 성장 서사를 드러내고 있는 성장소설이다. 어떨 땐 현실의 리얼리즘보다 환상의 세계가 조금 더 독자들을 이입시키는 경우가 있다. 현실이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다면 우리 인간은 상상의 세계로의 우회를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희영 작가의 소설은 바로 그런 점을 잘 활용하는 것 같다. 베아의 선택을 응원하는 독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독자가 베아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적 장치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베아의 여행 마지막에 칼을 물고가는 아기 곰들, 그리고 곰 장식의 칼, 그리고 빛 호랑이의 칼 무엇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소재들이 등장한다. 상상의 소재들이지만 읽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특히 케이브에 들어가자마자 베아와 타이를 공격한 구운 마늘 맛이 나는 톱 터지는 열매는 웅녀 설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이 장면이 흥미로운 소재가 될 것이다. 베아는 여행 내내 열매를 먹지만 타이는 열매를 입에도 대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소설의 결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움직이는 나무 괴물, 사람을 현혹해서 물속에서 놀자고 데려가는 인어, 가시를 뽑으면 커지는 백사,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늑대의 하울링까지 케이브에서는 모든 일이 환상처럼 펼쳐지지만 베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둠 속

을 한 벌 더 내딛는다. 그 무엇에 의해서도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는 그것의 결과가 어떻든 자기 자신에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길은 위험하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고 아무도 만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 미지의 문 앞에서 두렵고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일테지. 하지만 그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낯선 곳의 문을 여는 것뿐이었다.

베아를 이곳까지 오게 한 진짜 힘은 쿤의 후계자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었다.

실바를 떠나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p218)

비단 청소년들만의 일일까? 오히려 어른들은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낯선 곳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새로운 길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 길을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청소년 성장 서사를 좋아하는 이유다. 그들은 겁이 없다. 그래서 한 발을 더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한 발을 더 내딛는 힘은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해서도 영특해서도 아니었다.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두렵고 겁이 많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했다. 더 다양한 것에 귀를 기울인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베아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쿤의 자질을 갖춘 셈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걸까? 작가는 그렇게 독자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위대한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한명 한명은 그 자체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 누군가가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혼자 남아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베아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선택하고 그 과정이 다시 타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이다.

결국 베아는 알게 되었다. 명령을 따르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으로 달리는 것은 결국 허무함을 남길 뿐이다. 이제는 그저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 없이 친구가 필요하다. 카이와 베아가 탄과 쿤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새로운 전설은 시작된다.

「모순」 양귀자

삶은 모순을 안고 걸어가는 길

이지현

양귀자의 『모순』은 스물다섯 살 안진진의 눈으로 바라본 인생의 풍경을 그린다. 책장을 펼치면 곧바로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한 것이다”라는 문장이 맞이한다. 짧지만 단단한 이 말은, 실수와 시행착오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비춘다. 작품은 특별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상의 장면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진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온다.

가족의 모습은 작품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진진의 부모는 가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간다. 그들의 모습은 고단하지만 동시에 강인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힘을 보여준다. 반면 이모네 집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자녀들이 떠난 뒤 남겨진 공허함이 짙게 깔려 있다. 두 삶은 극명히 다르지만 결국 모순과 결핍이라는 같은 그늘을 공유한다. 진진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완벽한 삶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 대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각자의 삶은 달라도 그 속에 담긴 고단함과 애씀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사랑에 대한 묘사는 더욱 섬세하다. 진진이 경험하는 사랑은 늘 불안정하고 흔들린다. 달콤한 설렘 뒤에는 갈등과 멈춤이 따라오고, 때로는 솔직함조차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낯설게 바꾸어 놓는다. 그 순간 진진은 혼란과 아픔 속에서 자신이 믿었던 사랑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된다. 『모순』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더욱 진실하다. 그것은 꾸밈없는 인간의 얼굴이자, 우리가 매번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행에 관한 서술은 차갑지만 솔직하다. 작은 불행은 오래 마음을 붙잡아 두지만, 큰 불행 앞에서는 오히려 무릎 꿇듯 받아들이게 된다는 역설은 우리 삶의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또한 타인의 불행이 내 불행을 위로한다는 고백은 쓰라리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순된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모순』은 불행을 단순히 피해야 할 고통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불행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지 묻는다. 진진이 겪는 갈등과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길어 올리려는 태도를 배우게 한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또 하나의 길이다.

책장을 덮고 나면 마음속에 오래 남는 울림은 단순하다. 넘침이 부족이 되고, 모자람이 오히려 균형을 만든다는 것. 『모순』은 삶의 역설을 거창한 설명이나 화려한 사건 대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보여준다. 그렇기에 더 진실하게 다가온

다. 읽다 보면, 삶의 모순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에게 이 책은 무겁지 않은 위로이자,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작품이 1998년 처음 출간된 이후 25년이 넘도록 꾸준히 사랑받아 2024년에는 무려 158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모순』이 다루는 가족의 무게, 사랑의 불완전함, 불행을 대하는 태도는 세대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그 보편성과 진솔함이 이 책을 지금 읽는 이들의 마음에도 살아 있는 목소리로 남는다. 그래서 결국, 삶은 모순을 안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흔들리며 길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이 책을 기꺼이 권하고 싶다.

상상책다락

김지혜, 민서윤, 박혜진, 이수빈, 이혜원, 홍슬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동아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책 속 세계를 여행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책과 대화를 통해 웃음과 공감의 자라는 소중한
모임입니다.

「모모」 미하엘 엔데

다시 만난 아이 모모

김지혜

모모를 처음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학교 도서관에서였다. 두꺼운 책 표지 위 쓰여져 있는 두 글자 ‘모모…’ 매우 귀여운 이름이었다. 이렇게 많은 페이지 속에 어떤 재미있는 사건들이 숨어있을까 기대하며 대여해 온 기억이 있다. 하지만 ‘모모는 잘 들어주는 아이’라는 것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읽다가 재미없다고 느껴서 덮어버렸을 것 같다. 그렇게 이름 두 글자만 남아있던 모모를,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마흔이 넘어 다시 만나게 됐다. 이번에는 두꺼운 소설책이 아니라 따뜻한 그림들로 가득한 그림책으로.

두꺼운 소설책을 얇은 그림책으로 옮기면서 누락된 내용들이 많았으리라. 그래도 그렇지 개연성 없이 툭툭 끊어지는 스토리가 좀 못마땅했다. 그래도 따뜻한 그림들로 위로를 많이 받았기에 별점은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홀로 원형 극장에 살면서 제대로 된 웃도, 신발도 없는 모모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다. 모모의 특별함, 그것은 바로 들어주는 힘이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속되거나 잦다 보면 에너지를 빼앗기고 피곤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모는 언제나 잘 들어주었다. 남의 이야기를 끼어들지 않고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끝까지 진심으로 잘 듣는 것. 들어주지만 했는데도 말하는 사람의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는 힘. 정말 모모는 특별하다.

모모는 하루 종일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본인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까? 특별히 가까운 지인 지지와 베포 할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그날의 힘들을 떨쳐낼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책에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사색하는 듯한 모모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 그림은 색상도 어둡고 푸른 계열이라 자칫 우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마지막 페이지의 수많은 별들이 모모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듯한 그림은 모모는 혼자인 밤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긍정의 기운들이 충만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멘탈 관리에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모모 그림책은 시간의 소중함과 빨리빨리를 강조하며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 가볍게 보면서 마음과 머리가 쉬어갈 수 있는 그림책이다. 시간이 없어서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는 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무심결에 지나치거나 끊어버려 미뤄진 가족들의 이야기는 마음까지 멀게 할지도 모른다. 모모를 통해 가족과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아가고 싶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점에서 모모를 다시 만나게 된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너에게로 로그인」 최현주

너에게로 로그인을 읽고

민서윤

이번에 『너에게로 로그인』이라는 책을 읽었다.

처음 부분은 자살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충격적이었다. 내가 쉽게 접하기 힘든 주제라 놀랐지만, 그래서 책에 더 집중해서 읽게 됐다. 뒤로 갈수록 점점 재미있어지고, 여러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끝까지 흥미롭게 읽었다

그중에서도 나는 〈새 메일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 작품에서는 담쟁이 넝쿨에 감겨 있는 아이를 찾으려는 장면이 나온다. 보통 사람은 식물에 매달려 있다는 모습이 그저 위험해 보이기만 할 텐데, 이 책 속에서는 식물을 조정할 수 있는 아이가 등장한다는 점이 무척 신기하고 독특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책 속에서는 가능하다는 설정이 마치 판타지 같아서 더욱 재미있었다. 나는 만약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상상해 보기도 했다.

특히 마음에 남은 장면은 실종된 아이를 기다리며 노랑 달맞이

꽃을 놓아두는 모습이었다. 이 꽃의 꽃말이 “널 기다릴게”라는 뜻이라고 한다. 책 속에서 아이를 끝내 찾지 못한 것은 아쉽고 슬펐지만, 잊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을 향한 진심과 기다림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기다림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표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냥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던 표지 속에 사실은 이야기의 힌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작가가 단순히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표지에까지 의미를 담았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느꼈던 감정과는 달리 나에게서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읽고 나니 세상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책의 세상이 참 재미있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루이스 세뿔베다

날개 없는 이들이 지켜낸 날개
: 생각할 것인가, 이야기로 책을 덮을 것인가

박혜진

프롤로그

나는 아포르뚜나다.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다.

그러나 내 탄생의 기운은 행운과 거리가 멀었다.

바다는 검은 막으로 뒤덮여 있었고,

내 날개의 근원이 된 갈매기의 깃은 기름에 젖어 무거웠다.

인간이 흘린 오염은 파도를 둔하게 만들고, 그녀의 호흡을 앗아갔다.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긴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 가지 약속이었다.

“알을 먹지 말아 줘, 알을 끝까지 보살펴 줘, 그리고 나는 법을 가르쳐 줘.”

그 약속은 고양이들의 몫이 되었다.

1장. 검은 바다와 세 가지 약속

나는 고양이들의 집에서 잤다.

그들은 내게 발톱 대신 부드러움을, 장난 대신 지켜봄을 주었

다.
 날개짓을 흉내 낼 수 없는 발톱으로, 그들은 시간을 품어주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약속이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겠다는 허세가 아니다.
 불가능을 곁에 두고 끝까지 함께하는 선택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의 기록이다.
 바다에서 어미에게로, 어미에게서 고양이들에게로 이어진 약속.
 그리고 끝내는 인간에게 되돌아와야 할 질문.
 한 마리 새의 비행은 그렇게 결산된다.

2장. 고양이가 되고 싶다는 말의 숨은 뜻

나는 한때 고양이가 되고 싶었다.
 다름은 언제나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
 내 날개는 그들의 몸짓과 어긋났고, 세상의 눈빛은 나의 무력함을 비추었다.
 “나는 고양이이고 싶다”는 말은 본심의 배신이 아니었다.
 정체성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혼자가 되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름을 교정하지 않는다.
 다름을 감당할 공간을 만든다. 그것이 연대다.
 고양이들은 나를 고양이로 만들지 않았고,
 나 또한 그들을 갈매기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함께 배웠다.

3장. 나는 법 :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방식

고양이들은 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건넨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서사였

다.
반복되는 시도, 무수한 실패, 낭떠러지 앞의 침묵.
그 사이를 메운 것은 “내가 날 수 있다고 함께 믿는 시간”이었다.
다.
가르침은 지식을 옮겨주는 일이 아니다.
내 비행이 증명했다.
참된 가르침은 두려움의 경계에 함께 서 주는 일임을.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낸 건 공동체였다.
소르바스와 친구들은 내 결심을 대신하지 않았다.
나를 밀어 떼어낸 적도 없었다.
대신, 내가 스스로 몸을 던질 수 있도록
침묵과 신뢰의 발판이 되어주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취담이 아니다.
함께 있음이 혼자 됨을 돕는다는,
관계와 가르침의 문법에 관한 이야기다.

4장. 인간의 부재가 남긴 장례식

내 이야기는 환경 파괴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되었다.
검은 기름에 젖은 바다, 검게 젖은 갈매기, 사라져 간 숨결.
나는 그 장면을 간결하게,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남긴다.
인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공백이 곧 고발이다.
가해자의 부재는 책임의 소멸이 아니라,
타자에게 떠넘겨진 과부하를 의미한다.
바다를 더럽힌 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손이 남긴 계산서는 고양이들과 새가 나누어 뱉다.
내 첫 비행은 하늘을 얻는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영수증이었다.
누군가가 내어야 했던 값을 우리가 대신 치른 끝에 얻은 단
한 번의 하늘.

5장. 동화가 증언하는 윤리학

누군가는 이 책을 ‘환경 동화’라 부르고,
 누군가는 ‘약속의 이야기’라 말한다.
 나는 이 책을 공존의 윤리학 입문서라고 부르고 싶다.
 동화는 단순화의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본질만을 남기는 환원의 기술이다.
 이 이야기는 약속, 다름, 가르침, 환경 같은 난제를
 논문처럼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살아 있는 선택들로 보여준다.
 그래서 아이도 이해하고, 어른은 도망칠 수 없다.
 동화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도덕의 형이상학을 장면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에필로그. 첫 비행, 그리고 남겨진 질문

나는 이제 날 수 있다.
 그러나 내 비행이 오롯이 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듯 보이는
 순간마다,
 나는 떠올린다.
 검은 바다의 기운.
 내 날개의 근원이 된 갈매기의 무거운 깃.
 고양이들의 조용한 눈빛.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책임을 떠안은 자들의 초상이다.
 날개가 없는 존재가 날개를 믿어주고,
 바다와의 약속을 어긴 존재가 사라진 자리에서,
 다른 생명들이 서로를 부양한다.
 그러니 내 첫 비행은 승리라기보다,
 다시 시작해야 할 질문에 가깝다.

나는 하늘에서 묻는다.

너희는 인간으로서 바다와 맺은 오래된 계약을 기억하는가?

너는 누군가의 낭떠러지 앞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함께 믿어준 적이 있는가?
다름을 고쳐 쓰려 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낸 시간이 너에게도 있는가?

내 이름은 ‘행운’을 뜻한다.
그 뜻이 비로소 참이 되려면,
다음 장에서 너희가 약속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날겠다.
너희는 지키겠는가.

「그 소문 들었어?」하야시 기린

소문 때문에 망한 동물 나라,
“그 소문 들었어?”을 읽고

이수빈

내가 독서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그 소문 들었어?” 이다. 왜냐하면 우리 독서동아리에서 첫 번째로 읽은 책이고 책 표지에 큰 사자가 그려져 화려하고 강렬한 책표지가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은색 사자와 황금 사자가 살고 있는 동물 나라에 왕을 뽑는 선거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물들은 거의 은색 사자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황금 사자는 누구도 입에 올려주지 않았다. 황금 사자는 왕이 되고 싶어서 은색 사자가 하지도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 그런데 소문에 대해 은색 사자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동물들은 작은 새와 부엉이 아주머니를 빼고 모두 그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황금사자를 왕으로 뽑았다. 결국 왕은 황금 사자가 되고, 황금 사자 마음대로 해 나라가 망했고 공허한 땅이 되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황금 사자가 은색 사자를 믿고 있는 동물들에게 없는 말을 지어 나쁜 소문을 퍼트린 것이다. 아무

도 은색 사자를 믿어주지 않았다. 왜 인상 깊었냐면, 그 소문이 가짜일지도 모르는데 고작 그 작은 속삭임에 은색 사자를 못 믿어주는 동물들처럼 사람들도 가끔은 똑같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은색 사자였다면 황금 사자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녔을 것 같다. 그런데 은색 사자는 왜 폭로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첫 독서토론이었는데 열심히 PPT를 만들어준 엄마에게 감사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어 준 나랑 친구들이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책도 재미있었고 수업 내용도 재미있었다.

「그 소문 들었어?」 하야시 기린

그 소문,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그 소문 들었어?」

이혜원

하야시 기린의 ‘그 소문 들었어?’는 단순히 동물들의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는다. 이 책은 소문이 어떻게 태어나고,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작품이다. 이번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독서동아리에서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소문이 가진 힘과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책 속에서 금색 사자는 왕이 되기 위해 은색 사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금색 사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 물음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을 선택한 금색 사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다. 권력이나 이익을 앞에 두었을 때, 정직한 방법 대신 쉽게 흐르는 길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질문은 은색 사자에게 향했다. “왜 은색 사자는 거짓 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은 저마다의 생

각을 내놓았다. “억울해도 참았던 것 같다.” “혹시 반박하면 오히려 소문이 더 커질까 봐 두려웠을지도 몰라.” 은색 사자의 침묵은 단순한 무기력함이 아니라, 소문에 맞서 싸우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은색 사자가 침묵한 것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했다. 아이들은 “만약 내가 은색 사자였다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 말이 얼마나 용감하고도 소중한 다짐인지 느낄 수 있었다.

동물들의 반응 역시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왜 동물들은 소문을 그대로 믿었을까? 왜 부엉이의 말은 무시했을까?” 아이들은 이 대목에서 “다수가 말하는 것을 더 쉽게 믿는 것 같다.”,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렸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소문은 단지 퍼뜨린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책임이 함께 얹혀있다는 점을 깨닫게 했다.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잘못된 소문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였다. 아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했다. 첫째, 소문을 처음 만든 사람의 책임, 둘째, 그 소문을 다시 전한 사람의 책임, 셋째,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의 책임. 소문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토론의 마지막에서 아이들은 “소문과 사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저마다의 답을 적어보았다. 어떤 아이는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증거가 있지만, 소문은 입으로만 떠도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

도 남지만, 소문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짧지만 본질을 꿰뚫는 말들이었다.

만약 내가 이 이야기 속 한 마리의 동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나는 솔직히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소문이 퍼질 때 나도 모르게 휩쓸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지금이라면, 누군가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진실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그 소문 들었어?’는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소문과 사실, 말과 침묵, 책임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겨주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좋은 책이란 바로 이런 질문을 오래 품게 하는 책이 아닐까 싶다.

「모모」 미하엘 엔데

만나보고 싶은 모모

홍슬아

모모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바로, 일반사람들이라면 못할 사람들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주는 능력이다. 모모는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서 노는 아이들과 친해졌다. 사람들은 모모한테 말을 걸어왔다. 모모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모모를 좋아했다. 사람들은 모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마다 음식을 챙겨주고 모모한테 나누어주었다.

모모에게는 친한 친구 2명이 있었다. 한 명은 늙은 친구이고 또 한 명은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늙은 친구는 성실했고 아름다운 청년은 재치 있었다. 거리청소부 베포는 느릿느릿하게 일을 했다. 너무 앞까지 바라보면 끝이 보이지 않아 힘을 다 써 버리기 때문에 베포는 걸음 한 번 - 숨 한번 - 비질 한번 - 걸음 한번 - 숨 한번 - 비질 한번 너무 앞까지 바라보지 않고 천천히 일을 해나갔다. 또 모모의 아름다운 젊은 청년 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 또는 관광 안내원 지지로 불렸다. 지지의 성품은 유머감각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말을 아주 잘한

다. 특히 모모 앞에서는 더욱더 말을 잘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 모모는 행복했다.

첫번째 장에서 모모는 소심하고 무서운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이 책을 다 본 후 모모에 대한 인상은 바뀌었다. 모모가 불쌍할 때도 있고 부러울 때도 있다. 나라면 모모 같은 친구를 한 명은 사귀어보고 싶다. 이 책은 그림이 예뻐서 좋았고 내용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읽어도 좋은 책 같다.

소북소북

김은서, 장철, 정현옥, 최보름, 한윤희

‘소북소북’은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꾸준히 쌓여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뜻과
‘So, book!’ 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관내분실」 김초엽

영혼을 잇는 마인드 업로딩

김은서

먼 미래에 사람들은 사후 더 이상 납골당이나 묘지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기록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 소설은 시작된다.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 마인드 업로딩은 뇌의 시냅스 연결 패턴을 스캔하여 그 패턴을 마인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스캔 과정에서 원래의 뇌가 손상되므로 업로딩은 뇌사 상태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람들은 이제 도서관 접속기를 이용하면 망자의 마인드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리움의 대상이 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책을 빌려보듯 도서관으로 가 마인드 업로딩 된 고인의 의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임신 8주차인 송지민은 어머니 김은하가 죽은 지 3년 만에 어머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으나 ‘관내분실’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

마인드의 관내분실이라 함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분류 인덱스가 제거된 채 엉뚱한 자리에 꽂혀 찾기 어려워진 책과 같은 상태가 관내분실이다. 잃어버린 김은하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서는 고인이 생전에 기억하는 유품을 찾아

야 한다. 유품을 스캔하여 뉴런 세포들이 상호작용 하는 패턴을 신호로 이용하고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상호작용 하는 마인드를 다시 정렬하는 것이다.

생전에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던 지민은, 죽은 후에도 분실되어 이승과 저승 이중으로 사라진 엄마의 진실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엄마의 유품을 찾으며 알게 된 것은 단지 엄마가 서책 표지 디자이너로 일하다 임신으로 일을 중단하면서 ‘나’를 잃어가는 것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산후우울증을 겪기 시작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엄마는 평생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최소한의 흔적만을 남기며 건조하게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임신 8주 차 엄마로서 아이에게 당연한 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지민은 평생을 원망했던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결국 유품으로 데이터 복원에 성공하여 엄마의 영혼과 마주한 지민은 이미 고인이 된 엄마를 바라보며 어렵게 말을 꺼낸다. 이제 와 무슨 말로도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엄마를 이해한다고. 지민이 용기 내어 건넨 이 말은, 고인이 된 엄마 김은하의 마음에 닿아 은하의 눈가에 눈물을 맺히게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그를 다시 볼 수 없음이라 생각하며 이를 슬퍼한다.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때, “좋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죽음의 이후에는 고인이 평온하게 지냈음을 바라는 소망과 더불어 언젠가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작가의 상상력 속 미래에는 우리가 고인이 된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을 때, 하지 못한 말을 건네고 싶을 때 비슷한 형상을 한 시뮬레이션 영상 속 고인을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그마한 위안이 되었다.

평생 자신에게 따뜻한 적 없던 엄마를 원망하다 자신의 임신

으로 인해 잊고 있던 엄마를 떠올리게 되고 이해하게 된 지민을 보며 우리는 직접 겪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늘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후에 자신의 상황으로 마주해야만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고인의 생전 의식을 스캔하여 재현한 하나의 형상을 다시 보며 추억하는 것은 어쩌면 남겨진 사람들이 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미안함과 후회를 잠시 덜어주는 일 그뿐일 수 있다. 분명 세상 어딘가 도서관에 존재하고 있지만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고인을 보내주는 데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은 서로의 감정이 교류하고 의식이 통하는 현실 세계에 함께 존재할 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일 것이다. 도서관에서 마인드 업로딩 된 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다면 늘 애정 어린 눈빛과 응원으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다고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느끼면서도 늘 후회를 남기고 아쉬워한다.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며 후회 없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사과는 잘해요」 이기호

소설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료이다.

장철

이기호 작가의 소설을 몇 편 읽어보고 느낀 점인데, 이기호 작가는 쓱쓱 읽을 수 있게 써있어서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오만함 또는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기호 작가의 소설은 술자리나 카페에서 아는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해주는 내용 같은데, 계속 듣다보면 그 사람 참 힘들었겠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했지? 하는 연민을 느끼는 소설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나에게는 이기호, 성석제 김중혁 등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작가가 몇 명 더 있다.

소설을 써보고 느낀 점은 소설 쓰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쓰려고 하는 주제도 있어야 하고, 중간중간 양념처럼 쓰이는 소재들도 잘 조사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리 가공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글일 뿐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쓰고 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조차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한 권 한 권 접할 때마다 혹평의 말조차 아끼게 되었다.

「사과는 잘해요」는 약 15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 읽어

도 오래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소설이었다. 이 소설은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시설’이란 곳에 수용하며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가둬놓으며, 사람을 세뇌하는 등 순응하게끔 하는 한 시대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며, 예전에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르포 채널에서 봤던 형제복지원의 내용도 나오고, 어찌어찌하여시설에서 나오게 되고 어찌다가 “사과 대행업”이라는 신종 직업을 만들고, 사과를 하려면 죄를 지어야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웃긴 내용들이 있다. 자기를 때리게 해서 사과를 받아내는 작업으로 업무를 완료하는 모습은 슬프기까지 하다.

시설에서 하도 맞다 보니 아픔 정도는 참을 수 있으며, 많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서 몽롱하게 자신의 몸을 만드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웃기다가 중간부에는 안쓰럽다,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대하나, 나중에는 나는 저렇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냥 웃기고 넘길 소설이 아니고 다시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시사저널 느낌이라까?

비유를 통해 빙빙 돌려 쓰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약 15년 전 소설이고, 또 약 40년 전의 형제복지원 이야기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통용되는 이야기라면 소외된 자들은 계속 이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질 않네? 라는 찝찝함, 씁쓸함이 남았다.

남들은 남는 것도 없는 소설책을 읽느냐, 허구의 글이 뭐가 좋다고 읽느냐,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 등 인문학책은 나를 가꾸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데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읽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느끼는 소설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 또는 은유를 통해 권력자 또는 약탈자들의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겨놓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료이다. 묵직한 어조의 소설은 손이 잘 가지 않는다. 유쾌한 어조의 소설도 뒷맛은 씁쓸한데 굳이 묵직한 어조를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시사하는 바가 있는 소설이면 항상 좋다.
그래서 이기호, 성석제, 김중혁 작가의 소설을 나는 골라 읽는다.

「소년이 온다」 한강

아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온 소년

정현옥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주인공 소년인 중학교 3학년 동호가 싸늘한 주검이 된 그날은 계엄군이 충청작전을 개시하여 전남도청을 다시 점령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이 종결된 바로 그날이다.

충청작전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당시 신군부 수뇌부가 계엄군을 투입해 전남도청에서 항전하는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펼친 광주 재진입 작전으로 공식 작전명은 상무충청작전이다.

이 이야기는 국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계엄이라는 폭력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함으로써 국가와 군인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폭력 속에서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정대가 군인들이 쓴 총에 목숨을 잃고 그 모습을 지켜본 정대의 친구, 동호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는 전개된다. 동호는 정대의 시신을 찾아 해마다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신이 들어오고 얼굴과 형태도 분간할 수 없이 망가져 버린 시신을 보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일에 마주 닦친 시민 마음의 눈높이가 딱 중3 학생이 아니었을까 싶긴 하다. 차마 그러지 못하리라. 설마 군인이 우리를 죽이겠는가? 총을 쏘겠는가? 하는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순수함이 그러했을 것이다.

그 믿음은 바로 앞에서 죽어 버려진 친구, 동료, 이웃들의 비명과 함께 사라지고 죽은 영혼은 영혼대로 도대체 모를 의아한 표정으로, 살아 남겨진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는 온 간데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러져 나부낀 낙엽 같은 시신들의 잔상으로 세상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결전의 그날 동호는 끝까지 도청에 남는다. 그 고통을 끝내려는데 끝까지 남아서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죽음은 동호의 가족에게는 상실의 고통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 결코 잊어지지 않을 상흔을 말이다.

동호와 함께했던 그러나 살아남은 형과 누나들, 그날의 수많은 은숙과 진수는 끔찍한 고문을 받으며 살아 있다는 것을 치욕스러운 고통으로 여기거나 회복할 수 없는 무력감에 허우적거릴 것이다.

이 소설은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그 당시의 평범한 등장인물들로부터 느꼈을 고통과 아픔을 담담하게 전해 준다. 독

자로서는 너무 평범하고 지독하게 순수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잔잔하게 전해오는 고통이 상당하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12·3 계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또 한 번 심장 떨리는 아찔한 밤을 보내야만
했다.

동호와 정대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국민이 동
호와 정대의 아픔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거나 정말로 잊는다면
말이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소년과 함께 죽어간 영혼들의 시간과 그
날의 상실감으로 너무 가슴 아픈 고통속에서 기억조차 꺼내기
쉽지 않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년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네들이 겪은 죽음으로 영혼으로 삶으로
지켜낸 삶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오늘은 그네들의 죽은 시간을
거름으로 일구어낸 삶이다.

「긴긴밤」 루리

긴긴밤 나의 길동무

최보름

‘긴긴밤’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노든이라는 흰바위 코뿔소가 주인공인 동물들의 이야기이다. 노든은 코뿔소지만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신이 코끼리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한다. 노든의 말년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는 왕에 가까웠지만 노든 자신에게는 항상 붙어있는 인간들과 그의 몸을 찢러대는 바늘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달갑지 않았다. 노든이 부모도 기억하지 못한 채 코끼리 고아원에서 살게 된 건 아마 인간들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결과일 것이고 이렇게 개체가 줄어든 동물들을 인간들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아원에 데려왔지만 야생에서 살지 못하고 갇혀 살게 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동물학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지만 훌륭한 코끼리가 아닌 진정한 코뿔소가 되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떠난다. 바깥 세상에서 아내를 만나고 딸이 태어나지만, 뿔을 자르는 인간들 때문에 피하려다가 가족이 죽게 되고 혼자 남아 인간들에게 구조되어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흰바위코뿔소, 노든’으

로 살게 된다. 이때부터 악몽과 두려움으로 잠들지 못하는 긴 긴밤이 시작된다.

이 책은 동물들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이야기와 같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한다. 노든도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다. 코끼리 고아원에서 계속 살았다면 겪지 않았을 사랑하는 가족과의 끔찍한 이별... 하지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과의 행복한 순간들도 영원히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든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동물원에 불이나 노든은 동물원은 탈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양동이에 버려진 펭귄 알을 담고 가는 치쿠라는 펭귄을 만난다. 치쿠는 죽고 알에서 부화한 이름없는 펭귄과 함께 바다로 나아간다. 서로 의지하며 긴긴밤을 보내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어느 날 밤, 이름없는 펭귄은 오늘이 노든과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서로의 눈으로 그것을 말한다. 이름없는 펭귄을 노든을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한다. 그 뒷모습을 저멀리 사라질때까지 노든은 바라본다. 이름없는 펭귄은 수백 번 넘어지고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시도 끝에 절벽 꼭대기에 올라선다. 온 세상이 파란색이었다. 이름없는 펭귄은 두려웠지만 곧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홀로 수많은 긴긴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동물들이 불행해졌지만,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고 희생하면서 인생의 희망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 내가 긴긴밤에 갇혀 있었다고 날 세상 밖으로 꺼내줄 그 누군가가 인생에 있다. 이 책은 동물들의 만남과 이별,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그것이 나를, 우리를 살게 한다. 그 고통 속에 나를 살게 한 건 그래도 내 옆의 친구였다.

「노랜드」 천선란

서늘한 SF 이야기 속 따뜻한 위로

한윤희

평소 과학에 흥미있던 나는 단순 SF소설인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골랐다. 이 소설은 지구의 미래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총 10편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 〈제, 재〉란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제와 재는 등장인물의 이름이고 이 둘은 다른 사람처럼 보여도 같은 사람이다. 한 몸을 공유하는 다른 인격체다. 일종의 이중인격이라고 보면 된다. '재'는 세상을 바꿀 천재로 주목받는다. '제'는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둘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고, 쪽지를 통해 소통한다. 이 불안정한 동거는 파국을 앞두고 있다. '한 사람만 온전히 존재하는 게 가능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다. 이야기는 두 개의 인격이 몸을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면서 흥미로워진다. 특히 서술 시점이 '제'라서 더 재미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한 갈등뿐만 아니라 '재'라는 천재가 인류를 위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고뇌도 더해야 한다. 또한 그의 다정한 성격 때문에 재'를 존중하고 좋아한다. 종국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해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완전히 집중하고 공감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빌드업과 긴 호

흡을 통한 소통이 필요한 내가 단편 소설집을 읽으면서 내리 울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말 그대로 내내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아름다워서, 그리워서. 이 책은 슬픈 책이 아니다. SF도 아니다. SF를 내걸은 그 어떤 책보다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이야기 하고있는 책이다. 나에게 책은 그저 회피수단일 뿐이라서 어떤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왜 꼭 책을 통해 뭔가를 느끼거나 생각해야만 하는거냐고 대답하곤 했는데 책을 통해 무언가를 꼭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영화나 드라마의 메이킹 필름을 좋아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책에서는 작가의 말을 보는 것도 좋아한다. 단순히 어떤 의도로 글을 쓰고 독자가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 세계를 창조한 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이다. 세계라는 무대의 뒤편을 살짝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좋아한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유 없이 살아가자는 말을 너무 길게 한 것 같다.”고 한다. 우울과 불안과 걱정과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생각하며 결국 글로 빚어놓고 내린 결론이 이유 없이 살아가자는 것이었다니. 정말 외당은 부분이었다.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떠나보낼 예정인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한 나머지 그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던 시절은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나이를 조금 먹어서 그런지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의 슬픈 소식이나 슬펐던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나는 정말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들어 내 서사가 가장 중요하고 슬프고 애트해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사람들 다 조금씩 슬픈 구석은 있구나 싶어진다. 그렇다고 남의 슬픔으로 내가 자기위로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세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친구들이랑 했던 이야기지만 어렸을 때는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제일 특별한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학생¹ 지나가는 사람¹ 정도의 납작한 단역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단역들도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었다. 그들도 나처럼 똑같은 시간을 고민하고 슬퍼하며 성장해왔고 그걸 알고 보니 더이상 그 사람들이 단역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들 자기만의 서사를 가진 주인공이었던 거다. 그래서 살아가다 조금은 허무하고 짜증나다가도 거기에서 또 위로를 받기도 했다. 이제 나의 인생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에포케

김민영, 김연우, 김은비, 김지윤, 박리안, 안서연,
안승미, 이기석

“에포케”는 고대 그리스 회의자들의
‘판단 중지’ 개념에서 비롯되어,
기존의 편견, 관점과 습관을 내려놓고
재해석하려는 태도를 지향합니다.
에포케는 책 읽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기르고,
디지털 시대에 깊이 있는 성찰을 실천하고자 하며,
나아가 독서를 철학적 토론으로 확장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독서를 지향합니다.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나를 숨 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김민영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닌, 삶을 향한 섬세한 시선과 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건 19살 겨울, 입시가 끝난 직후였고, 막 20대의 문턱에 들어서며 나의 감정과 정체성, 그리고 관계에 대해 복잡한 질문들을 품고 있던 시기였다. 혼란스럽고 막막했던 마음을 이끌고 천천히 책장을 넘길수록, 김이나 작가의 문장 하나하나가 얹힌 실타래를 차분히 풀어주는 듯했다.

책은 언어를 ‘내용’이 아닌 ‘액자’로 비유하며,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주파수가 맞으려면 박자를 맞춰가야 해”라는 문장은 나로 하여금 관계에 있어 억지로 맞추려 했던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했고, ‘좋다’는 감정의 소중함을 설명한 구절은 내가 일상 속에서 놓치고 살았던 순간의 감정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했다. 또한 ‘배려’란 단어 속에 담긴 관찰의 미학, ‘자존감’의 회복탄력성을 근육에 비유한 표현은 내 삶의 태도에도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닌 ‘보통의 언어들’로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말과 감정, 관계에 대한 시선을 다정하게 정돈해준다. 읽는 내내 스스로를 쓰다듬고, 과거를 다독이고, 미래를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깨달았다. 모든 복잡한 의문과 고민은 때로는 아주 간단한 언어 하나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마치 얽힌 마음을 가위처럼 싹둑 자르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도구 같았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고 단단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존감 수업」 윤희균

자존감 수업을 통한 삶의 변화

김연우

1. 처음 만난 자존감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내가 스무 살 때였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학에 입학했지만, 나는 입시에 실패해 좌절감을 느끼던 시기였다. 외모나 정신적으로도 미숙하다고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어느 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된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해 구입하게 되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 책이다.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지를 따뜻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었다.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 더 큰 위안을 받았다.

SNS가 발달하면서 비교와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 등이 일상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책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2. 나를 먼저 사랑하는 연습

무엇보다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스스로에게 애정을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그동안 수고 많았어"라고 나 자신에게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남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다.

또한 결과보다 과정에 몰입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평가는 나중의 일이고, 과정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몰입이 시작되는 말이 인상 깊었다.

3. 한국 사회 속 불안과 기준

책 속 내용이 더 와닿았던 이유 중 하나는, 재수생, 계약직 인턴, 취업 준비생 등 나 역시 겪어본 사회적 위치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인서울 4년제를 나와야 한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 “연봉은 1억이 넘어야 성공이다” 같은 기준이 뚜렷하다.

누군가는 “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나는 오히려 현실에서 더 크게 체감되는 문제라고 느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던 말들이 어느 순간 내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더더욱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4. 나의 정체성과 선택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 친구 관계에서의 나는 모두 다르다. 직장이 곧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책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삶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결정하는 것도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 내가 결정

할 수 있는 범위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결정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크게 공감했다.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결정이 큰 행운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보다, 그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을 이 책이 말해주고 있었다.

5. 인간관계의 거리두기

인간관계에 대해 책이 전하는 조언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리감이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거나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빨리 놓아주는 게 낫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가까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경을 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면 나 역시 밀려나게 되고, 남을 공격하면 내 마음도 그만큼 데미지를 입는다. 또, 좋은 인간관계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니,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과 억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건 내려놔도 괜찮다. 관계에 대한 압박보다 그 시간에 나를 쉬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6. 무기력할 때 필요한 행동

삶에서는 승진 실패, 취업 탈락, 연애 실패 등 여러 시련을 겪게 된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지곤 한다. 이 책은 그런 상황에서 일단 폭 쉬는 것도 괜찮고, 그래도 힘들다면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보자고 조언한다.

걷기, 손 털기, 고개 까딱하기처럼 단순한 행동으로 시작해보자는 말은, 작은 실천이 결국 변화를 만든다는 중요한 메시지

를 전한다. 마라톤을 뛰고 싶다면 일단 동네 한 바퀴부터 걷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7. 열등감을 다루는 방법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열등감을 없애려면 세상을 우열로 나누는 시선부터 바뀌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나 사물을 더 나은 것, 더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장자나 노자처럼 시니컬한 자세로, 천천히 심호흡하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라는 주문을 외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진다.

8.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

마지막으로 이 책은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은 나에게 말해준다.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자.

당신은 밀림의 왕이다. 세상의 이중심다.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회복탄력성」 김주환

사소한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회복탄력성

김지윤

처음에 책 제목인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해 궁금해하며 책을 시작했다. 그리고 책을 펼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탄력성의 정의란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라는 부분을 읽고 궁금증을 해소하며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며 전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무엇인지, 회복탄력성의 요소는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까지 제시하여 실제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는 실제로 회복탄력성 지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낮게 나오는 것을 보며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책을 읽게 되었다.

이어서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책 1장의 회복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례에서 ‘에이미 멀린스’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이전에 에이미 멀린스의 테드 강의를 본 적이 있었고, 본인의 장애(두 다리 모두 의족인 것으로

알고 있다)를 단순히 극복하는 느낌이 아니라 장점으로 이야기 하는 듯해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있는데, 에이미 멀린스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높은 회복탄력성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런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지닐 수 있을까 궁금했으며 높은 회복탄력성을 지닌 그녀가 부럽기도 했다.

책에는 또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스토리텔링의 결과로서 감정이 유발된다.”

이 부분에 사실 공감이 많이 갔는데, 항상 사건 자체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동안 이러한 태도 때문에 낮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정확히 깨달은 기분이었다. 또한 결국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마지막 부분에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다. 바로 ‘감사하기’와 ‘운동’ 이었다. 단순히 감사와 운동이 좋다는 내용이 아닌, 신경심장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효과를 보며 이전에 하고 있지 않던 ‘감사하기’ 훈련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독서모임을 진행하기 한 주 전부터 시작했는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애써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할 거리를 지속적으로 찾다 보니 이전에는 불평불만을 하였을 상황에서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감사하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자책하고,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함께, 회복탄력성을 높여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빛이 이끄는 곳으로」 백희성

기억의 공간

박리안

주인공 뤼미에르는 파리에서 집을 구하다 시내에 있는 오래된 집을 발견하고 집주인의 테스트를 받는다. 작품 속에서 뤼미에르는 요양병원과 저택 등 건축물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직접 답을 찾아가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뤼미에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소설 중간중간 삽입된 평면도도 덕분에 공간을 이해하기 좋았으나 색채나 구조 등 세부적인 건축 묘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건축 지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고 감탄하며 공감할 수 있었을까?

“집은 그렇다. 잠시 자신의 생을 사는 동안 빌려 쓰는 공간이다.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건축가가 조금 부족한 공간을 만들면 그곳에 사는 사람이 나머지를 추억과 사랑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건축이 완성됩니다.”

“아버지는 어린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네요. 바니시 칠이 마르기 전에 소중한 것을 놓아두면 책상이 그걸 평생 기억해 준다고요.”

이 책은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건축물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요양 병원은 고요함과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것, 설계를 통해 빛이 들어와 따스함을 주는 것을 통해 자연을 배려하고 어우러지며 공존하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저택에서는 촉각이나 후각을 통해 단서를 얻고 답을 찾을 때 시각의 지배에 가려져있던 청각과 후각의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집에 기억을 심어놓고 구조와 디자인 등이 현재의 나를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 감동적이었다. 건축물들을 구조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이 있는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다.

책을 읽으며 이제는 단순히 건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자연환경과 함께 건물을 느끼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다. 작가 소개에서 ‘기억은 사람의 본질이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 기억이 공간과 만나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기억으로 인해 소중한고 특별해지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힘을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다. 문득 나에게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건축가도, 부자도 아닌 나는 새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존재하는 공간들에 내 기억을 채워 넣으며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추억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나만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사진을 보고 과거를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말이다.

「모순」 양귀자

우리는 모순과 함께 살아간다

안서연

책에 담긴 내용처럼 「모순」은 주인공 안진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순적인 상황들을 보여준다. 작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내면은 모순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제목을 모순으로 지은 까닭을 언급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모순투성이다.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 고민의 순간들을 누구나 겪어보았을 것이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따로 행동하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삶의 많고 많은 모순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주인공인 안진진은 하루아침 문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생애를 다 걸겠다고 다짐한다. 안진진은 어머니, 동생 진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집을 떠나 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다. 엄마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한 명 있다. 이모는 어머니와 너무 닮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혼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 안진진은 본인의 인생을 “결혼”이라는 선택으로 바꾸고자 한다. 너무 다른 두 남자 김장우와 나영규 사이에서

안진진은 고민한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부득불 해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아껴서 좋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아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 교육받으면서도 말을 아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들곤 한다. 이 지점도 참 모순적일 수 있겠다. 내 입은 종종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럼, 언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며, 또 언제 말을 아껴야 하는 것일까? 문득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장면이 생각났다. 드라마에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헤어진 연인이 나온다. 시청자로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했다. 이렇듯 말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인데, 살아가면서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생겨난다. 또 말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아마 우리는 계속하여 고민하고 말하며 살아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잊을 수 없는 것들은 언제나 뒤에 남겨져 있었다. 그래서, 과거를 버릴 수 없는 것인지도.”

과거에 얽매인 삶은 좋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과거를 생각하며 살지 않을까? 과거를 살지 말고, 현재를 살라는 말은 사실 큰 모순인 것이다.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사는 것이다. 과거를 생각하며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한다. 그렇게 나는 성장하여 더 나은 오늘을 산다. 그리고 그런 오늘은 또 과거가 되어 곧 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니 우리 삶에 많은 모순점들이 보인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도 다시 보면 아닐 때가 있고,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순간들도 온다. 그 모순에도 우리는
안진진처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다. 모순점들이 많으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선택에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점이다. 안진진도 우리도 각자의 정답을 만들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모순」 양귀자

결국엔 모순적인 우리의 삶

안승미

나는 주인공 안진진과 비슷한 나잇대이며, 동일한 성씨를 가졌다. 그래서 그런지 안진진의 말에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이십대란 나이는 무언가에게 사로잡히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대다. 그것이 사랑이든, 일이든 하나씩은 필히 사로잡힐 수 있어야 인생의 부피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무럭무럭 커왔지만, 유난히 스물 한 살 부터 스물 세 살 까지 급성장했다. 좋아한다고 믿어왔던 것이 아닌 게 되고, 예전 같았으면 싫어했을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며 나는 나를 탐구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시간이 가장 재밌다.

안진진은 그간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이제는 되는데로가 아니라 탐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한다. 이 장면을 보며 작년의 내가 떠올랐다.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나는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내가 좋아하는 패션도, 색깔도, 사랑의 모양도, 음악도... 결국 나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애써야 진정으로 내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책에서 진진은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니, 내가 아는 착한 애들은 모두 바보였다. 그 당시 나는 단지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뒷부분에서 김장우가 진진을 착한 안진진이라고 부를 때마다 어쩐지 착해지고 싶은 기분에 휩싸였다고 고백한다. 바보가 되고 싶지 않은 안진진을 착해지고 싶게 만드는 김장우는 어떤 힘을 가진 걸까 생각하게 됐다. 결국 진진이는 결국 바보가 되지 않는 걸 선택했지만, 진진이는 바보다... 결혼이 수단이 아닌 과정이라 생각하는 난 그렇게 봤다.

나영규는 모든걸 계획하는 남자다. 진진은 그런 것들에 피로함을 느꼈지만 딱히 정정하지는 않는다. 근데 난 보는 내내 이런 것들이 참 숨막혔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이 답답했다. 인생이란 건 늘 변수의 연속인데, 나영규는 변수가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사람이다. 도대체 그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단 말인가....

책 내내 진진은 김장우와 나영규 사이에서 누구와 결혼할지 고민한다. 김장우는 자유롭고, 몽상가지만 진진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고 나영규는 진진의 의견보다 계획을 중시하지만 진진보다 훨씬 집안이 좋은 남자다. 인생이라는 건 이렇듯 이게 좋으면 저게 별로인, 비등비등한 선택지 중에 고민하는 일의 연속이다. 사랑도 그런건가. 최선의 사랑은 없는 것일까?

진진의 엄마는 이모의 삶을 부러워했다. 물론 그 방향은 늘 화를 내거나, 비꼬는 식으로 전개됐지만 아무튼 그랬다. 인생이 모순적인 이유는 이모가 엄마의 삶을 부러워했다는 것에 있다. 마지막에 이모는 사는 것처럼 사는 엄마처럼 살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결국 정답이란 없는 건데도 우린 늘 정답에서 멀어질까봐 초조해한다. 이모는 나영규 같은 사람을 만나 지루한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이 싫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진진은 그런 삶마저 직접 겪어보고 싶었는지 나영규를 택한다.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을 거라 판단했나보다. 아마 결과만 봤다면 진진을 욕했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하지만 책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어쨌거나 진진의 삶이다. 다양한 이유가 모여 나영규를 선택했을 것이다.

결국 인생은 모순적이다. 누구도 그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생의 다양한 모순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 작품이었다. 나는 그 수많은 모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설국」가와바타 야스나리

눈 같은 사랑

이기석

‘현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자, 설국이었다’
책을 펼치면, 희고 넓은 저 너머의 세계가 그려진다. 눈으로 뒤덮여 어떤 색깔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설국은 우리의 회색빛 도시와 대비되는 무색의 순수한 공간이다. 시마무라는 순수한 그곳에 닿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폭설을 뚫으며 터널을 지난다. 그렇게 그가 겨우 도착해 찾는 것은 게이샤 고마코. 흰 도자기에 연분홍 빛을 입힌 듯한 살갗을 지닌 설국과 같은 여인이다. 그의 눈에 고마코는 너무나도 맑고 깨끗했다. 여타 손님처럼 접대를 원하지 않고 단지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고마코는 점차 시마무라를 사랑한다. 설국의 여인답게 순수하게 사랑을 속삭인다. 시마무라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 손바닥에 써보겠다며 그의 이름을 적는가 한편, 시마무라를 다시 만났을 때는 기다린 날짜가 199일째임을 알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유부남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살아간다. 그런 맥락에서 시마무라는 정략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크

다. 부양할 가정이 있음에도 빈번한 직장 없이 상속한 유산으로 여행을 다닐 정도면 그의 부모는 꽤 큰 재력가였으며, 당대(쇼와 시대) 시대상에 따라 연애 결혼이 힘들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의 가정은 부모의 선택에 의해 탄생한 비자발적 생활상에 불과했고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시마무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가정, 가식적인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고 그렇게 탈출하듯 몸을 이끌었던 곳이 무색의 순수한 공간 설국이다. 도쿄로부터 수백km 떨어진 곳을 향해 기차를 타고 폭설을 뚫으며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마무라에게 고마코는 가정, 도시로부터의 탈출구다. 고마코에게 이끌린 이유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맑고 깨끗함이었다. 그 증빙이다. 그렇기에 시마무라는 고마코를 향한 사랑이 지속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설국은 도시와 다른 이분법적인 세계였고 그는 도시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걸 잘 알았기에 한낱 감정에 흔들리는 역사 같은 자신이 싫었고 때가 되면 항상 자연의 섭리로 같은 자리에 되돌아오는 굳건한 은하수가 되고 싶었다. 고마코를 향한 감정이 덧없음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은연중에 느꼈을 것이다.

설국을 향한 동경을 지닌 시마무라였기에 고마코와 동시에 요코에게도 묘한 매력을 느꼈다. 기차 안에서 병들고 나약한 남성을 돌보는 그녀를 ‘어머니’처럼 여겨봤었고, 순수한 모성애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결국 시마무라는 고마코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다. 고마코라는 인간이 아닌, 설국의 순수한 여인을 사랑한 것이다. 고마코를 도쿄에서 만났더라면 사랑에 빠졌을까? 그저 설국이 만들어 낸, 눈처럼 훑날리는 사랑이었다.

일상 그리고 독서

민윤정, 신현경, 이서연, 이을선, 이혜명

아이들과 책을 좋아하는 공통점으로
독서지도사 수업에서 만난 후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들고
우리끼리의 모임을 하던 중
신트리 도서관 사업에 참여해 보자고 했는데
의견이 맞아서 2년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독서 모임에 대한 역량 강화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동아리들의 새 책을 만나는 시간이
제일 설레는 순간이면서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는 뿌듯한 순간입니다.
내년에도 함께 해주세요^^

「1984」 조지 오웰

1984를 읽고

민윤정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으면서 저는 마치 거대한 회색의 벽 속에 갇혀 숨을 쉬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언젠든 우리 현실이 닿을 수도 있는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특히 빅브라더의 얼굴이 모든 공간에서 내려다보고, 사람들의 일상과 사상조차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장면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신어를 끊임없이 만들고 이중적 사고를 강요받고, 텔레스크린으로 감시받고, 증오의 시간을 갖는 등 이런 내용 속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설 속 세계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마주하는 감시 기술, 빅데이터, 그리고 여론 조작 같은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책 속 이야기와 현실의 그림자가 맞닿는 순간마다, 저는 이 소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날카로운 거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오래 붙잡은 것은 주인공 윈스턴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체제에 완전히 길들여지지 못한, 작은 불씨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 작은 불씨조차 결국 권력 앞에서 꺼져버립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줄리아와의 사랑을 찾고, 진실을 기억하려 애쓰던 그의 노력은 처참히 짓밟히고, 끝내 그는 체제를 사랑하도록 길들여집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며 씁쓸함을 넘어선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꺾이는 존재일까. 혹은 나 자신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다르지 않을까. 윈스턴의 패배는 단지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독자인 저에게도 직접적인 질문이자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단순히 절망만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984를 통해 저는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쉽게 지워지고 다시 쓰일 수 있으며, 언어나마저도 사고를 제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록을 지키고, 언어를 풍성하게 쓰며,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책장을 덮고 나서도 오랫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야말로 1984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학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지켜가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니다.

저에게 1984는 무거운 공포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경각심”이라는 값진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일상의 작은 자유마저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숨결 같은 자유는 늘 지켜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상 속의 자유, 평범하게 대화하고 기록할 수 있는 권리,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저에게 1984는 차갑고 잔인한 디스토피아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자유와 인간다움의 가치를 더 따뜻하게 껴안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오랫동안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신현경

한강 작가는 2024년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다. 대중적인 재미와 거리가 먼, 인체를 주제로 한 불편하고 파격적인 소설을 쓰는데 대표작으로는 <내 여자의 열매>와 이상문학상 수상작 <몽고반점>이 있다. <아기 부처>는 한강의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에 수록된 중편 소설이며, <몽고반점>은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다.

인물의 독백 등 심리적으로 중요(차후의 복선이나 전하려는 메시지)하거나 시적인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현한다.

4·3 사건에 대한 경하가 새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4·3 사건을 결정, 실, 폭설, 새, 남은 빛, 나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친구 인선이 부탁으로 제주도에 새를 돌보러 가는 데 폭설이 쏟아지면서 제주 4·3 사건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인선이 엄마의 혈육들이 눈과 함께 묻어 지면서 혈육을 찾는 장면에서 녹지 않는 그 눈송이들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한

다.

온다.

떨어진다.

날린다.

흩뿌리다.

내린다.

퍼붓는다.

몰아친다.

쌓인다.

덮는다.

모두 지운다.

책 뒷면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다.

폭력에 육체가 훼손되고 공포에 짓눌려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다. 작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딸의 눈과 입을 통해 전해진다. 폭력은 육체의 절멸을 기도하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 있게 할 수는 있다.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글과 회화적으로 글을 써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글이다. 시점이 왔다 갔다 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읽어야 했다.

이 책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힘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복잡할 수 있지만, 작가가 단어 하나조차 홀로 쓰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들이 많아서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어야 하므로 읽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책이다.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나의 체리 새우 : 사춘기 시절 나와 마주하다.

이서연

〈체리 새우: 비밀글입니다〉는 제9회 문학 동네 청소년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중학생 여자아이의 심리를 다룬 청소년 소설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나 또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 아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작은 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생물 중에 체리새우인지 궁금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시기, 그리고 가장 예민하기도 한 사춘기 아이들의 생각과 고민을 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 시기는 지났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에 대해 고민이 있는 분들께 관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작가는 풍부한 상상력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독자를 몰입시키며, 등장인물들의 삶과 사연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엔 한때는 평범했던 일상이 어느 순

간 일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인물들의 내면 풍경이 자리합니다. 제목인 ‘체리새우’는 단순한 음식 이름이 아닌, 삶의 미묘한 아름다움과 애환을 상징하며, 독자가 작품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긴 이야기가 주는 깊이와 여운이 깊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가슴 한편이 축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과 사랑, 성찰을 섬세하게 풀어낸 이 작품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특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성장통을 겪는 주인공 은유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나’라는 존재의 중요성: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기

주인공 은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착한 아이’가 되려 노력합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부모님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숨기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관계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억지로 꾸민 모습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2. 관계의 재정의: 나에게 맞는 관계를 찾아가기

은유는 ‘체리새우’라는 비밀 그룹을 만들며 그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친구들과 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유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진정한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상처와 성장의 이중주: 단단해지는 법 배우기

소설은 은유가 친구 관계에서 겪는 갈등, 소외감, 배신 등 다양한 상처를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이 상처들은 은유를 괴롭게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통해 은유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돌아보며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이처럼 작가는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더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십 대 시절 겪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독자들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은 누구에게도 지나간 시절이 되고 누구에게도 현재가 되겠지만 삶의 용기를 똑같이 얻을 수 있는 책임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주인공 은유를 통해 나의 사춘기 시절을 마주했고 가슴 아팠고 따뜻했고 관계에 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이혜명

호밀밭의 파수꾼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6세 소년 홀든 콜필드가 퇴학당한 후 방황하는 2박 3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들 명문학교라고 하지만 홀든이 바라본 학교는 위선과 가식의 덩어리로 보였고 그래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성실하지 못한 생활로 퇴학을 당하고 기숙사에서 나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뉴욕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호텔, 술집, 박물관, 옛 친구와 선생님들을 만나는 과정과 사건들이 홀든의 시점에서 그려진다.

어른의 시점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센트럴파크의 오리를 걱정하는 질문을 하는 순수함도 있다.

청소년기에는 모든 일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읽다보면 홀든의 불안한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위선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도 같다. 어설프지만 따라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

하면서도 한편으로 순수함을 지키고 싶어하는 시기인 것 같다.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홀든은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주위에 어른은 나밖에 없고 나는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는 사람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 어른이 되면 가식과 위선의 세계에서 살게 되지만 아이들만 있는 세계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가출을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홀든이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에 대한 마음으로 가족의 곁에 남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불안을 잠재우는 건 누군가의 진심과 사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지적하고 틀 안에 있지 않다고 틀리다고 말하면서 대답을 요구하고 가르치는 어른이 아닌 진심을 알아 주고 마음을 함께 해주는 동생이 있기에 홀든은 마음에 작은 위안을 얻는다.

하지만 끝까지 평온하고 정리되는 느낌은 없는 것 같다. 홀든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책 읽는 도깨비

「소리 질러 운동장」 진형민

막야구부의 시작

강수지

야구부에서 쫓겨난 김동해와 여자라는 이유로 야구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희주, 이 두 사람은 같이 ‘막 야구부’라는 이름의 야구부를 만들었다. 멋진 글러브와 제대로 된 방망이도 없지만 막야구부의 아이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막야구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이를 하는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학교 야구부 감독님이 작전을 시작해 아이들은 인원 수 만큼만 운동장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열아홉 조각(운동장)에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운동장 조각을 빌린다. 그렇게 잘 노는데 학교 야구부 감독님이 대결을 신청한다. 하지만 이 대결은 7대 7로 무승부로 끝나고 모든 것이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 책 중에서 재미있던 부분은 막야구부를 만드는 과정과 원래 있던 야구부와 막야구부 간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 부분이었다.

「거절은 너무 어려워」 윤미경

싹이 난 감자는 나쁜 감자가 아니야.

강연우

싹이 난 우등 감자가 엄마가 문을 열었다. 그래서 우등 감자는 놀라서 싹을 수건으로 가렸다. 싹은 나쁜 감자한테만 나는 것이라 우등 감자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나가자 우등 감자는 밴드로 또 싹을 가렸다. 엄마는 우등 감자에게 엄마가 일이 있으니 우등 감자가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라고 했다. 그리고 또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 곧 온다고 했다. 우등 감자는 엄마가 그럼 나는 언제 놀아요? 라고 물을 뻔했다. 우등 감자는 어른 말씀을 잘 듣는 착하고 거절 못하는 감자이지 나쁜 감자가 아닌데 싹이 났다는 이유로 말도 못하는 소심한 감자이다.

「5번 레인」 은소홀

「5번 레인」을 읽고...

박서준

5번 레인을 읽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처음에 나루가 대통령배 수영대회에서 초희한테 진 뒤로 초희를 질투해서 결국 한강초와 푸른초가 같이 훈련할 때 초희의 수영복을 훔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푸른초에 가서 수영복을 돌려주고 다음 날 나루의 남친인 태양이가 준 부적으로 대통령배 수영대회를 예선 1위로 통과하고 초희랑 본선에서 붙었는데 나루가 저서 초희가 용서해 주는 내용이다.

이 책을 읽고 난 생각은 나루처럼 열심히 해도 초희처럼 타고 난 아이들은 못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은 나루같은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이유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된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할 수 있다.

얼떨똥똥 고구마 머리 TV 2권, 서동권

얼렁뚱땅 고구마 머리 2권을 읽고

이다현

고구마 머리가 갑자기 궁금증으로 우주로 떠나게 된다. 고구마 머리가 우주선에 탔는데, 왜 내가 탔는지 이유를 까먹게 된다. 집에 가긴 가는데 헤롱헤롱 돌아온다. 그 내용이 재미있었다.

궁금점이 많고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금복이 이야기, 공삼

금복이이야기6 읽고...

이승은

이 책의 줄거리는 금복이의 정체를 안 의균이는 금복이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더 잘 돌봐 주던 어느날 의균이가 아프기 시작해 죽을 때 쯤 금복이는 낮에는 고양이 밤에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 주로 밤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 한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된 후 금복이는 자신의 사람 목숨을 의균이에게 주고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의균이는 말끔히 나왔지만 금복이는 의균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망 다니다 피 투성이가 되어 발견돼서 의균이가 치료해주고 금복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어서 둘은 행복하게 지내게 된다. 나도 금복이와 의균이처럼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만 알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 친구들과 더 어울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정을 많이 쌓아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이다.

책GPT

박동섭, 황희정, 김아영, 김생일, 이용순, 윤귀형,
김은정, 엄창호

“책GPT”는 책을 사랑하는 성인 8명이 모여 탄생한
독서동아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을 통해 지식을
생성(Generate)하고, 생산적(Productive)으로
활용하며, 깊이 있는 사고(Thoughtful)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시각으로
책을 탐구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여덟 단어」 박웅현

현재와 소통, 내 삶의 변화를 위한 단어들

김생일

박웅현의 「여덟 단어」에서 다루고 있는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하나 모두 깊이 와닿았다. 그중 특히 ‘현재’라는 단어는 내가 요즘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가 늘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거에 얽매어 있을 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일깨워준다. 현재의 소중함을 잃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흐릿해질 뿐이라는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뿐이며,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은 일상 속에서 자주 잊고 지내는 중요한 진리다.

또한, 책에서 강조된 소통의 중요성도 내게 많은 반성을 안겨주었다. 특히 박웅현은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을 말하며,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뀔 수 있음을 설명한다. ‘소통’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소통 방식 차이에 대한 설명은 내가 그동안 무시코 지나쳤던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남성은 종종 문제 해결을 중심

으로 대화하려 하고, 여성은 감정적 공감과 공유를 원한다는 점에서, 내가 얼마나 소통을 소홀히 해왔는지 자각하게 되었다. 남자로서 사실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공감하는 방식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서, 앞으로는 말 한마디에도 더 많은 마음을 담고자 한다. 이 책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내가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준다.

「여덟 단어」는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일상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이 책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깊이를 느끼며, 나 자신과 더 나은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공부」 최광현

가족 공부, 사랑과 존중을 위한 첫걸음

김아영

최광현의 「가족공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던지는 책이다. 책을 읽으며 ‘모든 상처는 가족에서 태어난다’는 문장이 마음 깊숙이 다가왔다. 가족은 사랑의 공간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아프게 느껴졌다.

저자는 소통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말한다. 특히 부부 사이의 오해, 자녀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선 먼저 내가 어떤 자세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보다는 ‘왜 이렇게 느꼈을까?’를 묻는 것이 진짜 대화의 시작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말에서 이 단순한 진실이 가족 갈등의 해답이자 출발점임을 느끼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일 것이다.

책 속의 “가족의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말처럼, 이 책은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

도록 이끈다. 가족은 나와 가장 가깝기에 쉽게 닳하고 갈등을 이기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쉽다. 진정한 변화는 상대방을 닳하거나 바꾸려는 욕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와 화해의 첫걸음은 먼저 배려하는 단 한 마디의 말에서 시작될 수 있고, 그 말은 때로 내 마음을 열고 눈을 마주치는 3초의 용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그 변화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가족의 진정한 변화는 내가 먼저 변할 때 시작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느꼈다.

이 책은 가족과 더 건강하게 소통하고 싶은 이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하고 싶은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내서다.

「순례주택」 유은실

넓은 집이 건네준 따뜻한 위로...
「순례주택」을 읽고.

김은정

「순례주택」은 넓은 다세대 주택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안에는 고단한 삶을 버텨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말없이 타인의 삶에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함이 있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순례주택의 주인 순례 씨는 평생 세신사로 살아오며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만 삶을 꾸려온 여인이다.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내려앉은 몸이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단단하다.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몰아붙이지 않고 기다려주는 모습에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연민과 배려가 드러났고, 넓은 집은 오히려 따뜻한 품이었다.

수림 가족은 아파트를 잃고 순례주택으로 옮겨온 뒤, 갑작스러운 몰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수림이를 제외한 가족들은 낯선 환경에 불평을 쏟아내며 공동체와 마찰을 빚는다. 그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나 자신 안에서도 종종 보아 온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례 씨의 단단한 삶의 태도와 주택 속 사람들의 일상은 결국 수림 가족에게도 크고 작은 변화를 불러왔다.

책 속에서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순례 씨의 말이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애쓰는 게 어른이지.”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순례 씨 자신의 삶이 증명해 온 철학이었다.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나도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른이 되는 일은 어렵고 버겁다. 아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나는 진짜 어른으로 서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은 쉽사리 답하기 어려웠지만, 이 책을 읽으며 적어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다짐은 할 수 있었다.

「순례주택」은 내게 삶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볼 힘을 주었다.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서 오가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낯은 집의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보여주듯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결국 사람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순례 씨처럼 단단하면서도 다정한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박동섭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참 오래된 고전이지만, 지금 읽어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관계의 원칙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처음 책을 펼쳤을 때는 “수십 년 전 쓰인 책이 지금 시대에도 통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몇 장만 읽고 나니 인간의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책 속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메시지였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주장에만 몰두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는 것에 집중하곤 한다.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존중하고,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태도가 관계를 풀어나가는 키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주변에서 대화할 때 상대의 작은 관심사에 공감해주면 분위기가 금세 달라지는 걸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라는 걸 실감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비난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너무 쉽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관계는 더 나빠진

다. 나도 직장에서 후배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다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 경험이 있어 깊이 공감됐다.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비난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접근한다면 훨씬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읽으면서 놀라운 점은, 이 책이 단순히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기술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을 다하는 태도를 먼저 세우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각자 바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이런 기본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인간관계론」은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상황에 맞춰 꺼내볼 수 있는 삶의 지침서 같다.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혹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가족공부」 최광현

「가족공부」를 읽고...

엄창호

최광현 교수의 「가족공부」를 읽으며 가장 먼저 와 닿은 문장은 “사랑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애증의 딜레마”였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이다. 저자는 가족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말은 40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뼈아프게 다가왔다. 아이를 키우며, 남편으로 살아오며 가족의 문제를 늘 상대방 탓으로 돌렸던 내 모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책에서 특히 공감한 부분은 부부 관계에 대한 대목이다. 부부 사이의 행복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존중의 말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쌓여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때가 많다. 프로이트의 말처럼 “침대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섯 사람이 함께 있다”는 표현은, 각자가 자라온 과정과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의 과거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또 하나 깊이 남은 부분은 세대 간의 갈등이다. 부모가 노년기에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후회와 좌절이 자녀 세대에 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한다. 반대로 지혜와 관대함을 갖춘 부모 세대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존경과 긍정적 영향을 남긴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아이들을 키우며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다.

「가족공부」는 내게 가족이란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부모 세대를 향해 조금 더 이해심을 내는 것과 같은 작은 태도다. 가족을 위한 공부는 거창하지 않지만, 그 사소한 실천이 쌓여 결국 가족을 단단히 지탱한다는 메시지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카네기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재해석

윤귀형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50대가 되어 다시 읽으니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20대에는 성공을 위한 교과서였다면, 지금은 ‘현실 생존 매뉴얼’에 가깝다. 평생을 가족과 직장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굴리며 살아온 50대 남자에게, 이 책은 추상적인 원칙이 아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과거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옳다고 믿었지만,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겪으며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깨닫게 되었다. 카네기는 비난 대신 이해, 명령 대신 제안, 무관심 대신 경청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첫걸음임을 끊임없이 역설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상대방을 중요하게 만들어라’는 조언이 있다. 이는 50대인 나에게 처한 여러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술이 되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희생과 노력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며 소홀해지기 쉬운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비판, 비난, 불평을 하지 마라’ 50대인 남자의 언행은 젊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끈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남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조언을 건네고, 불평 대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솔직하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하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칭찬에서 시작된다. 후배의 작은 성과라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하면 그들은 더 큰 열정을 보일 것이다.

논쟁을 피하라. 50대에는 굳이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들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인생 경험이 풍부한 50대에게는 젊은 세대의 고민이 사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미소를 지어라’ 나이가 들수록 무뚝뚝해지기 쉽다. 하지만 미소는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 가끔은 딱딱한 얼굴을 풀고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50대인 나에게 ‘나이’라는 무게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들지 않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50대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다. 이 책은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등대와 같습니다.

「가족 공부」 최광현

우리는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이용순

우리는 각자 본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란다.

그리고 남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가족이 된다. 가족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을 만들게 된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알고 있을까.

작가는 그거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나는 40대 초반, 삶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곱씹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 단순히 상대방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가족은 대물림된다'는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엄마가 내게 했던 방식 그대로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 예전부터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40대인 나를 위한 '가족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자

녀 교육서나 부모님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책이 아니다. 40대 인 나에게 ‘나’를 위한 공부이기도 하다.

나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엄마와 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공감이 간다.

‘모성애 중독’이라는 다소 불편한 단어를 마주했을 때, 내 어린 시절과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었다. 우리 엄마가 그러하듯이 나 또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교차가 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진다.

책은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을 다양한 상담 사례를 보여주면서 결국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사실 이 책은 가족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나’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가족관계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아이에게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쓰기 보다는 먼저 내면의 나와 화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순례주택」 유은실

진정한 어른이란?

황희정

유은실의 「순례주택」을 읽으면서 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주인공 수림이네 가족이 겪게 되는 집 잃음과 이사, 그리고 순례 씨와 순례주택 사람들 사이에서 한 걸음씩 변화해가는 모습이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와닿았다.

집이라는 배경은 단지 잠자는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관계, 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다 담아내고 있다. 수림이네는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상치 못한 빚과 아파트 경매로 집을 잃는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던 가족에게, 순례 씨는 순례주택 201호를 내어준다. 갑작스럽게 겪게 된 이사와 낯선 환경,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공동 공간, 모두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곳’에서 가족들은 처음엔 낯설음과 불만을 가진다.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 언니 미림 모두 순례주택을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화한다.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아빠 역시 현실과 마주하며 책임을 조금씩 감당한다. 순례 씨를 비롯한 이웃들의 다정하고 솔직한

모습, 인정에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자세는 가족 모두에게 작은 울림을 준다. 모든 변화는 순례 씨의 원칙 그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메시지로 귀결된다.

수림이는 소설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조용히 보여준다. 나이만 어른인 부모,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상처받는 가족 사이에서, 묵묵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집의 의미, 가족의 의미,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어른이란 결국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잔잔하게 깨닫게 해준다.

「순례주택」을 읽고 나면, 크고 멋진 집보다는 ‘사람다운 집’, 그리고 ‘진짜 어른다운 삶’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하게 된다. 말하지 않을 때 더 크게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는 소설이었다.

책나들이

강진솔, 김영민, 박성민, 박은영,
배애솔, 윤미선, 최주영

해든초 학부모도서관봉사자로 만나
책모임을 이어간지 어언 4년이네요.
일곱가지 색을 가진
개성 있는 우리 책나들이 동아리원들,
사랑하고 지금처럼 꾸준히 잔잔히,
그리고 따뜻하게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고있는 책나들이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애도의 방법

강진술

역사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로 남아, 세대를 뛰어넘어 짙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개인의 삶을 통해 집단적 비극의 기억이 어떻게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제주 4.3사건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상처가 자리잡고 있으며, 인선은 그 비극을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증인이자 기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겨울, 경하는 친구 인선의 입원으로 친구의 집, 제주도에 서 머무르게 된다. 그 곳에서 친구 인선의 어머니, 강정심이 겪었던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오롯이 보고 자라온 인선의 삶을 알 수 있게 된다. 소설 속 인선의 이야기는 비극적 역사가 개인사에 어떻게 살아남아 현재를 살게 하는지 친구인 제3자의 시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인선의 어머니는 4.3 당시 가족인 오빠를 잃고 살아남은 생존자였고, 그 트라우마는 그녀의 어머니를 넘어 인선 자신에게가

지 이어졌다. 경하와 인선은 제주 4.3사건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역사적 상처를 온전히 느끼며 살아온 엄마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온 인선의 삶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개인사를 넘어 비극적 한국사의 상흔과 맞닿아 있다.

작품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비극적 사건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드러내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결국 경하는 죽은 자들과 작별하지 못하고 다시 생경하게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 개인의 고통이 결코 역사의 뒷안길에 잊혀져서는 아니되며,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과거가 아닌 현실이기에 제3자라 할 지 연즉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음을 이 소설은 먹먹하게 담아내고 있다.

우리는 무수한 역사적 비극, 사회적 비극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비극적 삶을 살아온, 온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며 살아온 그들에게 지나간 세월은 ‘잊힘’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애환’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작별하지 않음으로, 잊지 않음으로, 다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완벽한 작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끝내 아픈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다시 묻고 싶다. “우리는 과연 작별할 수 있는가?”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아직 작별하지 않는 이유

김영민

지난 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거머쥔 한강 작가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가 독서 모임에 선정되었다. 한강 작가의 책은 오래 전 「채식주의자」 이후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 표현하며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강 작가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덧붙였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난 뒤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주인공 경하의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눈을 맞고 서 있는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과 그 뒤로 엮드린 봉분들 사이를 주인공 경하가 걷고 있다. 검은 통나무들은 마치 수천 개의 묘비처럼 심겨져 있다. 어느 순간부터 경하의 운동화 아래로 자작자작 물이 밟히기 시작한다. 지평선인 줄 알았던 벌판의 끝이 바다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경하는 당황

하기 시작한다. 물이 더 차기 전에 무덤들을, 위쪽에 묻힌 뼈들을 옮겨야 했지만 어찌지 못한 채로 꿈에서 깨는 경하.

소설가인 주인공 경하는 몇 년째 같은 꿈을 반복하면서 꾸고 있다.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낸지 두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다. 유서까지 써 두고 세상과 작별하려 했던 경하는 어느 날 친구 인선의 연락을 받게 된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로 내려가 살고 있는 친구 인선이 목공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것이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간 경하에게 당장 제주 집으로 가서 자신의 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인선. 경하는 인선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길로 제주로 향한다.

강풍과 폭설을 뚫고 인선의 제주 집으로 가는 길, 경하는 산길을 오르던 중 폭설과 어둠에 갇혀 길을 잃는다. 내가 죽은 건지 산건지 모호한 상태로 힘겹게 인선의 집을 찾은 경하.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자료들을 보게 되고 인선의 아픈 가족사를 마주한다.

죽을 이유를 찾으려했던 경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인선의 새를 살리기 위해 제주에 갔다. 유서를 쓰고 작별을 준비했던 경하. 새들을 위해, 그리고 엄마가 찾고자했던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살아야했던 인선.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인선의 엄마.

작가는 어쩌면 이 세 사람의 삶을 서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 새를 살리기 위해 인선의 집으로 갔던 경하는 추위에 떨면서 다시 한 번 삶의 기로에서 몸부림친다. 죽었던 인선의 새가 다시 나타나고 병원에 있어야 할 경하가 그곳에 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산 자와 죽은 자가 뒤섞인 모호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경하.

소설 속 장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끝도 없이 눈이 내린다. 하얀 눈이 묘비 같은 검은 통나무 위에도, 인선을 만나러 간 병원에서도, 인선의 새를 살리기 위해 찾아간 제주에서도, 그리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인선과 경하가 만난 그곳에서도. 하염없이 내리는 흰 눈을 보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픈 우리의 역사와 고통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읽는 내내 작가의 아픔이 내게 느껴졌고 그날의 고통이 그려져서 너무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 작가의 말을 읽으며 비로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정말이지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사랑에 대한 소설이 맞다고 말이다.

p. 15

그렇게 죽음이 나를 비껴갔다. 충돌할 줄 알았던 소행성이 미세한 각도의 오차로 지구를 비껴 날아가듯이. 반성도, 주저도 없는 맹렬한 속력으로.

p. 44

눈은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p. 57

그때 알았다. 인선이 줄곧 나를 생각해왔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약속했던

프로젝터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 년 전 내가 곧 꿈속의 검은 나무들을.

그 꿈의 근원이었던 그 책을.

p.148

아마.

갈라진 내 목소리가 정적 속에 울린다.

내가 살리러 왔어.

곰은 집게손가락으로 나는 새장 문의 잠금쇠를 들어올린다.
아마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는다.

움직여봐.

내가 구하러 왔어.

부드러운 것이 손끝에 닿는다.

더 이상 따스하지 않은 것이.

죽은 것이.

p. 311

여기쯤 멈춰 서서 엄마는 저 건너를 봤어. 기슭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물이 폭포 같은 소리를 내면서 흘러갔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물 구경인가, 생각하며 엄마를 따라잡았던 기억이 나. 엄마가 쪼그려 앉길래 나도 옆에 따라 앉았어.

내 기척에 엄마가 돌아보고는 가만히 웃으며 내 뺨을 손바닥으로 쓸었어. 뒷머리도, 어깨도, 등도 이어서 쓰다듬었어. 뼈근한 사랑이 살갓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흐르는 강물처럼」 셸리 리드

흐르는 강물처럼, 방법은 그 뿐이라고

박성민

400쪽이 넘는 분량의 책이지만 한 여성이 성장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또는 강렬하게 묘사함으로써 읽는 내내 어렵지 않게 책속에 빠져들 수 있었다.

지금은 수몰된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모진 운명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사랑과 출산을 통해 성숙해지는 과정속에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상실의 아픔을 지닌 여러 이웃들과 함께 진정한 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고된 삶에 지친 독자를 위로하는 여러 문장들을 통해 다시 묵묵히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라면 꼭 한 번쯤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아니 운명의 장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읽고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연애소설을 읽는 감정으로, 때로는 앞서 살아간 한 여성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읽는 내내 현재를 살아가는 내 마음에 새기고 싶은 명문장들을 통해 즐겁고 행복했다. 내게 와 닿았던 여러 문장들 중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들을 나

열해보았다.

“끝 모르게 새까만 그의 눈망울을 잠시 바라보았다. 어떻게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타인에게 관심받는 것에 관심 없이
살아올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소녀가 첫 사랑에 빠져드는 순간, 나의 첫 사랑의 순간이 떠올
라 잠깐 설레기도 했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건 토리다.

월의 여자,

빅토리아는 얼마든지 전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인한
여성이다.”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통해 어리고 수동적이었던 한 소녀가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신을 지켜내며 강
인한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통해 40대 중반의 여성으
로서 많이 공감할 수 있었고 섬세한 묘사를 통한 문장들을 읽
어 내려갈 때는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부디 지난 세월이 아들에게 다정했기를”

“브이는 매 순간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이죠”

“우정이란 게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욕심 내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바라본다는 면에서

나는 우리가 좋은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의 많은 문장들을 통해 작가는 삶의 진리를,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도 한다.

“내게 닥친 일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하며 살아왔다고,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고 말해 줄 것이다.
어떤 존재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월이 가르쳐 주었듯이 흐르는 강물처럼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물론 걸림돌을 무릅쓰고 멈추지 않고 흘러 왔다는게
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강물처럼 나 역시 나를 다른 존재들과 이어주는 작은 조각들을
모으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흐르는 강물처럼, 방법은 그뿐이라고”

「모모」 미하엘 엔데

시간을 되찾는 여행

박은영

시간이란 무엇일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매일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조용하지만 깊게 바라보도록 하는 작품이다.

‘함께 있어 주는 시간’만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소녀 모모와 시간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시간저축은행의 회색 인간, 대조적인 흐름으로 독자는 모모와 함께 시간을 되찾는 여행을 떠난다. 회색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작품 속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시간의 꽃’을 떠올려본다. 사람 하나하나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의 시간 꽃을 피우며 각자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즉, 시간은 외부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삶의 일부라는 것이다.

현대판 회색 인간에게 물들어 사는 삶에서 놓치고 있는 그것!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길들여 있는 것이니까”
(p.83)

“이 세상의 운행에는 이따금 특별한 순간이 있단다.(중략) 애석하게도 인간들은 대개 그 순간을 이용할 줄 몰라. 그래서 운명의 시간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단다.”
(p.213)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p.231~232)

우듬지를 올려다볼 틈 없는 목표 지향적인 일상에서 ‘모모’는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시간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모순」 양귀자

사랑이란 두 가지 이름

배애슬

양귀자의 『모순』은 주인공 안진진의 내면 독백을 따라, 삶이란 이름의 미묘한 결을 천천히 어루만진다. 진진은 스스로를 “감상과 유치함에 대해 언제나 과감하게 적대적”인 사람이라 말한다(p16). 한 번도 무엇에 깊이 빠져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고, 삶의 대차대조표를 진지하게 작성해 본 적도 없는 채, 그저 시간 속을 미끄러지듯 살아왔다. 그녀의 젊음은 “궁핍한 생활의 아주 작은 개선만을 위해 거리에서 분주히 땀을 버는 것으로”(p17) 흘러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인생은 탐구가 아닌 체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서서히 풀리면서, 그녀는 문득 “이제 비로소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p18)을 받는다. 그것은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만이 느끼는 미묘한 긴장, 알 수 없는 설렘에 가까웠다. 그녀는 가족의 역사 속에서 운명이라는 이름의 실을 더듬는다. 어머니와 이모-한 뿌리에서 시작했으나, “결혼과 동시에 비로소 두 사람으로 나뉘었다”(p19). 삶이란 이렇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린다. 그녀는 그 앞에서 담담히 말한다. “이런 것이 운명이

라면, 그것을 내가 어찌 되돌릴 수 있으랴. 인생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p20).

그러나 체념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예리하다.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한다”(p21).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발견한 삶의 가장 단순하고도 완강한 모순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빛과 그늘이 함께 담겨있다. “불품없는 맨가지”로 서 있다가 늦봄이 되면 레이스 같은 보랏빛 꽃송이를 피워내어 골목길을 환하게 물들이는 라일락(p43). 그러나 그녀의 집 마당에는 단 한 그루의 라일락도 없었다. 그 부재의 감각은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녀는 모순을 마주한다. 나영규-그의 웃음은 “너무나 흡족해서 견딜 수 없는 웃음”(p71)이고, 전염성이 강하다. 불만을 품고 있어도, 그 웃음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웃게 된다. 그는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고(p74), 그 무결함이 오히려 진진을 주저하게 했다. 반면, 김장우는 도시에서의 불안과 고향의 그리움을 토로하며(p117), 그녀에게 다른 삶의 결을 보여준다. 두 남자는 각기 다른 온도와 색깔로, 그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진진의 성찰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번져간다. “아껴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아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었다”(p75). 먼지 한 톨 없이 정리된 집보다 적당히 어질러진 집이 더 편하다는 깨달음(p77),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 큰 은혜는 금세 잊는다는 인간의 습성(p127),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이 ‘미수’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p152)까지-그녀는 이 단상들을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아 올린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느낀다.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뒤, 결핍 없는 “지리멸렬한 삶”(p283)에 갇혀있었음을. 그것은 편안함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앗아간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인정한다. “아직 나는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 삶과 죽음은 결국 한통속이다”(p291).

『모순』은 이 진실을 설교처럼 들이밀지 않는다. 대신 독자가 각자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가가기를 기다린다. 책장을 덮고 난 후에도, 우리는 오래도록 내 삶 속 모순과 그것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된다. 마치 그녀가 느꼈던 라일락의 부재처럼, 그 모순은 사라지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삶을 향기롭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된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롤루 밀러

인생은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윤미선

롤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 전문 기자인 저자가 자신의 삶과 사고를 생물학과 연결해 풀어낸 독특한 에세이이자 논픽션 작품이다. 저자는 존경했던 인물인 스탠퍼드 대학 초대 학장 겸 생물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조던은 수많은 물고기들을 발견하고 이름 붙이는 작업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세우려 한 인물이었다.

책은 단순히 과학자의 위인전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조던의 삶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과 제인 스탠퍼드 이사장의 독살 사건 등 미스터리한 역사적 사실을 취재하듯 풀어내며, 독자로 하여금 추리소설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전개는 학문적 사실과 인간사의 어두운 면을 교차시켜 독특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밀러가 개인적으로 품어온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이 책의 핵심 주제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인간의 존재는 무의미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온 저자는 이를 반박하듯 생물학에 관심을 기울인다(아버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해도 굳이 어

린 자식에게 냉소적으로 말해야 했었다, 엄마로서 아쉬운 점이 든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그녀가 찾는 의미는 학문적 성취보다는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저자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책은 과학적 지식과 역사적 사실, 개인적 서사를 교차시키며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 교양서적의 성격을 띠면서도 에세이의 서정성과 철학적 질문을 함께 품고 있어, 단순히 과학책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그 이상의 깊이를 담고 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국 혼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독자들은 저자의 서사를 따라가며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동시에, 삶을 성찰하는 철학적 사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 책은 과학과 철학, 인간학적 성찰이 결합된 독창적인 논픽션으로써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으니 일독하기를 권해본다.

54p.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 낸 것일 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 아이에게 들려주기에는 너무 끔찍한 진실인 것 같다. 나도 사춘기 시절에 내 존재 의미를 알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는데, 내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나는 덜 불안해하면서 살았을까?

57p.

“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너 좋은 대로 살아.”

-아버지가 진정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였을거다. 니 마음대로 살으라고.....

102p.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는 강박적인 수집이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무력함을 느낄 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 같다.

113p.

혼돈이 지배한다는 것, 나에게서는 이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는 없어 보였다.

125p.

“무지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학문이다. 아무런 노동이나 수고 없이도 습득할 수 있으며, 정신에 우울함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주니 말이다.”

130p.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정교한 뭔가를 쌓아 올렸다가...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걸 목격한 그 사람... 그 사람은 계속 나아갈 의지를 어디서 다시 찾았을까 하는 그 질문. 계속 가고 싶은 그렇지 않은 어쨌든 계속 가게 만드는, 모든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것을 카프카는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고 불렀어.

133p.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

171p.

나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한 나의 괴상한 애착과, 그가 내게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내 인생을 되돌려놓을 방법을 가르쳐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관해 골똘히 생각했다. 그에게는 내가 존경할 만한 많은 면들이 있었다. 그의 냉소. “숨어 있는 보잘 것 없는” 꽃들에 대한 그의 몰두. 내 아버지의 쇠솔로 된 밀대 빗자루를 연상시키는 그의 우스꽝스러운 팔자수염. 그의 강철 같은 근성. 그 어떤 불운이 자기 앞에 닥쳐와도 주저않기를 거부하던 그 투지 넘치는 결연함.

하지만 그 정도로 자기 확신을 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 최소한 그 죽음의 진실을 기꺼이 은폐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 밀러는 자신의 아버지와 닮은 조던을 존경하고 추앙하고 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의 죽음에 침묵한(어쩌면 가담한) 조던의 태도에 대해서는 냉정할만큼 직설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175p.

가장 성가신 물고기를 잡을 때 그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뭘까? 바로 독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천한 종류는? 언젠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쓴 것”이라고 묘사했던 위험하고 강력한 물질, 바로 스트리크닌이다.

-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독살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조던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된 것 같아서 작가로서 뜻깊고 유명을 달리한 제인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빛을 덜어내는 기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184p.

자기 학생들에게 제한했던 “박멸”을 실현할 방법. 그것은 바로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들의 생식기를 그냥 잘라내는 것으로, 데이비드는 청중들에게 “백치들은 모두 자기 핏줄의 마지막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 진정한 미친 과학자라고 생각되고 ‘우생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역사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는지, 소름끼치는 대목이었다.

201p.

그 잔인성과 무자비함이. 그 추락의 무지막지한 깊이와 그 파괴적 광란의 크기가. 토할 것 같았다. 내가 모델로 삼으려 했던 자는 결국 이런 악당이었던 것이다.

236p.

조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도 존재한다.

양서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꼭 꼬집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252p.

“성장한다는 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흐르는 강물처럼」 셸리 리드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간다면

최주영

올해 독서동아리에서는 각자 추천하는 도서를 장르에 상관 없이 추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므로 언젠가 읽어보고 싶었던 ‘흐르는 강물처럼’을 선택하여 읽게 되었다.

미국 작가 셸리 리드는 웨스턴 콜로라도대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글쓰기, 문학, 환경 연구 등을 가르쳤고 현재 콜로라도 엘크 산맥에 있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저자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을 자연에 아름답게 은유한 작품으로 여러 잡지와 라이브러리 저널의 추천 도서로 선정된 많은 이들의 인생 책으로 손꼽힌다.

내용을 짧게 소개하자면, 1940년대 콜로라도의 시골 복숭아 농장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생활하는 빅토리아는 동생을 찾으러 읍내로 나가다가 여인숙을 찾는 이방인인 월슨 문을 만난다. 그와의 사랑을 계기로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된 빅토리아는 사랑과 상실, 그리고 자연 안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이겨내며 곳곳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다.

한때 강이었으나 지금은 저수지가 된 물 밑에서 썩어가는

마을, 물속에서 조용히 잊힌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불어난 물이 마을을 집어삼킬 때 이곳의 기쁨과 고통까지 모조리 앗아갔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린 시절의 풍경은 우리를 창조한다. 그 풍경이 내어주고 앗아간 모든 것은 이야기가 되어 우리 가슴에 남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를 형성한다. (p.14) 프롤로그에서 작가의 시작은 소설의 후반부가 되어서 시각적이고 감각적이지만 분명한 표현으로 마무리 짓는다.

나는 댐이 건설되고 거니슨강 하류에 수문이 개방되어도, 지금 흐르는 강물의 일부는 변함없이 아래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했다. 아무리 느리더라도,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아무리 적은 양이더라도 강물은 어떻게든 물길을 찾아내 꾸준히 흐를 것이다. 그러면, 노스포크강을 따라 새로운 삶을 꾸린 나는 그 반대편에서 흐르는 강물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p.322)

400쪽이 넘는 책을 읽는 동안 한순간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빅토리아가 굴곡진 삶의 순간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겨내며 흘러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빅토리아의 선택과 그 선택을 책임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경험도 확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책을 읽어 보길 권한다.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계절의 갈마డు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간다면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내적으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용기를 얻을 것이다.

책소풍

강대연, 강하연, 배유은, 배유주, 양효선, 유희정,
임하린, 임하윤, 최수란

책 한 권을 펼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책소풍은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독서동아리입니다.
소풍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 깊이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동아리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쇼펜하우어

행복은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다

양효선

한 번쯤은 철학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마흔을 넘기고부터는 문득문득,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마주한 책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였습니다. 제목부터가 마음에 강하게 박혔고, 왠지 이 시기의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장은 단단했고, 표현은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졌으며, 한 줄 한 줄이 마치 저자가 독자의 마음을 꿰뚫듯 직설적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했습니다. 무언가를 강요당하는 느낌도 있었고, 쉽게 읽히지 않아 몇 번이고 책장을 덮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후반으로 갈수록 책에 점점 몰입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말들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한 장씩 넘기다 보니, 마치 책 속의 목소리가 조용히 제 삶을 비추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공감했던 구절은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이의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지금의 제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느라 지치고,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맞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시간을 차라리 나를 돌아보는 데 쓰라고 말합니다. 진심을 다하되, 반응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먼저 챙기는 태도. 그것이 결국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더 단단해지는 길이라는 걸 말없이 일깨워주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며, 특히 ‘여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조언이 나옵니다. 지금의 제가 바로 그 시기를 지나고 있기에, 그 비유는 더욱 와닿았습니다. 독립, 선택, 책임, 그리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책을 만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타이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 책은 다정한 책은 아닙니다. 쉽게 위로해주거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종류의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외면하고 있던 질문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보입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로 이 책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책장을 덮으며 조용히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서 찾으시기를.” 요즘처럼 남의 시선과 기준 속에서 자신

을 잃기 쉬운 세상에서,
이 말만큼은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키오스크」 아네테 멜레세

일상이 멈추니,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희정

그림책 「키오스크」는 짧고 단순한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책을 덮고 나서 의외로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게 만든 작품이었다. 나는 이 책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집어 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느낀 불편함에서 시작된 마음으로 골랐다. 본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래라저래라 참견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 좀 차려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펼쳤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책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주인공 올가는 좁은 키오스크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 공간 안에서 단골손님들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주며 살아가는 모습은 단조롭지만 나름의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다. 아이들이 과자를 훔치려다 생긴 실랑이 끝에, 키오스크와 함께 올가가 쓰러지고 만다. 그리고 물건을 훔는 과정에서 키오스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올가에게 그 순간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혼란, 당혹스러움, 어쩌면 막막함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올가는 그 낯선 변화를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 태도가 인상 깊었다.

그 이후의 전개는 다소 빠르게 흘러간다. 올가는 키오스크를 움직이며 동네 산책을 시작하고, 익숙한 골목을 벗어나 점점 더 먼 곳으로 향한다. 단골 강아지가 올가를 따라다니다가 벌어진 우연한 사고로, 올가는 결국 강물에 빠지고 바다에 다다른다. 처음엔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삶이 전환되어도 되는 걸까? 긴 여운 없이 흘러가버린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것이 원래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뜻하지 않은 계기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 마치 내 삶의 한 장면을 보는 듯도 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책의 마지막 장면이다. 바다를 마주한 올가가 그 다음에는 산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 그 짧은 말한 줄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도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 그런 순환 속에서 삶은 계속되는 것 같았다.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 책은 아이를 위한 그림책처럼 보이지만, 어른이 읽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삶의 방향을 잃었거나, 혹은 멈춰선 채 고민하고 있는 어른이라면 한 번쯤 조용히 이 책을 펼쳐보면 좋겠다. 지나치기 쉬운 장면 속에 내 이야기가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종이동물원」 켄리우

너무 늦게 알게 되는 마음,
엄마가 남긴 건 종이 동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최수란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은 분량으로 보면 그리 길지 않은 단편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상상력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도 넓었다. 책을 덮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슴 한켠이 아리면서도 묘하게 따뜻했고, 이 짧은 이야기 하나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포장지로 접어 만들어준 종이 동물들 속에서 자란다. 단순한 종이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는 어머니의 손끝은 마치 마법 같았고, 그 종이 동물들과 함께한 유년기는 기이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점차 어머니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어머니의 언어, 문화, 삶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 그러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뒤늦게야 진심을 깨닫고, 종이 동물 속에 담겨있던 사랑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언어’의 역할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 그리고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가슴에 남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가족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 세대 간의 단절, 문화적 오해 같은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

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고 관계를 잇는 핵심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상상력의 영역에서도 인상적이다. 종이 동물이 살아 움직인다는 설정은 참신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고, 그 자체로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동화적인 정서를 떠올리게 했다. 보통 SF라고 하면 미래 기술이나 우주, 과학적 개념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소설은 감성과 정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그 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상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일상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한 작품이었다.

읽으면서 여러 번 울컥했다. 특히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그 안에 담긴 숨은 언어를 발견하는 장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어릴 적엔 몰랐던 것들,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해주는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대화와 마음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가족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드려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며, 함께 나눈 시간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 싶다. 『종이 동물원』은 그런 아주 당연한 진실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일깨워주는 책이었다.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슬프기만 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다시 읽고 나서야 진짜 의미들이 마음에 들어왔다. 상황에 따라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고, 느껴지는 감정도 달라지는 걸 보며, 이 책이 가진 깊이를 새삼 실감했다. 켄 리우의 다른 단편들도 궁금해졌고, 조금 더 천천히, 조용히 읽어보고 싶은 마음

이 들었다.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짧은 이야기를 조용히 권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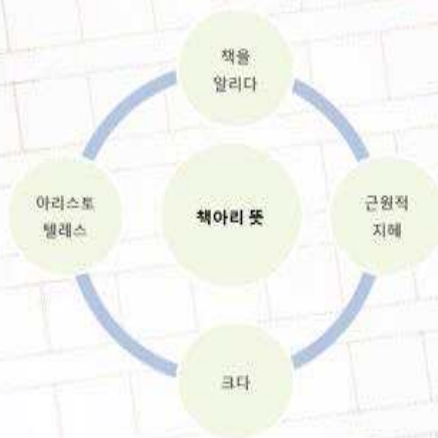
책아리연구소

〈 함께 하는 이들 〉

그린, 보라, 블루, 연두, 오렌지, 초록

책아리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삶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연구소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활동 방향은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을 중점으로 하며 그림책, 고전, 역사 등의 책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토론, 하브루타와 책놀이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패배 속의 승리, 침묵 속의 외침

그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노인 산티아고가 거대한 황새치와 벌이는 사투는 단순히 어부의 고된 일상을 넘어,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폭풍우와 상어 떼에 맞서 싸우는 노인의 모습은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 나약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84일간의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는 불운을 딛고 다시 바다로 나선 노인의 끈질긴 도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황새치와 맞서는 불굴의 의지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인간 본연의 존엄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고군분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비록 육체는 나약하더라도, 정신만은 결코 꺾이지 않는 노인의 정신적 강인함을 부각하며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며칠 간의 사투 끝에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황새치의 뼈뿐입니다. 상어 떼에게 살점을 모두 빼앗긴 채 앙상하게 남은 그 뼈는 물질적인 승리는 아닐지라도, 그 웅장한 크기 자체가 노인이 홀로 바다 위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고스란히 증명합니다. 이 뼈는 노인의 실패가 아닌, 오히려 그의 위대한 도전을 증명하는 기념비와 같습니다. 이는 완벽한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끈기와 용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며, 진정한 승리는 외형적인 성과가 아니라 내면과 정신의 성장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책을 읽으며 나는 산티아고 노인의 삶과 도전을 통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나는 과연 삶의 고난 앞에서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고 있는가? 실패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과연 노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할 용기가 있는가? 이 책은 나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 각자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미래의 내 삶에는 어떤 질문이 던져질까?

보라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제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달리하며 다가온 특별한 작품입니다. 20대 초반이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저 “이게 뭐지?”하는 막연한 의문만 남았습니다. 당시엔 삶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탓일까요, [노인과 바다]에 숨겨진 무게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새벽 필사를 하며 다시 만난 [노인과 바다]는, 거칠고 외로움이 느껴지는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청새치를 끌고 가는 노인의 모습에서 저와 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시'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제 아이가 힘들게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과연 딸을 잘 이끌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노인의 끈질긴 사투는 당시 저의 내면 풍경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2025년 다시 읽은 [노인과 바다]는 현재의 나를 오롯이 성찰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청새치를 끝까지 놓지 않아 결국 양상한 뼈만 남은 모습을 보며, 제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빛 좋은 개살구처럼, 실은 허울뿐인 것을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맹목적인 추구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인의 가치를 깊이 존중했지만, 것처럼 굳이 청새치를 잡을 필요는 없었음에도, 저는 어떤 목표나 도전을 향해 무작정 끝까지 끌고 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삶에 있어 소중한 가치에 대해

[노인과 바다]는 산티아고의 고독한 투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불굴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청새치 잡이가 외부의 인정을 위한 과시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자 존재 증명이었듯이, 저 역시 세계에서 중요한 것을 저만의 방식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어쩌면 청새치와 같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과가 아닌, 마놀린처럼 묵묵히 곁에서 함께 숨 쉬는 존재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놀린은 노인에게 소리 없는 응원이자, 지친 삶에 기대어 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헤밍웨이는 이 소년의 존재를 통해 승패를 넘어선 인간적 유대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 삶에서 허망한 ‘빠만 남은 청새치’를 쫓기보다, 진정 소중한 마놀린이 상징하는 가치들을 지키며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노인과 바다]는 단순히 한 노인의 고된 여정을 넘어, 제가 삶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묻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오랜 시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노벨문학상까지 안겨준 이유를 매번 다른 깊이로 실감합니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세대의 바다를 건너는 법

블루

“제가 할아버지 배에 처음 탄 게 몇 살이죠?”

“다섯 살.”

노인은 햇볕에 바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는데,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쿠바의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한 노인 어부 산티아고의 고독한 사투를 그리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세대 간의 신뢰와 전승이 작품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바로 소년 마놀린과의 관계이다.

노인은 팔십사 일째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몸은 하나같이 늙었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불굴의 정신과 활력이 바다처럼 새파랗게 번뜩였다.

“팔십오는 행운이 어린 숫자야. 살코기만 오백kg쯤 나가는 고기를 내가 잡아온다면 너는 기분이 어떨까?”
이는 단순한 희망의 말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는 산티아고의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산티아고의 모든 행위는 강력한 교육이고, 그의 존재 자체가 소년에게 하나의 교훈이다.

소년 마놀린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를 존경하고 따른다. 그는 단지 물고기 잡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패를 견디고,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킬 것인지를 노인에게서 체득한다. 마놀린은 산티아고의 고독한 항해를 지켜보며, 그 자체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산티아고와 마놀린 사이에는 대화보다 침묵 속에 흐르는 신뢰와 존중이 돋보인다. 이는 오늘날의 멘토링 관계에서도, 진심 어린 존중과 모범이 말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노인은 바다와 싸우며 인간의 한계를 증명하고, 소년은 이를 지켜보며 삶의 의미를 배운다. 작품 말미에 산티아고는 지쳐서 돌아오지만, 마놀린은 그의 옆에 남아 간호하고, 다시 바다에 나가고자 한다. 이는 노인 정신이 소년에게 이어졌음을 상징하는 순간이다.

『노인과 바다』는 실패와 고독 속에서도 자기 길을 걷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자, 다음 세대에게 삶의 본질을 전수하는 조용한 멘토의 이야기다. 산티아고는 말보다 행동으로, 강요보다 모범으로 소년에게 영향을 준다. 이는 단순한 직업 전수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진정한 교육이다. 세대는 바뀌지만, 그 정신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산티아고는 결국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마놀린의 삶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이 진짜 승리가 아닐까.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읽고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기

연두

이 소설은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하지만, 읽고 나면 읽는 나이에 따라 오랫동안 마음을 흔드는 잔향의 향기가 다르다. 청소년기에 읽었을 때와 나이가 들어 중년인 내가 읽었을 때의 향기가 달라서 더 특별하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단지 노인의 고기잡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묵직한 성찰을 담은 작품이다. 헤밍웨이는 이 짧은 소설 속에서 말보다 침묵이, 설명보다 암시가 더 많은 것을 말하게 한다. 그의 문장은 간결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깊은 철학과 감정이 유명하고 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물리적으로는 쇠약한 노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강인한 인물이다. 그가 거대한 청새치와 벌이는 고독한 싸움은 단순한 생존의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다. 그는 이미 실패한 자로 낙인찍혔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다라는 광대한 세계 앞에 다시 선다. 그 태도는 겸허하면서도 위엄 있으며, 비장하면서도 아름답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발휘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엄성과 투지와 위엄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태도를 배운다.

소설은 바다와 생명체(청새치, 상어, 바다 등)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자 동행자임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의 또 다른 청새치, 상어, 바다 등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나는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꼭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배반하는 노력들이 더 많다. 산티아고처럼 말이다. 하지만 산티아고가 성공하지 못 했다고는 결론지을 수 없다. 외롭지만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이다.

산티아고는 결국 청새치를 잡지만, 상어들에게 모두 뜯기고 텅 빈 뼈만 남게 된다. 이는 성취가 반드시 외적인 결과(물질적 성공)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고, 싸웠으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만족한다. 이 점에서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다.

『노인과 바다』는 인간의 불굴의 정신, 존엄성, 고독 속의 싸움,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이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울림을 준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물게 만든다. 헤밍웨이는 말을 아끼며, 그만큼 독자에게 더 깊이 생각할 여백을 선사한다. 바로 그 점에서 『노인과 바다』는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문학적 고전으로 남는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나는 나의 삶에서 패배하지 않았다.

오렌지

동아리에서 [노인과 바다]를 선정하였을 때 ‘어떤 이야기였더라’ 지금보다 젊었던 어느 때 읽은 기억으로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오랜 실패 끝에 홀로 바다에 나가서 거대한 청새치를 낚는 이야기다. 하지만 돌아오는 동안 상어 떼에게 먹혀 결국 뼈만 남긴 채 항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이게 뭐야, 큰일났네.’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로는.... 서평을 작성하는데 걱정이 앞섰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가는 동안 노인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금 나는 내 아이 둘과 남의 아이 하나를 위해 밥상 차리고, 반찬 걱정하고, 세 아이 스케줄을 확인하는 육아 생활이 20년을 넘기고 있다. 그러는 동안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나를 이 책에서 보았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나도 한때는 많은 걸 해내고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싶던 사람이었다. 꿈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가족의 삶을 꾸려 나가다 보면 나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 날들이 계속된다. 이해받지 못한 채, 공감받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삼키며 지나온 시간. 그 많은 시간들이 때론 상어 떼처럼 나를 조금씩 잡아먹은 건 아닐까 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삶이 초라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감당해 온 그 모든 싸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텨낸 모든 순간이야말로 나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 아닐까. 산티아고가 바다에서 외롭게 싸우며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듯, 나도 나 자신을 돌보고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가족을 위한 삶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발견한 지금 『노인과 바다』는 견디고 버텨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이 책은 말해주는 것 같다.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이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비록 싸움은 끝나도 의미는 계속 남는다.

초록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운 없는’ 늙은 어부의 이야기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홀로 먼바다로 나가, 사흘 밤낮의 고독한 사투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 배에 묶고 돌아온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상어 떼의 습격으로 청새치는 결국 뺨만 앙상하게 남은 채 항구에 도착한다.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증명하듯 바다로 나갔던 그는, 여전히 ‘운 없는 노인’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닌 싸움 그 자체와 싸움을 마주하는 노인의 태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인간은 무너질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아.”

이 유명한 문장은 노인의 고독한 싸움과 그 안에 담긴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끝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았다. 상어 떼에 고기를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오면서도, 그것을 패배라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얻었는가’보다 ‘어떻게 싸웠는가’

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노인의 태도는 결과로 평가받는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우리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이 책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은 순간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싸움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노인이 치른 싸움은 겉보기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패배하지 않은 인간의 조용한 승리가 담겨있다. 남긴 건 청새치의 앙상한 뼈뿐이었지만, 그것은 치열한 삶의 흔적이었고, 그 흔적은 끝까지 버티고 돌아온 그에게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된다.

소설의 마지막,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다. 젊은 시절 아프리카 해안에서 보았던 거침없이 뛰노는 사자들. 육체는 지치고 무너졌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상징으로 그는 그 꿈을 꾸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한다.

『노인과 바다』는 단순하고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삶을 대면하는 태도를 생각하게 한다. “끝까지 해보는 것, 끝까지 버텨보는 것. 실패처럼 보이는 길 끝에서조차 삶이 남길 무언가를 믿는 것” 이 책은 그런 믿음을 잊지 말라고 알려준다. 삶 앞에서 지금 방황하며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고독한 싸움으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추천한다.

책잇수다

송은미, 조인숙, 최남순, 황서영

2013년부터 시작된 독서모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아리원이 바뀌지만
지금껏 책을 읽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생각이 통하고
다른 생각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사계절 영미 시선집」 워즈워스·휘트먼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해

송은미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여 시로 이야기하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서문으로 시작한다. 봄의 유희, 여름의 젊은 열기, 가을의 성숙하고 원숙함, 겨울은 노인이 비틀거리며 떨어는 걸음걸이로 걸어온다고 했다. 본래 고대부터 이야기는 시에서부터 시작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시를 읽지 않는 세대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와 함께 생동하고 공감한다면 좋겠다고 했다. 시 읽기로 마음이 사랑을 만나고 계절을 만날 것이다. 시를 눈 읽기도 좋지만, 소리 내 읽기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고 치유하게 해줄 것이라는 부분에 낭독하며 읽어보았다. 얼마 안 가 멈추고 다시 눈으로 읽다가, 소리 내 읽기를 하다 보니 소리 내 읽고, 듣고를 하는 것이 참 좋다. 영미시선집은 자연과 우리의 삶을 시에 담고 있다.

〈계절이 왔네〉-윌리엄 워즈워스는 사계절의 특징을 바라보며 삶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오라, 부드러운 봄이여〉-제임스 톰슨은 나의 노래를 들으며 자연 모두 생기가 돌고 자애롭다고 했다. 산 사이로 휩쓸려 가는 급류를 보며 이제 저 먼 곳에서 녹색 머리가 하늘로 들리

고 여름이 오려나 보다.

〈집 더 이상 나에게 집 아니네〉-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내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비추고, 활짝 열린 그 집에 햇빛이 아름답게 비추고 새들도 지저귀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슬픔을 담고 있다.

봄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름으로 성큼 다가선다.

〈나 그대 여름날에 견줄까요?〉 셰익스피어는 여름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영원한 그대의 여름날 절대 시들지 않고, 그대가 소유한 그 아름다움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름은 그렇게 오래오래 생명을 주는 것이라요라고 말하며 시편 속에서 성장하자고 노래한다.

〈여름에 새들보다 더 멀리〉-에밀리 디킨슨은 여름의 새와 풀밭의 곤충을 축하하고 8월의 낮은 고풍스럽게 시작된다고 했다.

〈흰 새들〉-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내 사랑과 바다의 물거품위를 나는 흰색이길 바란다.

가을의 시는 낙엽과 스산함과 추위를 말한다.

〈가을〉-T.E, 흙은 가을밤의 추위에 나가서 불그레한 달 울타리에 기대어 있다. 별들을 아쉽게 바라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겨울이 되자 〈눈이 하얗게 덮인 겨울 들판〉-루이스 캐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추어 물고기를 깨운다. 물고기를 깨우는 사람은 계절을 깨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눈사람〉-윌러스 스티븐슨은 사람의 마음속에 겨울 마음이 있고, 겨울의 풍경을 마음으로 가져와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귀를 기울인 채로, 아무것도 없는 무(無) 자체를 바라본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 하얀 눈에 쌓인 세상을 바라본다.

시를 읽고 있는 동안 사계절이 나를 감싼다. 지금은 제법 선해진 바람을 느끼며 걸었던 길에 이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중이다. 싱그러운 초록이 지나고 색색의 나뭇잎을 물
들이기 위해 채비하는 나무가 나를 향해 팔을 벌려 맞아준다.
계절의 변화를 읽고 싶다면 〈사계절 영미 시선집〉을 읽기 바란
다.

「농담」 밀란 쿤데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농담

조인숙

루드비크 헬레나 야르슬라프 코스트카 루치에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담을 절대로 이해 못 하는 치명적인 여자 친구 마르케타에게 루드비크는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건전한 정신은 어리석음의 악취를 풍긴다. 트로츠키 만세”라는 농담의 글을 씌므로 공산당원의 자격을 빼앗기고 입대 당하게 되며 탄광에서의 일을 하게 된다.

가끔 외출을 통하여 루치에를 만나면서 사랑을 하게 되지만 루치에의 과거 6명의 성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결합을 얻지 못하고 그리움만 남긴다.

루치에가 육체적 사랑을 유린당한 것같이 루드비크는 원래 의지하고자 했던 가치를 빼앗겨 버린 것으로 깨닫는다.

루드비크는 결정적으로 공산당에서 축출케 한 친구 제마네크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내 헬레나를 유혹하여 범하지만 이미 그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친구 코스트카는 기독교인으로 공산당에 미움을 받아 국영농장으로 밀려나고 떠돌이 루치에를 만나 그녀의 영육을 회복시키며 신앙을 심어주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유부남 양심으로 괴로워한다

바이올린 연주자이며 악단의 리더이자 친구 야로슬라프에게 루드비크는 전에 했던 클라리넷 연주자를 요청해서 함께 연주하다 야로슬라프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세상을 농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독서의 뇌과학」, 가와시마 류타

독서의 새로운 발견

최남순

이 책을 접하면서 독서의 새로운 혁명을 느끼게 된다.
딱히 디지털 세대도 아닌 나로서는 그냥 책을 읽는 즐거움 한
발 더 나아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다.
독서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 했다.
독서와 뇌 관계의 상관관계는 너무도 또렷하다. 우선 책을 많
이 읽어야 한다.
종이책을 읽을 때와 그 외 책을 읽을 때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뇌과학으로 자세히 쉽게 설명해준다.
종이책을 읽었을 때는 어휘의 습득 문장의 이해와 완전 뇌의
전신운동이라는 확실한 결론이다. 어린 자녀들에게 읽어 줄 때
의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았다. 소리를 내 읽으면 청각과 시각
의 효과가 배로 나타나고 어린 자녀에게 읽어줄 때는 지식뿐만
이 아니라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감과 교감의 신뢰도를 깊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지능이 발달하고 학습에도 효과
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독서를 습관화하는 아이들은 언어
능력을 주로 담당하는 발달을 시키고 인지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점수에 연연하다 보니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악순환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좋다. 독서가 사고의 경직성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완고한 성격이 되기 쉬운 데에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다. 새로운 습득이 어려워지는 것도 전전두엽의 사고기능이 저하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독서가 전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므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오는 사고의 경직성을 막아준다고 서술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소리를 내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10년 이상 기억력이 향상 되었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저자는 성인도 음독을 통해 뇌의 기능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즘 시대는 수명은 연장되고 편리한 생활 수단이 많아져 손끝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이다. 살기가 편한 세상이 더더욱 뇌도 활용하지 않아 치매의 인구수는 점점 늘어난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도 어렵다.

장르에 구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꾸준히 읽어야겠다. 음독하기는 더 어렵고 쑥스럽지만,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

오늘도 책을 읽었기에 이 놀라운 도서의 뇌과학을 발견했다. 이젠 가지고 있는 책도 정리할 때이지만 이 책은 내가 소장하고 있다가 내 딸 손녀들에게 읽게 해주고 싶어 소장한다.

「롤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예술의 자율성과 윤리

황계화

책 첫 부분 머리말부터 읽는 독자는 정신 병리학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하다며 ‘실화’ ‘실제’ 인물 운운하는 말에 어느 백인 홀아비의 사실대로의 고백을 들을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롤리타’ 읽기에 돌입한다.

머리말을 쓴 존 주니어 박사에게 살인죄로 구속된 험버트 험버터가 사망 후 담당 변호사로부터 이 원고의 편집자로 부탁한 것으로 쓰여 있다.

사실 이것은 문학적 유희이자 짓궂은 작가의 트릭이다.

러시아 출신 나보코프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음성적 유희, 다중적 의미, 상징적 이미지로 화려한 언어 예술의 잔치에 초대한다.

특히 첫 문장은 전세계 어떤 모국어를 말하더라도 이 언어 잔치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롤-리-타. 허끝이 입천장을 따라 세 걸음 건다가 세 걸음째에 앞니를 가볍게 건드린다. 롤.리.타.”

주인공 험버트 험버트는 스스로를 교양있고 세련된, 유럽에서 온 잘생긴 지식인이라고 말한다. 교양있는 지식인이 행하기엔 모순적인 험버트의 결정과 행동은 독자들을 불쾌하고 긴장하게 한다.

음악적 회화적 심미적 풍자적으로 분명 뛰어난 문학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성애라는 금지된 욕망과 집착, 상업적 대중음악, 모텔, 소비 문화로 대표되는 20세기 미국 문화는 독자들을 불편하게 한다.

예술과 도덕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문학은 도덕적이어야 하나?

위의 질문은 답을 모색하게 하므로 좋다.

키즈북마미

김보검, 김보민, 민경미, 박은혜, 전나리,
천성미, 최주혁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의 한 발짝 다가가고
다양한 활동을 하여
즐겁게 영어를 배우는 동아리 입니다.

「MY DAD」 Anthony Browne

나의 아빠

김보겸

「MY DAD」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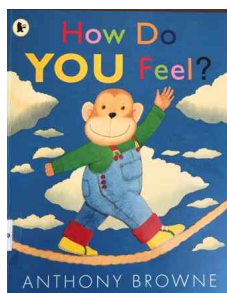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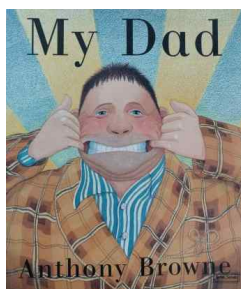
이 책에는 아빠가 늑대를 무서워 하지 않는 장면, 중심 잡기도 잘 하는 장면, 달리기도 잘 하는 장면, 많이 먹는 장면, 수영, 운동을 잘 하는 장면, 하마처럼 기분이 엄청 좋은 장면, 몸집이 너무 커 거인 같은 장면, 곰인형 처럼 귀여운 장면, 수업도 잘하고, 청소도 잘 하는 장면, 발레도 잘 하고, 노래도 잘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빠는 회사 일이 힘들지만 힘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항상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저는 이 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How Do You Feel?」 Anthony Browne

How Do You Feel?

김보겸

「How Do You Feel?」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1. 궁금하다. 2. 지겹다. 3. 외롭다. 4. 신난다. 5. 우울하다. 6. 화나다. 7. 쑥스럽다. 8. 궁금하다. 9. 놀라다. 10. 좋다. 11. 놀리다. 12. 모르겠다. 13. 맛있겠다. 14. 배부르다. 15. 졸립다 입니다.

저는 궁금한 감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궁금한 감정이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빠에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ow Do You Feel?」 Anthony Browne

기분 어때?

김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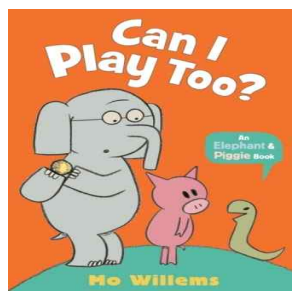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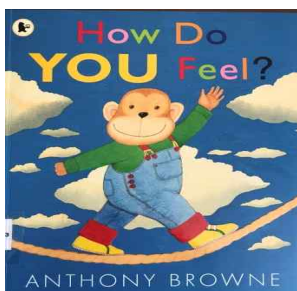
「How Do You Feel?」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기쁜 감정이 나왔고, 슬픈 감정, 화남, 부끄러움, 배고픈 감정, 마지막으로 배부른 감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How Do You Feel?」 책에서 모든 걸 할 때는 집중해야 되는 걸 알았고, 또 「How Do You Feel?」 읽으면 생각이 나 감정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과 느낌은 다양한 감정을 알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Can I Play Too?」 Mo Willems

같이 놀자!

김보민

「Can I Play Too?」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엘리펀트와 피기가 무슨 놀이를 하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놀아야 할지 고민을 하였고, 다 생각해서 놀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스네이크가 나타나서 나도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는데 싫으면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걸 알았고, 또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과 느낌은 피기, 엘리펀트, 스네이크 3명이 같이 놀면 더 할 수 있는 놀이가 더 많아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너무 재밌고, 그림도 귀엽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Can I Play Too?」 Mo Willems

캐치볼하고 놀자

민경미

1. 뱀이 캐치볼을 몸에 맞을 때 뱀의 표정이 너무나 ‘매롱’하고 있어서 재미있었다. 나도 다음에 캐치볼로 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가족끼리 운동장이나 공원에 가서 캐치볼을 해보고 싶다.

2. 만약 이야기 속에서 내가 뱀이 되었다면...

: 머리가 살짝 아프더라고 돼지가 뱀을 안고서 코끼리에게 서로 주고받으면 돼지, 코끼리와 함께 캐치볼을 할 것이다.



「Should I share my ice cream?」 Mo Willems

코끼리와 돼지의 아이스크림

민경미

1. 코끼리가 아이스크림을 돼지의 것도 함께 사야 하는데 코끼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려 슬퍼하고 있는데, 돼지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코끼리에게 양보해서 나눠주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다.

2.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 메로나, 딸기맛아이스크림, 초코리치바, 쌍쌍바, 누가바, 엄마는외계인, 레인보우샤베트, 샌드아이스크림, 쿠키앤크림(쿠앤크), 옥동자, 호두마루이다.

3. 내가 만약 코끼리라면...

: 고민하지 않고 돼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코끼리가 산 민트맛 아이스크림을 돼지와 바로 함께 나눠 먹을 것이다.

「Can I Play Too?」 Mo willems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

박은혜

저자 Mo willems를 처음 알게 된 건 <비둘기에게 버스운전은 맡기지 마세요>였다. 버스 운전기사가 잠시 자릴 비운 사이에 비둘기가 호시탐탐 버스 운전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다. 발칙한 비둘기가 독자에게 말을 거는 형식에 심지어 이 그림책은 더 흥미진진하게 영상화까지 되어있어 난 무척 마음에 들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보다 영어가 더 낫선 시기여서 그랬는지 이 재밌는 책에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저서 <an ELEPHANT & PIGGIE book> 시리즈를 읽어주었는데 아이들이 한 번에 한 권으로는 성이 안찰만큼 재밌어했다. 비결은 짧고 쉬운 문장이었다. 그런데 짧고 쉬운 문장임에도 이야기는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심지어 무척 코믹하다. Mo willems가 비영어권 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라고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후 속표지에 숨은 그림처럼 비둘기가 등장해 그걸 찾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다.

동아리 활동 6월 주제는 “친구”였다. 친구 주제로 <an ELEPHANT & PIGGIE book> 시리즈만한 게 없다. 코끼리 제

럴드와 돼지 피기는 가장 친한 친구이며 둘 다 유쾌하고 다정한 성품을 지녔다. 시리즈의 모든 책이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볼만 하지만 <Can I play too?>는 더 그렇다. 제럴드와 피기가 캐치볼을 하고 있는데 뱀이 다가와 자신도 함께 놀아도 되냐고 묻는다. 난처한 표정을 짓는 두 친구. 팔로 하는 놀이라며(코끼리와 돼지임에도 이족보행의 그림이니 팔로 표현한 점이 재밌다) 우회적으로 거절의사를 보이지만 뱀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보겠다고 한다. 노력해보겠다는 뱀도 멋지고 그런 뱀을 멋지게 생각하는 두 친구도 사랑스럽다. 엄청난 공을 던져가며 그들은 노력해보지만 잘 되지 않자 뱀은 잡기놀이를 할 수 없다며 좌절하고 만다. 하지만 이 시리즈의 대부분은 마지막 반전이 있는데 이 책에선 두 친구가 뱀을 던져가며 모두가 즐거운 잡기 놀이를 하며 끝맺는다. 문득 ‘깍두기’ 놀이가 생각난다. 보통 동생이 언니 오빠들 놀이에 함께하고 싶을 때 규칙을 다소 어겨도 괜찮은 ‘깍두기’가 된다. 누구도 놀이에 소외되지 않고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것. 그 환영받는 경험이 아이에게 더 나아가 사회에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놀이는 생각의 유연성도 길러주는 듯하다. 예를 들면 한 아이는 로봇놀이를 하고 싶고 다른 아이는 인형놀이를 하고 싶을 때 로봇으로 인형놀이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다. 마치 공놀이가 뱀던지기 놀이가 됐듯이 말이다.

나도 가끔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온전히 나를 이해하는 소울메이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존재는 있기도 혹은 만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조금씩은 혹은 많이 다르다. best friend인 제럴드와 피기도 다르다. 우리는 다른 우리들을 만나 함께하고 성장한다. 그렇게 환영받았던 경험을 나누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혼자가 당연하고 나와 다른 이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지금의 세상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말이다.

「Should I Share My Ice Cream?」 Mo Willems

나눔의 의미

전나리

아이의 독서 동아리를 시작하고 책 선정을 하였다.

Mo Willems의 책을 봤을 때 코끼리와 돼지의 그림을 보았다. 코끼리와 돼지가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Mo Willems의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Should I Share My Ice Cream?」의 책은 여름을 상징하는 책이기도 하였다.

여름에는 날씨가 매우 더워 누구나 아이스크림을 떠오르지 않는가..!

우리는 여름에 이 책을 선정하여 수업 하기로 하였다.

「Should I Share My Ice Cream?」 책 제목을 봤을 때, 아이스크림 나눠 먹을래? 라는 질문을 떠오르게 되었고, 이 책을 다 읽어봤을 땐 단순히 아이스크림 나눈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잠시 살펴보면, 주인공인 엘리펀트와 피지라는 두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

엘리펀트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피지는 그 아이

스크림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엘리펀트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아이스크림을 단순히 나누어 먹는 것이 옳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감정, 기쁨, 불안, 갈등 또한 생각하게 된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자나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어른들께 교육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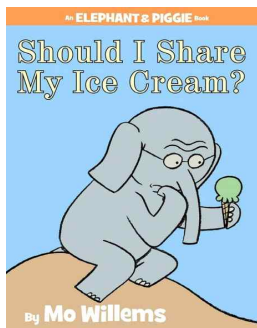
그런데 혼자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가...

마음 속에서 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지? 혼자 다 먹을지? 내적 갈등이 매우 심하게 요동을 친다.

같이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어렸을 때 상황이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하였고,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이 책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감정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는 아주 재미있고 매력적인 책이어서 추천하고 싶다.



「How Do You Feel?」 Anthony Browne

오늘 나의 마음은?

천성미

책 속에 주인공 원숭이가 다양한 표정과 몸짓으로 다양한 감정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오늘의 마음은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재미있었고, 책 속에 장면 장면마다 표현의 방식으로 색채를 다양하게 써서 원숭이가 표현하는 감정이 더욱 돋보였다.

2. 오늘 나의 감정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i feel a little sleepy. I'm definitely going to sleep early today

「위대한 탐정네이트」 미저리 와인먼 샤매트

그는 말했다.

천성미

“ 위대한 탐정 네이트”

탐정 네이트가 책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께 먼저 자신에게 할 수 있다 용기를 주는 말에 네이트가 귀엽게 느껴졌다. 네이트가 범인을 추리하는 모습을 보며, 순간 어릴 적 집 바닥에 떨어진 껌종이를 누군가 흘리고 간 것을 내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껌종이를 손에 들고 “이건 누가 먹었을까?”하며 가족들에게 질문하고 다니던 어린 나의 모습이 생각나서 네이트가 더위 귀엽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하다. 아이와 책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 내가 정말 네이트가 된 것처럼 비장한 목소리로 흥미진진하게 읽으며 아이와 몰입해서 책을 보았던 것 같다. 마지막 귀빈석, 송곳니 옆자리에 앉은 불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초대에 응하는 네이트의 표정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다음 편도 기대된다! 네이트

「Biscuit in the garden」 ALYSS SATIN CAPUCILLI

귀여운 강아지 비스킷

최주혁

주인공 강아지 비스킷이 귀엽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야기는 비스킷이 새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 여자아이가 비스킷을 부르면서 시작한다. 비스킷이 꽃에 앉아 있는 노랑나비를 잡으려고 하지만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비스킷이 지령이를 발견해서 엎드려 꼬리를 말고 있는 게 귀여웠다. 비스킷은 파랑새와 대화도 하는 것 같았다. 여자아이가 새먹이를 꺼내고 있을 때 비스킷은 새먹이 통에 올라가려고 했다. 파랑새가 새친구들을 불렀다. 여자아이가 커다란 새먹이 주머니를 옮기는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조그마한 쥐가 그걸 먹으려고 따라오는 게 귀엽다. 여자아이가 통 속에 먹이를 붓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 새가 갇히면 어떡하지? 생각했다. 쏟아진 새먹이를 비스킷이 열심히 먹는 게 귀엽다. 땅 파는 모습은 훨씬 귀엽다. 새먹이 주머니에 먹이가 훨씬 많은데 새들은 작은 통에 있는 먹이를 향해 잔뜩 날아왔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친구들과 강아지 소리 woof 새 소리

tweet를 흥내 냈다. 재밌었다.

「도서명」 저자: Maisy's Garden by Lucy Cousins

나도 정원이 갖고 싶다.

(동아리원명없음)

동아리 첫 번째 이야기책이어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정원 이야기이다. 메이지는 생쥐다. 메이지의 친구들은 악어인 찰리, 코끼리 에디, 병아리 탈룰라, 다람쥐 시릴이다. 메이지와 친구들이 정원을 꾸미고 있다. 또 수확도 하고 마지막에는 피크닉도 한다.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스티커를 많이 붙일 수 있다는 거다. 스티커를 붙여서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들을 도와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어야 한다. 화분의 꽃 스티커를 붙일 땐 크기 순서대로 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해바라기 꽃이 가장 키가 컸다. 그런데 스티커가 얇아서 조금 찢어졌다. 그래도 스티커 붙이기가 재밌어서 다른 메이지 그림책을 또 읽고 싶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스케치북에 피크닉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그렸다. 감자튀김, 복숭아, 탕후루, 오이, 사과, 수박, 냉면, 치킨, 샌드위치, 오이고추, 바나나, 레몬, 케이크, 햄버거, 콜라, 망고, 멜론, 베이컨, 약과, 체리, 십원빵, 산소(O_2)를 그렸다.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많이 그렸다. 영어로 발표를 해야 했는데 대부분 영어여서 쉬웠다.

나에게 정원이 있다면 딸기를 키우고 싶다. 딸기의 제철은 봄

인데 사람들은 겨울딸기를 좋아한다. 나는 봄 딸기를 키우고
싶다. 또 정원에서 물충으로 벌레를 잡고 싶다. 벌레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는 거다. 해충, 대표적으로 진딧
물을 쫓아내야 한다. 하지만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막 물을
뿌릴 거다. 푹푹푹. 바바박.

페다고지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이철희

노동의 미래와 공공성

조동석

가. 저는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왔어요.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환경과 자원을 가불 받아 쓰다 보니 지구가 너희의 기대수명을 줄여주겠다고 선고를 한 상황이 되었으니깐요. 정치인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근현대의 노동과 근현대의 자본주의적 시각에 의거한 공포라고 보거든요. 과학기술을 1인당 생산성이 극대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인구가 줄어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았기에,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답변이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담담하게 지나친 공포는 독일지연정 ‘내리막길은 맞다’라고 선고합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완만한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언하는 것입니다.

나. 인구 감소의 규모보다는 속도와 구조 변화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문제는 심한 편인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이철희 교수도 고령인구와 여성들을 노동현장에 투입시키면 2, 30년 뒤에도 현재의 93% 수준의 노동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잘하지 못할 분야의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젊은 인력, 특정 분야의 인력이 희소해지고 그것을 보완할 대체 인력과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여태 막연하게 저출산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현행의 흐름대로라면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한정적이라는 문제도 있더라구요. 앞으로는 AI와 로봇의 도움도 많이 받아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겠죠?

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 유시민 논객과 이철희 교수가 의료인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되지 않고 고된 의학 분야는 기대소득을 보고 직업을 선택한 의사들에게 강권할 수 없으니, 필수 의료는 군의관 채용 제도를 통해서 두 트랙으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지방 병원 부족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정교화는 필요하나 귀를 기울일 만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 인구의 감소는 속도 조절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들어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동 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까요. 생성형 AI가 지난 해보다도 더 발전하고 유용해진 게 눈에 드러나더라고요. 최근에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풍의 초상화를 챗지피티에 그려달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그 그림을 보면서 디자인과 일러스트로 밥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잘리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사회가 새 시대를 맞이하며 기어코 사라진 일자리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치열함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대한 대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내지 말고 남은 일자리를 서로 나눠 가지며 덜 치열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만나는 7일의 미술수업」 김영숙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

이지선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일정 중 하나가 바로 미술관이었다. 그림 실력이 1도 없어 학교 다니는 내내 미술 시간이 제일 괴로웠지만, 그림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 듣기는 좋아했었다. 내가 책에서, 화면에서 보고 듣던 유명한 그림을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무척 기대되고 설레었다. 이탈리아 미술관에 가서 더 잘 보고 오고 싶은 욕심에 이탈리아 미술 관련 책을 몇 권 샀고, 이 책도 그중 하나였다. 여행 가기 전에 다 읽으려 했으나 다른 책에 밀려 다 읽지 못하고 절반 정도만 읽고 떠났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미술관은 바티칸과 우피치, 이렇게 두 곳을 방문했는데 바티칸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피치 미술관이 참 좋았다.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여기저기 대작이 많아 눈도 마음도 바빴던 바티칸에 비해 우피치 미술관은 단순한 이동 동

선과 비교적 덜 화려한 공간으로 차분하게 그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밝고 화려한 느낌의 작품들이 대거 있는 우피치 미술관 3층 관람을 마치고, 2층으로 내려와서 처음 눈에 띄어온 작품이 젠틀레스키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이다. 3층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 2층에는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바로크 미술 시대를 열었던 카라바조가 “나는 보지 않은 것은 그릴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크 작품들은 사실적이고 역동적이고 극적인 명암 대비를 통한 집중과 강렬함이 있었다.

젠틀레스키는 피렌체 디세뇨 아카데미 최초의 여성 회원이다.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화가였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젠틀레스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림을 가르쳤다. 나중에는 자기의 친구 아고스티노 타시에게 딸을 보내 그림을 배우게 했는데 그곳에서 젠틀레스키는 타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만다. 성폭력의 끔찍한 기억과 법적 공방, 그 과정에서 당한 2차 가해는 젠틀레스키에게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 그녀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재판이 끝난 뒤 젠틀레스키는 결혼과 함께 피렌체로 옮겨갔으며, 피렌체에 머물던 시기의 대표작으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이 있다.

유딧은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과부로 외적의 장수 홀

로페르네스를 유혹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그가 방심한 사이 그의 목을 내리쳤다. 타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젠틸레스키에게 유딧의 이야기는 복수의 기회였을 것이다. 화가 젠틸레스키는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을 타시의 얼굴로 그려서 타시에 대한 복수를 영원히 그림 속에 박제시켰다. 젠틸레스키는 실제로 타시를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었을까. 어두운 미술관 안에서 본 유딧의 강인한 모습과 홀로페르네스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피는 젠틸레스키의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카라바조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과 함께 보면 더 잘 느껴진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 카라바조의 이 그림은 보지 못했는데, 동명의 카라바조 작품이 있다는 것은 돌아와서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다.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니 젠틸레스키의 그림이 더 잘 이해되었다. 카라바조의 유딧은 가녀리고 “으..음.. 어떡해....” 하며 다소 머뭇거리고 있다면, 젠틸레스키의 유딧은 “너 이리와. 꼼짝마, 이놈 시키!”라고 말하는 듯하다. 카라바조의 홀로페르네스는 목은 잘렸지만 당장이라도 몸을 일으켜 유딧을 낚아챌 것 같은데, 젠틸레스키의 홀로페르네스는 두 여인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이미 죽은 얼굴이다.

젠틸레스키는 여성 화가가 배척되던 시기에 최초의 피렌체 아카데미 여성 회원으로,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았으며 당대 유명한 권력자들에게 그림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여성을 남성 판타지에서 벗어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렸으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자신을 보듬으며 여성 화가로서 당당

히 나아갔다. 젠틀레스키를 보며 ‘나는 어떤 여성인가?’, ‘가장 나다운 복수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림의 힘Ⅱ」 김선현

미술을 보는 관점

황민령

부산 여행 중이었다. “다양한 주제와 회화를 연결하여 소개한 책이다”라는 매력가이의 소개글을 보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살펴보니 1권보다 오랜 시간 준비했다는 말에 이 책으로 냅다 주문을 하고 부산 여행에서 돌아와 택배를 뜯었다.

나는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 문외한이며 예술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오랜 시간, 유치원 시절부터 나는 ‘예술스러운’ 행위에 손발이 오그라들고 닭살이 돋았었다. 모태신앙인이었던 나는 교회에서 주로 하는 예술스러운 행위인 음악과 춤을 보며 그렇게 느꼈다. 교회 음악(찬송가)에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인지, 감정인지를 마구 분출하고 다함께 노래가사에 딱 맞는 몸짓, 율동도 한다. 그리고 성가대는 약간 과장된 발성으로 노래를 한다. 나는 이런 모습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그러니 나는 몸으로 무언도 표현하지 못하는 딱딱한 몸을 가진 사람이며 예술과는 거리가 먼 사

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십대, 삼십대를 지나며 조금씩 예술에 대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비로소 예술로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40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술성 없는 나는 이 책을 〈그저 그런 허세 가득한 자기개발서〉라 평하겠다. 그래서 더이상 자기 개발에 연연하지 않는 나는 이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없었다.

이 그림에 대해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에 끌리는 이유〉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일본에 강연을 간 저자의 사연을 소개한다. 마음에 드는 그림에 손을 들라고 하자 일본 ceo들이 죄다 이 그림에 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챕터 마지막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신경쓰지 않는 과감함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한다. 저자가 말하는 성공은 뭘까? 주변을 신경쓰지 않는 과감함이란 무엇일까? 기업 ceo에게 주변을 신경쓰지 않는 과감함이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 당대에 인정을 받지 못한 마티스는 창조란 곧 용기다라는 말을 했다고 저자는 전한다. 마티스의 용기에 성공 욕망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예술 문외한인 내가 느끼기에도 선을 넘은 해석이라 생각된다. 불편함이 밀려온다.

이 그림의 제목은 〈아침형 인간이 얻는 것〉이다. 그림을 해석하고 느끼는 것은 보는 이들의 몫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곤란

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앞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중략) 실제로 성공한 사람 중에는 ‘아침형 인간’이 많습니다.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쉘츠, 애플의 CEO 팀 쿡, 월트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 모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갓생, #미라클모닝이 떠올랐다. 하루하루 분단위 초단위로 낭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다.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그림을 개인의 성취와 성공의 복을 비는 부적으로 쓸게 아니다. 그래서 안된다. 바닥에 쓰러져 죽어간 이들의 삶에 빛진자로서 사회 변혁과 연대를 꿈꿔야 한다. 갓생으로, 미라클모닝으로 사회의 불안과 부조리, 불합리와 불평등을 덮어 뒤서는 안된다. 반드시 개인의 행동에 따라 사회적 성공(부의 축적)이 결정되지 않는다. 삶은 완벽한 함수식이 아니다. 불안정과 불안으로 가득 쌓여 있다. 사회적 성공과 실패가 개인 행동(노력)의 결과라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길 바란다. 사회적 성공, 부의 축적은 네 사주팔자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이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김누리

시험은 공정한가

나명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가 우연히 타고난 금수저만 기회를 독식하는 사회보다 다수에게 행복할 기회를 줄 수 있기에, 그리고 노력에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이기에 사회는 시험을 통한 취업이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다양한 핸디캡을 가진 소수자들에게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그들의 잠재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다. 꽃은 어디에든 피어난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개개인에게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경쟁 자체가 목적이고 인간은 그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다. 그것은 노예의 삶이다.

경쟁은 필요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쟁하도록 사회가 발전해야 한다.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생긴다. 그 시스템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부작용도 생긴다. 그렇다고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발상은 더 큰 위험을 낳는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러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전체주의, 극단주의, 반지성주의의 물결이 거세어지는 흐름까지 대놓고 느껴져 암담하기만 요즘입니다. 그럴수록 냉담하거나 냉소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상을 꿈꾸고 싶어하는 저조차 점점 더 비관하게 되네요.

사회과제 연구 수업시간에 불평등과 능력주의의 함정에 대해 학기초 꽤나 비장한 마음을 담아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요구하지만 늘 그렇듯이 해결은 복잡하기만 하고 학교 안에서 내적 갈등과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고3에게 이런 수업을 하는게 무슨 의미인지, 이럴 시간에 차라리 등급을 올리는게 낫지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다행하게도 진로 선택과목이라서 평가에서 자유롭긴 함

니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 ‘또야?’하면서 지겨워도 말고 ‘답이 없네’하면서 지루해하지도 말자고 사회선생님다운 말로 마무리하긴 하지만요.

결국 교육을 통한 사회개혁은 가능하다는 저자의 의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이상주의다. 현실성이 없다. 우리나라는 독일이 아니다~ 이런 의견보다는 우리는 다시 경쟁 특히 교실과 학교의 인간의 존엄성과 경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주요한 합의의 인간의 존엄에 대해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 묻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누구나 다 존엄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안된다는 믿음하에 적어도 민주주의를 유지하자는 약속(물론 불완전하고 문제가 지속되지만)만큼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줌으로 일방적인 수업을 하기 싫어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질문으로부터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을까봐 주저하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같은 수업을 받는 친구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만 사람의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사실 요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 속에 갇혀있는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요.

열등감과 모멸감을 이전보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교실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내면화되어 아이들은 특히 경제적 이익(혹은 성적)과 관련해서는 평등보다 차별을 적극적으로 선호합니다.

「페다고지」 파울루 프레이리

따뜻한 단호함

송선화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는 단순한 교육학 이론서라기 보다는 교육과 해방의 길을 모색하고자 분투하는 나에게는 성경과도 같다. 이번에 2회독을 했을 때는 1회독 때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이 더해졌다. 교사로서, 교육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로서의 고민이 더해진다.

나는 유아특수교사로 언어능력과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학부모들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고자 노력한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그러한 부족과 결핍이 혹시나 학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시선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킨다. 프레이리는 나에게 말한다. “억압받는 장애아아들. 그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문제는 그들이 세상과 능동적으로 적응해가며 대화하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으로 나는 우리반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세

상을 탐구하는 동료로 이해하게 해준다.

전교조 활동가로서도 이 책은 많은 깨달음을 준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스스로 교육의 주체로서 인식한다는 것. 즉 대자존재가 되는 것이다. 교사들은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를 알고, 침묵하지 않는 동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헌신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2회차였던 이번 독서는 1회차일때보다는 쉽게 읽혔지만은 이 책의 현실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너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본 것은 아닌가? 프레이리는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가?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페다고지』를 포기할 수 없다. 비록 현실 가능성이 낮더라도, 교육이 단순히 기술 전달이나 순응 훈련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현실에 완전히 닿지 못하더라도, 그 이상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내가 아이들의 ‘작은 시도’를 주체적인 표현으로 인정하려 애쓰는 것도, 동료 교사들과 교육 노동의 의미를 함께 묻는 것도, 바로 그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폐다고지』는 완성된 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교사인 우리에게 “네가 선 자리에서 이 이상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동시에 이 질문을 붙잡고 교실과 운동의 현장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상은 멀지만, 그 이상이 있기에 오늘의 현실을 바꾸려는 작은 실천이 가능해진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김애란

거짓말, 악의가 아닌 선택

안수경

세 아이들 모두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는 부분이 있다. 지우는 혼자가 될까 두렵지만 애매한 관계인 아저씨에게 부담이 될까봐 거리를 두고 있다. 소리는 자신의 특별하고도 이상한 능력이 두려워 친구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사람 싫어하는 척, 접촉을 꺼려하는 척하고 있다. 채운은 가족의 비밀을 누가 알게 될까 전학을 가고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지낸다. 아빠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아빠가 깨어나길 바라는 척 하기도 한다. 거짓을 살아가는 아이들. 하지만 누구도 이 아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그 상황이 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납득이 되고 공감이 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거짓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세 아이들 모두는 커다란 상실의 슬픔에 빠져있다. 지우는 아

버지의 재혼과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용식(도마뱀)의 죽음까지 잃어버린 존재가 너무 많다. 소리는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고 자신의 능력 때문에 친구들을 잃었다. 채운은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고 정서적으로는 벌써부터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따뜻하고 든든한 아버지 상을 잃어버린 상태였을 것이다. 어머니의 감옥행으로 어머니의 부재를 겪고 있고 가장 가족 같던 뭉치도 죽게 된다. 좋아하던 운동을 그만두었으며 가족의 비밀이 담긴 사건으로 전학을 하면서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잃었을 것이다.

커다란 상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불행이 나에게 닥친 것에 분노도 하지만 그것이 나 때문인가 위축되기도 한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도 힘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러워지고 귀찮아진다. 숨고 싶어지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지속된다. 어쩌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더 편하기도 하다. 지우도 채운도 새로운 환경을 찾아갔으며 소리는 자신만의 성을 쌓았다.

아이들이 젊어지기에 아니 어른 누구라도 버거웠을 커다란 상황을 맞닥뜨린 세 명의 아이들은 서로 연결되고 조금씩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간신히 버텨나가는 중이다.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거라 이해가 된다.

이 소설의 제목 ‘이중 하나는 거짓말’은 세명의 담임교사가 자기소개를 진행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자신에 대한 문장 5개를 말하되 이중 하나는 거짓으로, 나머지 4문장은 진실을 말하면 어떤 것이 거짓인지 소개받는 학생들이 맞추게 하는 방식이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자기소개보다 더 부담 없고 신뢰가 간다. 어쩌면 진실만을 말하는 자기소개도 다 거짓일지 모른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만큼 진실을 말하고 말하기 싫은 것은 거짓을 가장해 소개할 수도 있다.

김애란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을 기다린 사람이 많다. 처음 읽을 때 아이들 이야기라 그런가 이전 작품보다 구성이나 문장의 극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짐작하면 할수록 그 거짓 속에 담겨 있는 진실에 마음이 아려온다. 거짓은 악의에서 비롯된 나쁜 행동이 아니라 출구 없는 현실속에서 대안이 된 선택인지도.....

픽처북*talk*

강나영, 김미성, 김선아, 이옥화, 정여진, 정현희,
조아해, 조해미, 최미,
최연경, 최은정, 황영명

영어그림책을 보며 마음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다섯 번째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언어의 세계를 뛰어넘어
문화와 지혜를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따뜻한 공감을 전하는 메신저,
우리는 픽처북*talk* 입니다.

「야생초 편지」 황대권

야생초가 주는 담담한 응원

강나영

여름의 끝자락에 집을 나서는데 어제와는 사뭇 다른 선선한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허탈함이 엄습한다. 여름내 출근길을 괴롭히던 무더위가 달아나 홀가분 할만도 한데, 상쾌함을 느낄 새도 없이 달력을 들여다보고는 ‘아, 올해도 서너달 밖에 남지 않았구나..’하며 혼잣말을 한다. 반복된 일상 속에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렀고, 연초에 세운 수많은 다짐과 목표들은 어디로 가버린건지 자문하지만 뚜렷한 답은 없다. 서늘한 바람이 공허해진 마음을 관통하며 결국엔 삶이 덧없다는 결론으로 치달을 때 쯤 작가 황대권이 소개해주는 야생초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그나마 남아있는 서너달이라도 촘촘히 보내보자고 마음을 다잡게 된다.

작가 황대권은 그의 책 「야생초 편지」에서 잡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쓸데없이 그 자리에 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잡초는 한자로 풀면 ‘잡스러운 풀’이라 하고, 영어로 정의하면 ‘원치 않는 장소에 난 모든 풀’을 말하는데 작가는 이를 인간 중심주의적인 정의라고 꼬집으며 대신 ‘야생초’라 부르고자 한

다. 보도블럭, 아스팔트 사이 조그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올라오는 이름 모를 풀 중에 눈길을 끄는 예쁜 꽃들도 있다. 달갈프라이를 닮은 개망초, 노란꽃이 앙증맞은 딱지꽃, 발고랑이나 논둑에서 흔히 보이는 주름꽃 등은 잡초라고 부르긴 영 미안하다. 대신 ‘야생초’라는 덜 미안한 이름이 있다. 작가는 옥중이라는 열악하고 제한적인 공간 덕분에 야생초 하나하나를 희귀종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다룬다. 그리고 야생초에 대해 기록하고, 미래를 지망했던 데생 솜씨로 공들여 그린 그림을 엮서에 담아 내보낸다.

10여 년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작가는 교도소 담벼락 아래 조그만 화단을 허락받고는 꽃밭 사이에 난 잡초와 이웃사동 앞에 난 풀 등을 파내어 옮겨 심는다. 운동화에 짓밟힌 질경이 이파리 하나에 울화가 치밀다가도 “무릇 정성과 열심은 무언가 부족한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삭막한 교도소에서 만나는 상처투성이 야생초들이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주는 귀중한 “옥중동지”였다고 말한다. 감옥보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환경을 가진 독자가 오히려 수감생활 중인 작가에게 위로를 받는 순간이다.

책은 편지를 쓴 날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여름에 쑥삭 자라는 다양한 풀들, 가을엔 국화를 닮은 구절초, 그리고 겨울을 지나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른 봄에 고개를 내민 냉이와 별꽃. 그것들을 그림으로 담아내면서 한마디를 덧붙인다. “디테일과 전체와의 조화문제. 디테일 처리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다 보면 전체적 조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제로 하지는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쌓고 부수고 쌓고 부수고, 입으로 나불나불 대다가 세월만 보내었던가! 어떤 것이 좋아 보인다고 앞뒤 헤아리지

않고 그것에만 탐닉하고 쫓아다녔던가! 끈기를 가지고 행하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야생초 편지」를 읽다 보면 작가의 이야기에 감성을 적시다가도 정신 차리라는 듯 꿀밤을 맞기도 한다.

작가는 ‘강도와 교도관’ 에피소드와 같이 비록 옥중의 생활이지만 소소한 일상들을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머느리밀씻개, 청개구리’로 위트를 주다가도 글 곳곳에 담담한 응원을 묻어 두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작은 꽃을 피워 내기 위하여 그리고 화단 구석의 내밀한 공간 속에 의젓하게 자리하기 위하여 쉼 없이 움직이고 있는 야생초”를 기특하게 여기며 ‘당신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고요한 울림을 담아서.

황대권 작가의 글은 거창하거나 철학적이지 않다. 담백한 시에 가깝다. 목적지를 향해 정신없이 걷다가 문득 인도 옆 가로수 아래 돌아나 있는 풀 한 포기엔 눈길을 빼앗겼다면 아마도 작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야생초 씨앗 하나를 심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The Book of Mistakes」 corinna luyken

어쨌든 실수, 「The day of mistakes」

김미성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다.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해하며 들어가 보니,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던 영어 교재 후기에 달린 댓글이었다. 그 댓글에는 도움 되는 내용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채점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였다. 명색에 영어 강사로 밥 벌어 먹고사는데,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채점상의 오류, 곧 나의 실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테지만,- 언급당하다니,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관련 글을 찾아보았다. 교재 인증 사진 속, 양말을 뜻하는 'Socks'에 's'가 빠져 있었는데, 맞다고 채점되어 있었다. 이미 글은 발행된 지 시간이 꽤 흘렀다. 되돌리기에는 늦었다. 시간에 쫓겨 채점하다 보니 못 보고 지나쳤나 보다.

하지만 굳이 이 작은 실수를 언급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의심부터 든다. 익명의 그 사람의 지적으로 사진을 삭제해 버릴까도 생각했다. 사진을 삭제하자니, 글의 맥락이

뚝 끊겼다. 그렇다면 기분 내키는 대로 아예 글을 내려 버릴까 하니, 그건 또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작은 실수에 이런저런 오만가지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화끈거리던 얼굴이 제 온도를 찾아가며 도리어 댓글 작성자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쩔 그냥 대충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글과 사진을 이리도 꼼꼼하게 봐주시다니 그 관심에 감사했다. 덕분에 나의 채점 오류를 알고, 사진 하단에 첨언을 달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저 기분 나쁘다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나는 섬세한 독자 덕분에, ‘실수에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하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 혼자서 드라마를 찍으며 붉으락푸르락 내적 갈등 속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글의 완성도를 높였다. 나 자신이 참 속이 좁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나이를 허투루 먹진 않았구나 싶은 자부심도 올라왔다.

“Do you see how with each mistake she is becoming?”

『The Book of Mistakes』, corinna luyken

지적받을 실수가 있었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의미다. 익명의 독자에게 지적받은 것은 아주 작은 실수였지만, 그 실수는 그동안 내가 해온 시도를 의미했다. 나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 교재를 골랐고, 그 교재로 또한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후에 그 교재로 공부해 볼까 하는 다른 독자들을 위해 사진을 찍고 글을 썼다.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한 편의 글이 발행되었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하지만 ‘실수에 대한 따듯한 지적’ 덕분에 완성도를 높였다.

시도 없는 실수는 없다. ‘실수’의 전후 행위를 뜯어 본다. 실수를 고치는 일이 직업인 나도 실수투성이다. 이제는 내 아이들,

학생들,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바라봄에 있어 그들의 노력을 먼저 인정해 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그 실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졌다. 내가 한 실수 덕분에.

「용을 찾아서」 줄리 렉

나만의 용을 찾아서

김선아

용을 찾아서(원제: the truth about dragon)는 2024년 칼데콧 영예상 수상작이자 칼데콧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수상자인 차호운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그림책 읽는 동아리에 참여하며 그림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멋진 작품도 동아리에서 선정하여 알게 되었어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이 주는 단순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매력에 빠져들던 차에, 칼데콧 수상작인 이 책용을 찾아서는 판타지적인 내용과 더불어 생동감 넘치는 그림과 색감의 조화로 그림책에서 그림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차호운 작가님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정체성이 길러지는 십 대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다고 해요. 성장기에 이중 문화와 정체성을 혼란을 겪었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고, 한국의 옛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두산 사이의 작은 발〉로 데뷔했습니다.(작가 소개에서)

이 책은 "지금부터 소중한 비밀을 들려줄게. 네 안에는 강력한 마법이 있단다. 그 마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기나긴 모험을 떠나야 해. 용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니까." 하며 잠자리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용을 찾아 모험의 길을 떠나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용에 대해 이야기해 줄 지혜롭고 친절한 할머니 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는 깊은 동굴에 살며, 기사들이 금은보화를 얻으러 갔으나 실패하게 하는 붉은색의 무시무시한 용을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만난 할머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구름과 번개를 부르고 비를 내리는 입에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요.

“우리 아가, 이제 소중한 비밀을 알려줄게. 네 마음속에는 두 숲이 만나는 곳이 있단다. 넌 두 숲 모두 가볼 수 있어. 두 세계 모두 발견할 수 있고, 지혜로운 할머니들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진짜 용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말이야.”

이야기의 끝에 아이의 엄마는 위의 이야기를 하며 용과 같은 두 가지 다른 세상이 아이 안에 모두 존재하며, 아이는 그 두 가지의 여정을 모두 택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책을 통해 작가는 작가 또한 경험한 정체성의 고민을 서양문화와 동양문화를 상징하는 붉은 용과 푸른 용을 통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그려냅니다.

저는 책을 읽고 작가의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각자의 마음속에는 용기, 도전, 모험, 긍정, 믿음, 자신감의 용 또는 불안, 걱정, 소심, 부정, 염려, 불신의 용 등이 살고 있으며 어떤 용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선택의 관점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할머니를 보며,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 지혜와 친절을 가지고 성장할 힘을 복돋아 주는 지혜로운 할머니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를 바람과 동시에 나 또한 이런 지혜로운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 〈용을 찾아서〉는 다문화적 배경의 이해와 더불어 어린이에게는 모험과 용기를, 어른에게는 선택과 지혜를 생각해 보게 하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멋진 작품입니다.

「Hello, Universe」 Erin Entrada Kelly

우주는 우리의 운명을 어디로 이끄나

이옥화

영어 동화책 모임 회원들과 함께 읽게 된 『Hello, Universe』는 필리핀계 미국인 작가 엔트라다 켈리의 작품으로 2018년 뉴베리 메달을 수상하였으며 뉴욕타임즈,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한 도서다. 300페이지가 넘어 꽤 두꺼워 보이지만 페이지 당 글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고 스토리와 문체가 따뜻해서 독자를 어느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성장 소설이다.

누구나 첫사랑의 추억이 있듯이 버질도 발렌시아라는 소녀를 혼자 좋아해왔다. 하지만 학기가 끝나도록 말 한마디 건네 보지 못한 채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된다. 버질이 마음에 두고 있는 발렌시아는 청각장애가 있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퍼즐을 맞추듯 사람들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고 대화를 한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다. 책 속에서 소녀는 ‘친구보다 차라리 혼자가 좋아’라고 끊임없이 외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외로워 보여 안타까웠다. 십대 시절은 친구가 전부일 수 있는 나이니까 말이다.

한편 버질은 소심하기 이를 데 없어 온 가족이 ‘Turtle’이라고 불러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지 못한 채 진짜 거북이처럼 자신만의 껍데기 속에 갇혀 좀처럼 나오질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소년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아끼는 롤라 할머니가 언제나 옆에서 버질의 마음을 이해해준다. 나에게도 이야기 보따리를 술술 풀어주시는 롤라 같은 할머니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생각하니 부럽기도 하고 둘의 관계를 지켜보는 내내 가슴이 따뜻해져왔다.

그러던 어느 날 버질은 엄마 친구의 딸이기도 한 심령술사 친구 카오리와 켄을 방문해 그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카오리는 버질에게 다음 방문 때 돌맹이를 다섯 개 주워 오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제나처럼 두근두근 그를 ‘얼간이’라고 놀려대는 불리보이 쳇 블런의 집 앞을 지나게 되고, 고개를 숙인 채 피하고 싶어 하는 버질의 뒤를 끈질기게 따라 오며 놀리는 쳇, 고약하다. 주인공이 있는 곳에 꼭 따라다니는 악당 같다고나 할까?

카오리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날. 버질은 소중한 애완동물 걸리버를 배낭에 조심스레 넣고 숲속에서 돌맹이를 찾은 후 약속 장소로 향하려는데 마침 뱀을 찾아 헤매는 쳇과 마주치고 만다. 할머니는 빨간색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쳇이 입고 있는 옷이 시카고불스의 붉은 티셔츠였다니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퍼진다.

쳇은 이번에도 버질을 곱게 보내줄 마음이 없어 보인다. 버질이 그렇게도 정성스레 보살피는 기니피그인 걸리버가 든 배낭을 숲 속 우물에 던져 버린 것이다. 우리의 예상대로 버질은 이 한마디를 뒤로하고 그토록 무서워

하는 어둠, 그 블랙홀 같은 우물 안으로 모험을 떠난다.

“I couldn't leave Gulliver-not for a second.”(걸리버를 우물 안에 혼자 둘 순 없어)

버질이 도착한 굽주린 야수의 목구멍처럼 어두운 우물바닥, 걸리버가 무사한 걸 확인하긴 했는데 짧게 드리운 사다리에 손이 닿지 않아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우물 안에 갇히고 만다. 영원히 누군가에게도 발견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와 그리운 할머니의 얼굴, 배고픔, 과연 버질은 우물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

언제나 정확히 약속 시간을 지키는 버질이 나타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카오리, 젠, 발렌시아는 우리의 작고 소심한 친구 버질을 찾아 나선다. 이 과정에서 발렌시아는 카오리와 친구가 되고 언제나 줄넘기를 목에 걸고 다니던 젠 덕분에 우물 속에 갇혀 있던 버질을 무사히 구출하게 된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딱 마주치게 된 버질과 발렌시아.

그러나 우물까지 내려와 자신을 구해준 발렌시아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끝내 건네지 못한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마는 버질.

그날 밤 잠들기 전 울리는 발렌시아의 핸드폰 진동벨소리, 어두운 방안 갑자기 환해진 핸드폰 화면 속에 떠 있던 단 한마디는 바로 ‘hello’.

아니 그렇게 공공 고민하며 건넨 첫 문자가 달랑 ‘hello’라니,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그 짧은 말속에 얼마나 오묘한 우주의 이끌림과 연결이 얹히고설켜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제목 『Hello, Universe』처럼 온 우주가 운명적인 두

사람을 위해 응원을 보내고 끝내는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존재했던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두 V.S(Virgil Salinas vs Valencia Somerset)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첫 문자를 받던 날밤 발렌시아의 가슴속에 마치 백 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한 걸 보면 발렌시아 역시 버질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 절로 미소가 번진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어린이들이라 아이들 용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이 읽기에도 손색없이 잔잔하면서 끌림이 강한 이야기책이다. 특히 아이들이 주고받는 문자는 영어권 아이들이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지도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또한 그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서를 읽어나가며 글자의 각도, 대,소문자 구분만으로도 그림의 전달력을 뛰어넘은 이미지가 전해져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 중간중간 톨라 할머니를 통해 주인공에게 전해지는 필리핀 섬들에 얹힌 이야기에서는 필리핀계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음안경점」 조시은 글, 이소영 그림

마음안경점

정여진

「마음안경점」은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늘 움츠러드는 ‘미나’가 주인공이에요. ‘썩썩이 입술’ 콤플렉스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단점만 선명하게 보이고 친구들의 시선에도 쉽게 주눅 들곤 하죠. 그러다 우연히 체육 시간에 안경테가 부러지고 신기한 ‘마음안경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맞춘 특별한 안경은 미나의 시선을 조금씩 바꿔 놓게 돼요. 더 이상 결점만 보이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반짝이는 모습이, 자신만의 진짜 매력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자신 없고 움츠러들었던 표정이 점점 밝고 따뜻하게 변해갑니다. 미나가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외면에 갇혀 자기 안에 소중한 아름다움을 잊고 지내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해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태양은 구름 속에서도 빛나고 있어.”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나밖에 못 만들거든.”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외모나 기준에 얽매어 자신을 판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선을 바꿔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소영 작가의 섬세하고 따뜻한 그림은 그 메시지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전달해요. 겉표지 속 안경 쓴 아이의 조심스러운 표정, 속표지에 가득 찬 다양한 안경의 그림들은 각자가 가진 개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크기, 색깔, 모양도 모두 다른 안경들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지요. 그림 속 다양한 안경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며, 중요한 건 ‘어떤 안경을 쓰느냐’는 점이에요. 단순히 겉모습만을 바라보던 미나가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은, 독자에게도 ‘나는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을까?’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마음안경점」은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눈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진짜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진심을 전하는 책. 이 따뜻한 그림책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시선을 선물해 주기를 바라고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틀러가 분홍 토끼를 훔치던 날」 주디스 커

지금도 반복되는 우리 이야기

정현희

주디스 커는 영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이다. 1923년 베를린의 독일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9살까지 독일에서 살았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아버지 알프레드 커, 피아노를 전공한 따뜻하고 유쾌한 성품의 어머니 그리고 오빠 등 네 식구는 좋은 집과 좋은 친구가 있었고,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며 즐겁게 살았다. 유대인 가정이지만 종교를 생각하지 않고 독일어를 말하고 평범한 독일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1933년 어느 날 독감으로 누워있던 알프레드에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온다. 그는 알프레드의 글을 좋아한다며 경찰이 여권을 몰수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준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아버지는 히틀러의 정권 아래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직감하고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먼저 스위스로 탈출했다. 이어서 주디스 커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스위스의 시골 마을까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숨가쁜 탈출을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서둘렀기 때문에 주디스가 아끼던 분홍토끼 인형을 집에 남겨두어 히틀러에게 빼앗긴다. 스위스로

의 탈출, 난민의 경험, 프랑스를 거쳐 12살 되던 해 영국에 정착하기까지의 주디스의 어린 시절 경험 이야기이다.

집과 친구 등 익숙한 것을 떠나서 빠른 시간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압박감, 문화 차이로 인하여 겪는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이 헤어질 위기 등 예전보다 훨씬 더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주디스의 부모님에게는 당시 상황이 엄청 힘들었겠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모험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셨다. 때문에 주디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법을 알아내어 결국 영국인으로써 〈깜빡 깜빡 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 모그 시리즈 등 사랑스러운 책으로 전 세계 어린이에게 즐거움과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나치의 공포를 경험한 많은 작품 중에 〈안네의 일기〉도 실화이다. 그러나 안네는 살아남지 못했고 주디스는 살아남은 사람 중 한 명이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히틀러 시대뿐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전쟁 등 여러 이유로 수많은 난민이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분홍토끼를 훔치던 날〉은 어린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담백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긴 여운을 남긴다.

「가만히 들어주었어」 Cori Doerrfeld

말 없이 건네는 가장 다정한 위로

조아해

나는 그림책이 오로지 아이들의 전유물이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림책은 늘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여겼고,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려 시작한 자격증 공부는 그저 실용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시작은 곧, 같은 마음을 품은 엄마들이 모인 작은 동아리로 이어졌고,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책과 사람,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책을 읽고 나면 꼭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사는 이야기, 육아 이야기, 때론 버거운 마음까지도.. 그렇게 속 깊은 얘기들이 오가고 나면, 언제나 끝은 ‘나’로 향한다. 이 모임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조용히, 온 마음으로 들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가만히 들어주었어』는 수많은 그림책들 가운데 내 마음에 가

장 오래, 가장 깊게 머문 책이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그 어떤 설명보다 선명한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위로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들어주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그동안 위로라는 이름으로 많은 말을 쏟아냈다. “그건 별일 아냐”, “나도 그랬어”, “내가 더 힘들었지”...내 경험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거라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위로를 가장한 자기 고백이었고, 상대의 마음에는 닿지 못한 말이었다.

이 책은 말한다.

우울한 친구의 곁에, 다가가 앉아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누군가 기분 좋지 않은 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이제 문득문득 되물게 된다. 내 곁에도 그런 방식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기도 한다.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나도 그래”라는 공감에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 삶은 모두에게 쉽지 않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녹록치 않은 하루를 살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말보다 더 큰 위로는, 가만히 들어주는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난 꿈인 채로 있고 싶은데...」 요르크 슈타이너

꿈은 꿈이다.

조해미

『난 꿈인 채로 있고 싶은데...』라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매우 찢렸다. ‘으음, 이거 내 얘기인가.’ 갱년기 호르몬 때문인지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하루에 서너 번은 꿈처럼 씩씩대며 냉장고 문을 열고, 달고, 세탁기 버튼을 뽁뽁뽁 누른다. 중학생 아들은 뽀이 난 나를 슬쩍 피해서 헤드폰을 쓴다.

아, 항상 화가 나 있는 내 이야기는 아니군.
세상은 꿈이 꿈이 아니라고 하며 게으르다, 무능하다 한다. 꿈은 자신이 꿈이라는 걸 확신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해야 하는 현실. 이제는 내가 꿈 같다. 꿈은 결국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서커스에도 가고, 동물원에 머물기도 한다. 이 모든 공간은 그에게 “너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꿈이라는 존재가 쓸모나 생산성의 틀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사회가 납득한다는 점이 씁쓸하다.

나도 그랬다. 미국에서 살던 시절, 사람들은 항상 내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꾸 자기소개를 하라 했다. 이방인인 나는 항상

‘설명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왜 이 나라에 살고 있는지, 내 말투가 왜 다른지. 일본 스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대답하기가 귀찮아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하다가 중국에는 나도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기에 이르렀다.

한국으로 돌아와 아이를 키우며 겪는 당황스러움도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들은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가진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라는 물음에 나는 우물쭈물했다. 나의 아들도 여전히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 아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꿈’에서 멀어져 간다.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때론 나도 모르게 내 본모습을 억누른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말투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꿈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도 헛갈리는 내가 생겨난다. 하지만 주인공 꿈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 해고당하고, 버림받고, 모텔에서도 거절당한 끝에 그는 비로소 ‘꿈’으로 인정받는다. 그건 그가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기보다, 스스로 꿈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떠오른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알을 깨뜨려, 머리에는 혹이 나고, 생채기가 생겨도 해 볼 만한 일이다. 참나는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아픈 여정을 통해 동이 트듯 비로소 천천히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해가 뜨기 시작하면 주위는 금세 밝아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능력이라면, 나도 그 능력자가 되고 싶다. 나의 아들에게도 꿈 파워, 파이팅을 전한다.

『The truth of the dragon 용을 찾아서』 줄리 렁

이야기의 숨겨진 힘,
그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림 그리고 사랑

최미

최근 몇 년 사이 서점을 방문할 때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신간, 베스트셀러 전시대가 화려한 일러스트 표지들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제목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일러스트는 트렌드일 수도 광고 전략일 수도 있다. 물론 독자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 일단 표지를 열어 본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작가의 이야기와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출판업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1일 판매량 300권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독서 불황 속에서, 그림으로라도 시선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은 독서애정인으로서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 과거에 그림의 힘을 통해 독서의 세계로 들어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읽은 책들을 떠올려보면, 투박한 글씨체와 구어체인지 문어체인지 모를 문장들 뒤로 그림은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글을 읽고 있는지, 그림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책이 보여주는 세상에 마음을 열었고, 그 이야기와 이미지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남긴다. 그림책의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 그림책을 펴던 마음으로 소설책도

펼쳐서 읽고 싶은 마음을 던지시 암시하는 행동일까.

성인 대상의 도서들은 표지를 넘기면 책날개에 저자에 대한 소개와 약력이 적혀있다. 전문 사진가가 찍어준 듯한 프로필 사진, 수상 경력, 학력, 작품들을 진지하게 알려준다. 그러나 그림책 작가들은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작가의 개성과 색깔을 보여주지 않지만, 책을 펼치면 글과 그림이 만들어낸 힘은 독자를 무장해제 시키고, 그림책의 세계 속으로 읽는 이를 빨아들여 마지막 면지와 만날 때까지 그 세계에 머무르게 한다. 여운이 짙은 이야기들의 세계는 잔잔한 그 분위기는 머릿속을 조금 더 오래 덮고 있기도 하다. 독자에게 어떤 배경지식을 주지 않고 그림책이라는 세계를 온전히 전해주려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작가 이름은 잊어도 그 이야기와 그림만큼은 오랫동안 기억한다. 그리고 좋은 책이 가진 힘이 그러하듯 세기를 넘어 세대를 통하고 세계를 잇는다.

『The truth about dragons』는 잠들기 전,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설정이다. 커다랗고 멋진 달이 뜬 밤, 침대에 누워 엄마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네 안에 숨겨진 비밀(혹은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으로, 아이는 용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지혜로운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으러 상상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붉은 용의 비밀을 알려줄 할머니와 푸른 용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할머니. 강렬한 불을 내뿜는 붉은 용과 물을 다스리는 푸른 용의 진실(truth)을 알게 되고 보통 하나의 용만 만날 수 있는 이들과 달리, 자신은 붉은 용과 푸른 용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뜻하면서도 웅장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에 든다.

이 책은 2024년 칼데콧 명예상과 아시아태평양 미국문학상을 수상했다. 동서양 문화를 두 마리의 용에 빗대어 이국적인 색채를 담아낸 멋진 판타지 그림책이다. 글 작가 줄리 령과 그림 작가 차호윤 모두 미국계 동양인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

에서 성장하는 아이의 양면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섬세한 통찰력을 책에 표현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가진 서로 다른 용의 상징과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훌륭하게 표현했고, 용의 진실을 찾는 모험을 떠나는 길도 동양과 서양의 전래동화에서 볼 수 있는 영물들로 채워 넣었다. 구미호, 흡고블린(hobgoblin), 도깨비불, 여의주, 옥토끼 등 문화요소를 찾아보는 시간도 이 책을 읽는 재미를 한 층 더 깊고 풍성하게 한다.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사유 또한 강한 필요를 느낀다. 청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인 “나 다운게 원데!” 하는 분노 서린 말은 자아 정체성이 흐려지는 시기에 남에게서 듣는 자기평가에 대한 반발을 담고 있다. ‘나’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 나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에서 나를 깊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모험의 끝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앞서 빚댄 용의 은유를 다시 언급하자면 하나의 세계와 만나는 사람과 두 세계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시선의 확장, 그리고 다양한 세계에 속해있는 이들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The truth of the dragon』을 읽은 후, 독자는 글작가와 그림작가의 이름을 잊을 지라도 주인공이 두 마리의 용 사이에 있는 장면은 기억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하루의 끝에는 지치고 힘이 빠져있다. 그럴 때 듣고 싶은 말은 ‘수고했어’, ‘내일 더 힘내보자’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 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들이 주는 격려와 위로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준비할 때 필요한 힘을 주고 다친 마음을 회복하고 더 단단한 내면을 가지게 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이 건네고 싶은 이야기 중에 상상력, 다문화, 정체성도 있지만 가장 큰 메시지는 사랑일 것이다.

「검은 꽃」 김영하

잊혀진 이주의 역사

최연경

김영하라는 이름은 유명한 작가로 익숙했지만, 정작 그의 책은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알쓸신잡 시즌1에서 작가님의 입담에 매료된 후 처음으로 읽게 된 책이 「검은 꽃」이었다. 이 소설은 1905년, 일제 강점기의 시작을 앞둔 풍전등화와 같던 대한제국의 말기에 제물포항에서 멕시코로 떠난 1033명의 조선인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떠났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비인간적인 환경의 에네켄(애니깽) 농장이었고, 현실은 고된 노동과 채무노예의 삶이었다.

그 와중에 조선이라는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사라졌고 가지고 있던 여권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조국으로 돌아가도 희망이 없기에 그냥 눌러앉아 살거나 각자 마주하게 된 제각각의 운명 속에 뭐 하나 나을 것 없이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미처 잘 모르고 있었던 역사의 한 부분, 그저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근대사. 작가는 러일전쟁을 시작으로 당시 조선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의 모습과 단순한 역사재

현으로 그치지 않고 몰락한 황족, 고아, 퇴역 군인, 박수무당, 신부, 땅이 없는 농부, 어부 등 당시 수많은 캐릭터를 창조하고 능숙하게 다루며 작가적 상상력으로 생생하게 그 과정을 묘사하고 독자들을 1905년으로 소환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이주의 시작부터 멕시코 혁명, 그리고 과테말라 내전에 용병으로 참전하게 된 조선인들의 이야기까지 시대의 흐름 속 개인의 삶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멕시코 혁명 묘사 및 역사적 서술이 이어지지만, 그조차도 한민족의 낯선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읽혔던 것 같다.

인상 깊었던 것은 시종일관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독자들을 힘 있게 끌고 가는 작가의 문체와 태도였다. 안타까운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감상에 빠지지 않고, 냉철하고 절제된 시선으로 인물과 시대를 그려내며 거대한 운명과 국가(사회)의 흥망성쇠에 따라 이리저리 이끌리며 살아가는 개인들의 무력한 모습을 담담히 보여주었다. 그 필력에 이끌려 결국 단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소설이 아닌 오늘의 우리에게 국가는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 무력한 개인으로서 버텨나가는 삶의 무게는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중간중간 임팩트있는 묘사들, 모국 어기에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은 한국소설을 읽는 선물 같은 부분이었다.

읽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을까?” 문학이 역사에 말을 걸고, 그 안에서 독자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 「검은 꽃」은 나에게 그런 작품이었다.

「Sam & Dave Dig a Hole」 Barnett, Mac and Jon
Klassen

모험의 끝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시각

최은정

아이들은 목표를 정해서 도전하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길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모험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한다. Sam & Dave Dig a Hole은 바로 그런 이야기이다.

샘과 데이브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땅을 파기로 한다.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 내려가지만, 원하던 것을 찾지 못한다. 사실,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보물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들은 직선으로 파내려 가다가 멈춰서 갈림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방향을 틀어 옆으로 파내려간다. 하지만 이런 결정들이 오히려 보물을 놓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샘과 데이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땅을 파고 또 파내려 간다.

그러다 마침내, 두 사람과 강아지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땅 속 깊은 아래로 곤두박질친다. 마침내 그들은 처음과 같은 장소로 보이는 곳에 도착한다. 샘과 데이브는 어리둥절 해 하며 책은 여기에서 끝이 난다.

책의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숨겨진 의미들이 많다. 이 책

은 단순한 모험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는다. 특히, 생 택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와 겹쳐지는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샘과 데이브는 대단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든 모험을 하지만 오히려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한다. 샘과 데이브가 지나간 자리 바로 옆이나 아래에 커다란 보석이 묻혀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곳을 판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애쓸 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세워둔 목표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어린 왕자에서 사막이 단순히 물이 없는 모래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을 품고 있는 공간이었듯이 말이다.

두 번째로는 여행의 끝은 새로운 시각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다.

어린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며 어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구로 돌아오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어린 왕자가 아니다. 샘과 데이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처음과 비슷해 보이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모든 것이 같지는 않았다. 모험을 통해 그들은 성장하고 같은 세상이라도 다르게 보여지기 마련이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가지만,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듯이, 샘과 데이브 역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암시이다.

이 책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지만, 어른들도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을 수 있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철학적인 책이다. 그리고 존 클라센의 여백이 있는 그림과 색감, 그

리고 섬세한 표현들이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더 신비롭게 만든다.

하지만 이야기의 여운을 남기며 읽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결말은 명확한 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단순한 모험 이야기를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는 다소 난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 이야기는 어린 왕자처럼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대했던 것을 찾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모험을 통해 성장하고, 같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때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이현정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단어들

황영명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은 단순한 그림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때로는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버릇처럼 나올 수 있는 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책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아이와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기에 매우 적절한 그림책으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책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고마워.” 등의 단어 자체로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울림을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처럼 짧지만 의미있는 말들을 통해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끔 구성했습니다.

또한, 책에서 나온 단어들을 부드럽고 적절한 상황으로 따듯하

게 하는 것에 그림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러스트는 군더더기 없이 따뜻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있고, 특히 제시된 말에 의미가 전달되는 장면들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혼자 할 수 있어요’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립하기를 바라면서도, 무의식중에 아이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지시하는 경우가 많고 저조차도 자립을 원하면서도 아이의 많은 부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이 스스로의 의지를 존중하고, 실수도 받아들이는 태도를 부모도 함께 지녀야 함을 일깨워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은 유아들에게는 말을 하면서 중요한 말을 알려주는, 아동들에게는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어른들에게는 말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는 남녀노소가 모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힘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아이에게 읽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책 속의 말을 일상에서 활용해 함께 따라 해보며 실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 부모 역시 같은 말로 반응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정서와 말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에게, 혹은 말을 통해 사람들과 더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은 모든 이에게 이 책은 꼭 한 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은 과연 ‘힘이 센 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선물 같은 책입니다.

학부모 글바시

김동미, 김미성, 김선헌,
류진영, 조인애, 한지혜

타닥타닥 저마다 가슴 속 글씨를 태운다.
우리는 월요일의 작가들이다.

『말겨진 소녀』 클레어 키건

울타리의 존재

김동미

물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다.
아빠가 떠난 맛,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
아빠가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맛이다.
-『말겨진 소녀』 중에서-

말겨진 소녀는 셋째 아이, 그 소녀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는 그야말로 끼인 아이다. 제목과 순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다 할 보살핌과 어여쁨을 받지 못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셋째라는 서열은 끼인 처지를 방증하는 듯하다. 우리의 정서와도 그리 다르지 않은 이 소설은 아일랜드의 여류작가 클레어 키건의 소설이다. 이 작가의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통해 서다. 충실하지 않은 단어가 어디 있겠냐마는 단어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단어에 새 힘을 불어넣어, 읽는 내내 문학적인 측면과 아울러 복선을 찾는 재미 요소를 선사해 준다. 그녀의 묘사는 책을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 관찰자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어찌 보면 색다르지도 않

은 혼한 소재의 ‘말겨진 아이’는 나와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 아닌지 주위를 둘러보게 한다. 한 사람, 나는 쉽게 그를 떠올렸다. 어느 하나 풍족하지 않고 식구는 많던 시절, **나에게도 오래된 한 소녀가 있다.**

『말겨진 소녀』는 100페이지 남짓한 분량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다. 소녀의 시각을 통해 말과 빛, 물을 묘사하고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를 따라 글을 읽다 보면 나도 그들과 같이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그 여운으로 소녀가 느낀 ‘물맛’이란 것을 생각하기에 하루, 이틀로는 부족하다.

소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나게 됐다. 엄마는 곧 다섯째 동생을 낳을 것이고 두 언니도 버거운 부부는 그녀를 외가의 한 친척 부부에게 맡기기로 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소녀는 이곳에 온 첫날, 침대에 실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자상한 부부 덕분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었고 점점 무색에 가까웠던 마음은 그들을 향해 다채로워진다. 소녀는 아주머니가 마련해 준 잠옷을 입었다. 이제 잘 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잠자리에 드는 소녀의 모습에서 ‘**아빠가 떠난 맛**’이 어떤 마음일지 짐작해 본다. 낯선 것으로 채워지지만 싫지 않다. 울타리의 포근함을 점점 알게 되며 언젠가 아쉬움으로 남을지 모르는 예감을 뒤로하고 소녀는 졸린 얼굴을 포근한 베개에 파묻을 것이다. 그리고 오랜 후에, 자라서도 이 느낌을 기억할 것이다. 느낌을 기억한다는 것, 우리는 일종의 사건과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 하지만, 이 물맛은, 처음 경험해 보는 오감이 이루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물맛을 오감 중에 당연히 미각이라 하겠지만 소녀가 느낀 물맛은 작은 해방감이 가져다준 새로움이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경험이 가져다준 희망의 맛.

그렇게 소녀는 낯선 것을 조금씩 허물어가며 식탁에 둘러앉아 그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린다. 바다에서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에는 아리송한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점 그의 농담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마음의 유대로 그들은 하나로 묶이게 된다. 진짜 가족을 떠났지만, 소녀는 새로운 부부의 보금자리에서 참 가족의 모습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소녀가 온 첫날, 킨셀라 부부는 소녀에게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때도 알려준다.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아저씨는 말한다. “절대 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렴.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겨진 소녀』 중에서-

소녀는 동네 이웃을 통해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고 허무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욱이 아주머니가 자상하게 갈 아 입을 옷을 주던 그 옷들은 죽은 아들의 옷이라는 것을 알고 적잖이 당황했지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소녀는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그런 소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냥 두어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소통에 있어 상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설득한다는 핑계로 상대에게 일침을 가한다. 말이라는 것에는 전달의 힘이 있지만 그것을 받는 상대 또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대화가 성립한다. 그렇지 않다면 **침묵도 필요한 무게가 아닐까**. 바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나는 그 부스러기 같은 감정을 일단은 소리 없이 혼자 소유해야겠

다.

이 책을 통해 가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어찌 보면 현실을 부정한 채 너무 이상적으로 풀어간 것이 아닐까 불편할지 모르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서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불가결한 배움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그저 유토피아로 바라볼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애절한 부부의 마음을 닮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아이들이 울타리 너머의 세상에서 새 보금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따뜻한 눈빛과 말로 품어야 하지 않을까.

한 소녀는

아주 오래된 호수에 섰다.

호수는 붉어졌고

이내 독이 있었던 것처럼 허물어졌다.

무너지는 순간에 느낀 작은 해방감.

하지만 그녀의 호수는

다시 채워질지 말라버릴지 모를 일이다.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순례주택』 유은실

기름때 묻은 엄마의 앞치마를 마주하다

김미성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벽돌 담장 위에 ‘순례 주택’이라는 네 글자가 도장처럼 한 자 한 자 큼직하게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떤 내용일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선물해 주신 작가님은 미성 작가님이 좋아할 것이라 하였다.

‘순례’라고 하면 ‘성지 순례’의 그 뜻일까, 그런데 그 ‘순례’가 어째서 정착을 의미하는 주택 앞에 붙은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궁금증만 가득 품은 채, 결국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다른 책들에 밀려 그대로 책장에 꽂혀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조금하진 않았다. 이건 내 책이니까. 언젠든 적당한 때에 다시 만나서 읽으리라.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의 작가들〉 독서 동아리에서 이 책을 함께 읽기로 했다. 읽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 다 같이 읽겠다 하니, 반가운 마음에 책을 집어 들었다. 청개구리 같은 나는 읽기로 한 날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혼자 먼저 집어 들었다. 가볍게 집어 들었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겠

다고 생각하며 읽기 시작했는데, 결국 내용에 푹 빠져서 당일에 홀라당 다 읽어 버리고 말았다. 수림이와 순례 씨의 키키타카와 다소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감춰진 수림이의 날카로운 통찰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순례 주택』, 유은실

우리네 주변에서 만나 볼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애뜻한 정이 묻어 나와 가슴이 몽글몽글해졌다. 책 한 권을 읽었을 뿐인데, 이제 시작한 겨울에서 봄을 만났다.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지 않나 싶은 반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소한 희망을 맛보며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 선택인 건지, 너무 미련한 선택은 아니었는지, 또 그 미련한 선택을 하고 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에게 품었던 정답 없는 질문들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건네받았다.

두 아이를 키우며, 참 열심히도 살았다. 하지만 ‘열심’만으로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따라잡기에는 나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세상이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된다. 비빌 언덕이 있는 자식들은 그 또한 자신의 운임이 당연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절로 공간이 채워져 있으니, 삶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부모의 재력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치로 흡수되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주체적인 삶 따위는 잠시 제쳐

두어도 괜찮아 보인다. 사람 그 자체로 사람을 대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배경에 먼저 혀를 내두르고, 다시 또 휘둘린다. 배경으로 사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기도 한다. 그런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우리 아이들이 답습한다.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일 듯한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책임이었다. 글의 끝에 작가는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할 당당함은 없으나, 부끄러움 없게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삶을 살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날, 괜히 주눅 들거나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던 못난 나도 만났다. 통통 부은 손가락과 기름때 묻은 엄마의 앞치마가 유독 생각나는 오늘이다.

『슬픔도 힘이 된다』 양귀자

슬픔도 힘이 된다

김선혜

‘슬픔도 힘이 된다’

잠언과도 같은 이 문장에 나는 꽤 집착하였다. 책을 읽는 내
내 슬픔이 무엇인지, 왜 슬픔인지, 얼마나 큰 슬픔인지 찾으려
고 애썼다. 헤매 다녔다. 도대체 슬픔은 어디 있는 걸까? 나는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 옆에 올해 아홉 살 아들에게도 물어봤다.

"아들아, 슬픔은 뭐니, 뭐라고 생각해?"

"그냥 눈물 나는 거."

"너는 언제 눈물이 나는데?"

"음... 그건 비밀이야."

누군가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듯 책을 펼친다.

양귀자 님의 『슬픔도 힘이 된다』는 1987년부터 6년 동안 발표한 소설들을 순차적으로 묶은 소설집이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산꽃
천마총 가는 길
기회주의자
슬픔도 힘이 된다.
숨은 꽃

이렇게 총 5편의 소설을 담았다.

앞에 두 소설은 연작소설처럼 이어진다. 첫 번째 소설 「산꽃」의 주인공인 '그'는 아버지의 유해를 옮길 자리를 찾고, 두 번째 소설 「천마총 가는 길」에서 '그'가 이장을 앞두고 보상금을 받으러 고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연결된다. 그 돈으로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경주를 관광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 여정은 그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계획은 없었다. 아니, 있기는 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주 단순했다. 다시 살아보는 것, 마음 깊은 곳에 울혈로 남아있는 압박감을, 부채를 떨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계획이었다."

(양귀자, 『슬픔도 힘이 된다』 40쪽)

다음 두 소설에도 '그'와 비슷한 유형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내면에 고뇌를 둘러싼 '그'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다

른 점이 있다면 '그'의 내면적 고뇌를 외면적인 형상으로 드러낸다는 데 있다. 앞에서 '그'가 새롭게 살고자 내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다음 두 소설은 '그'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1987년 6월 항쟁 그 이후의 일들을 그린다.

세 번째 소설 「기회주의자」는 직장 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이 제 권리를 요구하는 내부적 과정에서 노조원의 다양한 형태를 묘사하는데 여기서 '그'는 원인 모를 감기로 인해 고통 받는다. 누군가의 말대로 그것이 공기 탓인지, 정말 공기 때문인지 '그'는 끝내 알지 못한다.

이 책과 같은 제목의 소설, 「슬픔도 힘이 된다」는 교육 현장의 비리에 저항하여 참된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강제로 해직된 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전교조 지회의 지회장인 '그'를 중심으로 사무실 현판식을 여는 짧은 몇 시간의 일을 기록한다.

"가로 40센티 세로 30센티의 작은 현판은 작지만 큰 것이었다. 저 혼자 외롭게 하는 일에 현판을 달 수는 없다. 현판이, 아니 현판식이 소중한 까닭은 그 속에 함께 뜻을 모았기 때문이었다. 혼자 힘으로는 버둥거리다 말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현판이 상징하는 하나 됨의 조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는 불현듯 김 목사의 말을 떠올렸다. 슬픔도 힘이 된다……."

(양귀자, 『슬픔도 힘이 된다』 201쪽)

그 슬픔까지도 힘이 되기에,
아니, 슬픔이야말로 힘이 된다는 것을.

교사들의 연약하면서도 힘찬 연대를 현판식이라는 형식을 통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숨은 꽃」이 있다. 이 소설은 앞의 것들과는 좀 다르다. '그'가 아닌 '**작가 자신**'이 직접 화자로 등장하여 마치 에세이처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작가는 글쓰기의 미로에 빠진 자신을 "그 지긋지긋한 내 속의 외침을 땅속 깊이 파묻어버리고 혼자만 도망쳐올 수 없을까 해서 꾸민 음모"로서 홀로 여행을 떠나고 그 여정 중 우연히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김종구, 바로 그가 이 소설의 시작점이자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작가는 그의 목소리를 열심히도 채집한다.

"사는 일이 가장 먼저란 말이오. 사는 일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하찮고 하찮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양귀자, 『슬픔도 힘이 된다』 241쪽)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미로 속으로 빠져든다.

"어떻게?"

미로에서 출구를 잃은 나, 아침저녁으로 먹히고 아침저녁으로 우는 시인의 땀부기, 안개 속으로 사라진 김종구, 자신의 꽃말을 암호로 만든 지브란, 그리고 의사의 바느질,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뚫으라는 것인가."

(양귀자, 『슬픔도 힘이 된다』 288쪽)

「숨은 꽃」까지 5편의 소설을 모두 읽어 내리니 어둡고 축축한 뭔가가 나를 에워싼다. 그건 슬픔이었다. 소설은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이 그들의 전반적인 삶 곳곳에 녹아있었다. 슬픔은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을 말한다. 동시에 그 시대 자체가 슬픔이라 할 수 있다. 억압된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절망과 비통함은 감히 분노나 절규도 될 수 없기에. 그것을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저 슬퍼할 뿐이다. 그러나 슬픔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슬픔을 지렛대 삼아 나아가는 인물들을 통해, 슬픔이야말로 힘이 되는 서사를 전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현실과 그 슬픔을 우리에게 폭로한다. 폭로함으로써, 이 소설의 존재 자체, 그 슬픔이 곧 힘이 된다.

슬픔은 어떻게 힘이 되는가?

결국엔 희망, 슬픔을 이겨내고자 하는 힘이 '희망'이 된다. 슬픔이 있기에 희망도 가능해진다.

"어디서부터 어디를. 나는 짓밟힌 귀신사에서 본, 모래더미에 파묻힌 이름 모를 꽃을 생각한다. 그 숨어버린 꽃 속으로 삼투해 들어간다."

(양귀자, 『슬픔도 힘이 된다』 289쪽)

여행을 마친 작가는 '숨은 꽃'을 떠올리며 기계 앞에 앉아 쓸

힘을 얻는다.

마치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듯이.

‘드러나지 않는 이 힘, 그러나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이 힘이 보여주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김형석, 백 년의 지혜』, 김형석

책에서 찾은 내 마음의 상처 치료제

류진영

말라가던 ‘아이비’에 새싹이 돋았다. 잎이 떨어지던 ‘덴도롱’도 힘내 꽃을 피웠다. 아침 해가 뜨면 베란다 화분 앞에 앉아서 꽃을 들여다보시고 잎을 매만지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이비에서도, 덴도롱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 정성을 다해 살려낸 아이들이다.

아이비는 우리 집에서, 덴도롱은 동생의 집에서 다시 살아나며 우린 아버지를 다시 뵈는 듯 반갑고 감격스러워 또다시 눈물 바람이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아직 내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의 철학을 보는 듯한 책 『김형석, 백 년의 지혜』를 읽었다.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도 책을 쓰셨더라면…….’하는 아쉬움과 남겨놓으신 수많은 메모를 출판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며 김형석 철학자의 글을 만났다. 삶의 지혜가 담긴 한 줄 한 줄은 내 가슴속과 독서 노트를 가득 채웠다.

저자는 묻고 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나도 스스로에게 물으며 책 속에서 답을 찾아 나선다.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이고, 그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일까?

100세가 넘은 김형석 철학자의 질문에 『무엇이 될까보다 어떻게 살까를 꿈꿔라』를 쓰신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어떻게’를 고민하라!로 답문을 열어주셨다. 백 년의 깊은 철학을 담아서로 사랑하는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며, 회복과 주어진 목적을 채워가는 사랑의 구현을 역설하셨다.

‘나는 울지 않았다. 슬프기는 했으나 내가 정성 들여보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깔려 있었던 것 같다. 제삼자가 보면 그것이 인간애의 성스러운 모습이었을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간의 사랑스러운 자화상이었던 것 같다.’

-김형석, 『김형석, 백 년의 지혜』 35쪽-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향한 마음이 꼭 우리 아버지의 모습 같아, 문장 읽고 또 읽으며 ‘성스러운 모습’에서 이 문장이 왜 내 가슴에 꽂혔는지 알 수 있었다.

한결같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뭐라 표현할 길 없었는데 ‘성스러운 모습’. 늘 정성을 다하셨던 그 모습은 가히 성스러운 모습이었다. 화분의 꽃을 가꾸면서도 정성을 다하고,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화초로 일 년 내내 꽃이 베란다를 물들였다. 외출이 어려운 우리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께선 화분에 꽃말까지 적어서 꽃으시곤 그 꽃말을 어머니께 들려주시며 수줍은 고백을 하신 것이다.

‘평생 동반한 사람을 위해 10년, 20년 사랑의 짐을 나누어 갖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그 짐을 진다는 것은 주어진 사랑의 행복일 수 있다.’

-김형석, 『김형석, 백 년의 지혜』 32쪽-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늘 그리워하며,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갖고 계셨다. 20년을 넘게 간병하시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사랑의 행복’ 덕분이었을까?

우리가 가족의 울타리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일들은 나의 몫이다. 물론 상식 밖의 말도 안 되는 극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으며 인내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겪는 생로병사 앞에서 우리의 ‘사랑의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아버지를 닮은 김형석 철학자를 만나고 돌아서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을 만나 괴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괴테’에 폭 빠진 전영애 작가는 경기도 여주에 괴테 마을을 조성하며 ‘홀로 아름답게, 함께 더 아름답게’를 실천하고 계셨다.

괴테는 늘 깨어 있고, 신간을 접했다고, 나이 들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졌다고 전영애 작가는 전한다. 굳어지지 않고 닫히지 않은 감각으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삶의 진경들이 작품에 그려졌다고 괴테의 작품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괴테의 철학을 듣고 나니 김형석 철학자와 고 김수환 추기경

이 입을 모아 강조하신 삶의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환해졌다.

괴테처럼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삶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던 전영애 작가의 선한 결단력을 가지고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 정도면 ‘어떻게’가 조금은 채워진 것일까?

아직은 확실하게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을 벤저민 하디의 『FUTURE SELF』에서 채울 수 있는 지혜를 발견했다.

‘더욱 찬란한 미래를 맞으려면 더 나은 과거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 그러면 점점 성숙해지면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마저 경외심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난에서 교환과 삶의 의미를 얻게 되고, 그 순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벤저민 하디, 『FUTURE SELF』 88쪽-

내가 겪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부모님의 부재가 큰 상처가 된 ‘아픈 과거’가 ‘성숙’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만난 저 문장은 내게 상처 치료제와 같았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라는 말이 나의 마음에 힘을 주었다.

저자가 힘주어 말한 대로 10배는 더 힘이 되어 나의 삶은, 목표는 더 빛나게 되었다. 말라 있던 아이비의 줄기에서 여러 지만, 강한 새싹이 또 나고 있다. 새싹이 맞이할 내일이 기대

되는 것처럼 나의 내일이 기대된다.

더 따뜻하고 찬란할 우리의 내일이!

「맡겨진 소녀」 클레어 키건

신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선물로 준다.

조인애

클레어 키건의 책은 얇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책을 펼치고 나는 친척집에 맡겨지는 소녀가 되어본다. 소녀의 시선을 따라 나도 모르게 킨셀라 부부의 주변을 살핀다. 킨셀라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집은 빛이 드는 밝은 집이다. “나는 이 어색한 집에 아빠가 나를 두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내가 있던 익숙한 곳으로 다시 데려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든다.”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소녀는 어떤 집의 부모를 선택할까?

맡겨진 소녀는 집에서도 킨셀라 부부의 집에서도 같은 한 소녀다.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과 무심하고 거친 아버지, 아이를 다섯이나 키워내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과 관심을 받지 못하던 소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만 아이가 없는 먼 친척집에서 생활하며 소녀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킨셀라 부부와 생활하면서 소녀는 같은 소녀이지만 다른 소녀가 되어간다.

내가 소녀였을 때 사람들이 사는 것은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없을 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 살아보니 사람들 사이, 집과 집 사이에는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비단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보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아 찾아 보지 않지만 TV채널을 돌리다 멈춘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에서 출연진으로 나오는 배우 진태현이 울면서 하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욕설 부부로 불리는 부부가 나와 서로를 탓하며 카시트에 앉아 우는 아이에게 아내가 욕을 하는 장면이었다. 진태현은 오늘이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2주기라고, 어제 카시트를 정리하면서 카시트에 아기 얹혀보는 게 꿈이었다고 말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 되게 소중한 걸 알아야 한다. 하나만 약속해야 되는 게 있다. 제발 우리가 아이들은 잘 키워야 하지 않겠냐”

JTBC 『이혼숙려캠프』 진태현(배우)

이미 아이 넷을 돌보고 집안일과 발일까지 신경 쓰느라 지친 어머니에게는 다섯째가 뱃속에 있다. 그들 부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집에서 소녀가 받은 보살핌을 살펴보면 경제적 형편만큼이나 넉넉하지 않다. 아이를 살뜰하게 보살필 줄 아는 킨셀라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 이렇듯 사람들 사이에는 처한 상황도 그 상황을 살아내는 방법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한 문장 한 문장 생각을 쉬지 않게 하는 클레어 키컨의 글

속에서 나는 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나를 생각해 보았다. 나도 두 아이의 엄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어 간절히 바라던 때도 있었다. 임신한 여자의 배가 부러워 길을 걷다 서서 한참씩 바라보곤 했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얻고 가끔 잊는다 그 간절하던 바람을.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화가나 나에게 그나마 이성이 남아 있을 때-이성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저녁 뉴스에 나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을지도- 주먹으로 스스로의 가슴을 치고 또 쳐 가슴에도 마음에도 푸르른 흔적들이 남았던 때도 있었다. 소녀의 부모도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무엇보다 소중했을 것이다. 그러나 잊어갔을 것이다. 소중함을. 벅찬 시간들을 살아내느라……

진태현 배우가 우는 모습을 보며 “신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 말이 생각났다. 어디서 들은 건지 아니면 읽은 건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 허나 내가 지금 바라보며 화를 내고 있는 눈앞의 아이가 어느 집에서는 간절히 바라도 이뤄지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부모에게 자식이 자식에게 부모가 가족이 되어 살아가며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한다. 예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된다.”

『말겨진 소녀』클레어 키건

이 글의 끝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선물로 받았다고 그 시간들을 살아낸 나에게 확신할 수 있다.

『퓨처 셀프』 벤저민 하디

미래의 나를 위해 스스로 세우는 원대한 목표

한지혜

‘물은 셀프’라는 표현은 많이 봤는데, ‘퓨처 셀프’는 무엇을 뜻하는지 호기심이 생겼던 도서이다. 독서 모임을 같이 하는 작가님들의 추천으로 읽어본 책 『퓨처셀프』는 3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 나온 자기계발서이다. 조직심리학자로 자기계발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벤저민 하디’가 지었다. 까만색 표지에 영롱한 실버컬러로 ‘FUTURE SELF’라고 써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책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읽건쓰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퓨처 셀프’ 책을 받아 읽으면서 드디어 퓨처 셀프가 뭔지 알게 되었다.

미래의 당신은 현재의 당신과 다르다.

하지만 어떻게 다를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비전이 원대할수록 더욱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벤저민 하디 『퓨처 셀프』 3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26p

이처럼 미래의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본인의 경험과 사례를 들어 알려준다. 작가로

활동하는 벤저민 하디는 매일 매 순간 책을 쓸지 다른 일을 할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함을 밝힌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시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ery의 말을 인용해서 중요한 점을 느끼게 한다.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책에 나온 현재 4억 명이 넘게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미스트비스트MrBeast’를 운영하는 지미 도널드슨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지미는 유튜브에서 3년 동안 대부분 비디오 게임 해설이나 유명 유튜버의 생활과 수입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왔었다. 2015년 10월 4일, 자기 자신과 나누는 은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구독자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4개의 영상편지를 찍었다. 그리고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공개 되도록 예약 설정해 두었다. 구독자가 8,726명인 상황이었다. 2020년 10월 4일, 5년 후에 공개된 영상(Hi ME In 5 Years)에서는 100만 구독자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겨있었다. 꿈으로 그리던 모습이 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나는 아이를 낳고 키워가면서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일을 재미있게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책을 보고 나서 크리에이터라는 목표에 100%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결론을 내렸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올리거나,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작 자체를 미루곤 했다. 소중한 시간을 들여 내 글과 영상을 보는 분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정성 들여 나만의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나는 저자의 사례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저자는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표현처럼, 책을 쓰겠다는 목표를 세워 말하면서 내용을 함께 쓸 공동저자를 구했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더니 빨리 얻게 되어 놀랐다고 한다. 나 또한 이뤄졌다고 믿고 대담하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겠다.

퓨처 셀프 책을 읽고 나서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니 지금 해야 할 일이 보다 명쾌해졌다. 그러면서 시간의 축에 맞춘 로드맵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독서 후 서평을 나누는 시간에 내 원대한 목표의 청사진을 이야기했다. 나조차도 지금은 엄두가 나지 않는 목표지만, 이뤄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독서동아리를 통해 이렇게 인상 깊은 책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한 이에게, 책 『퓨처 셀프』를 권한다.

